

활기찬 노후를 위한 마을의 고령친화성 향상 방안

-고령여성 마을활동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허미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과장)

김영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 간 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성숙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민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고령여성들은 마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마을활동에도 다수가 참여하고 있으나, 충분히 그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을활동 중에도 편견에 부딪히며 주변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본 연구에 앞서 재단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역할과 6080 1인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 하되 연구의 효율성을 배가가 되도록 ‘실버액션단’ 시범운영이라는 사업형연구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고, 이러한 시범운영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지원방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년에 걸쳐 지속 확장된 연구결과가 6080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고령친화적인 마을을 만들고 활기찬 노후를 꾸려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함께 나누어주신 6080여성 마을계획단원 여러분들, 마을계획단장님들, 마을사업담당자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무사히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공릉2동과 여의동 동장님 및 관계자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8주 동안 함께 여정을 마무리해주신 열여섯 분의 자랑스러운 선배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강경희

Contents

I 서론 _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1) 100세 시대, 고령여성과 활기찬 노후 ^{Active Aging} 의 중요성	3
2) 활기찬 노후의 실천 공간으로서 ‘마을’	5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활기찬 노후	7
2. 연구목적	8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9
1) 연구대상	9
2) 연구내용	10
3) 연구방법	10
4) 연구추진체계	12

II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 이론과 현황 _ 39

1. 여성과 나이듦, 활기찬 노후, 정든 마을에서의 노후	17
1) 여성과 나이듦	17
2) 액티브 에이징과 고령친화 커뮤니티 ^{Age-Friendly Community Initiatives}	19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의 젠더와 연령 이슈	23
1) 찾동 마을분야 사업 현황	23
2) 찾동 마을계획의 젠더와 연령 이슈	26

Ⅲ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참여 실태 : FGI 결과 분석 _ 39	
1.	조사 개요	41
2.	참여의 조건과 동기	43
	1) 주민의식과 이웃의 중요성 인식	43
	2) 마을활동의 조건: 시간, 자원, 참여의식	48
3.	참여의 내용과 성과	50
	1) 마을계획단 활동 내용: 고령자와 여성을 위한 활동	50
	2) 고령여성 참여의 의미	52
4.	참여의 걸림돌과 한계	57
	1) 연령에 관한 태도와 타 세대의 편견	57
	2) 가부장 문화의 답습: 리더는 남성 어르신?	59
5.	참여 애로사항과 극복지점	62
	1) 마을계획단 내·외부 갈등	62
	2) 고령여성 역량강화 필요	66
6.	요약 및 시사점	70
Ⅳ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 :	
	실버액션단 활동 결과 분석	73
1.	실버액션단 운영 개요	75
2.	실버액션단 활동 내용	81

3. 평가 및 시사점100
1) 주체의 성과100
2) 운영의 한계104
3) 향후 고령여성 마을활동을 위한 시사점105

V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역량강화 방안 _ 109

1. 정책방향111
2. 세부과제113
3. 연구의 한계120

참고문헌 _ 122

부록 _ 127

표 목차

표 I-1	연구추진 체계	13
표 II-1	액티브 에이징 정책의 기본틀	20
표 II-2	마을계획단 성별 참여 현황	30
표 II-3	마을계획단 구성 현황	30
표 II-4	마을계획단 구성원 직종표	32
표 II-5	마을계획단 대표 및 실무진 구성 현황	33
표 II-6	마을계획 의제 분류	35
표 II-7	노년층 관련 마을의제	35
표 III-1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마을계획단 참여 여성 그룹	42
표 III-2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마을계획단장 그룹	42
표 III-3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마을사업담당자 그룹	43
표 IV-1	실버액션단 운영 개요	77
표 IV-2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77
표 IV-3	실버액션단 운영 개요	80
표 IV-4	공릉2동 6080 여성 중심의 파티기획 결과물	89
표 IV-5	공릉2동 실버도서관 계획	92
표 IV-6	단일세대 커뮤니티 공간 vs 복합세대 커뮤니티 공간의 장단점(논의내용)	93
표 IV-7	여의동 실행계획서 작성 결과	96
표 IV-8	실버액션단 활동의 회차별 성과	102
표 IV-9	실버액션단 활동 전후 인식 변화	103
표 V-1	마을계획단 개선방향	112
표 V-2	후속모임계획(안)	116

List of Figures

그림 목차

■ 그림 I-1 ■ 고령여성(60~80대) 1인가구가 희망하는 노후의 모습	5
■ 그림 I-2 ■ 고령여성(60~80대) 모임·단체 활동의 지역 범위	6
■ 그림 II-1 ■ 액티브 에이징 ^{Active Aging} 결정요인	21
■ 그림 II-2 ■ 찾동 마을분야 사업	26
■ 그림 II-3 ■ 마을계획 진행 과정	28
■ 그림 IV-1 ■ 고령여성 마을활동 역량강화 핵심요소	76
■ 그림 IV-2 ■ 실버액션단 1회차 진행 모습	82
■ 그림 IV-3 ■ 실버액션단 2회차 진행 모습	83
■ 그림 IV-4 ■ 실버액션단 3회차 진행 모습	85
■ 그림 IV-5 ■ 실버액션단 4회차 진행 모습	87
■ 그림 IV-6 ■ 실버액션단 5회차 진행 모습	91
■ 그림 IV-7 ■ 실버액션단 6회차 진행 모습	94
■ 그림 IV-8 ■ 선배시민으로서의 다짐	95
■ 그림 IV-9 ■ 실버액션단 7회차 진행 모습	97
■ 그림 IV-10 ■ 실버액션단 전후 인식의 평균값의 변화	102
■ 그림 V-1 ■ 연속활동 방향	118

연구요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구의 고령화, 고령인구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존과 비생산성을 위주로 형성된 사회통념의 한계, 중증질환·빈곤계층 대상 돌봄 서비스 위주인 기존 노인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다수 고령여성들이 사회적 부담 또는 시혜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사회참여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됨.
- 적극적 사회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실현하는 데 있어 마을은 매우 중요한 공간임. 고령여성들은 마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왔고 가장 많은 시간을 마을에서 보내고 있으며 주된 활동 범위 역시 마을이기 때문임
-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고령여성의 참여실태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에서 노인이 복지서비스 대상이기는 했으나 활발한 지역사회 참여 주체로 고려되지는 않았음. 따라서 이들의 참여 활성화와 역할 강화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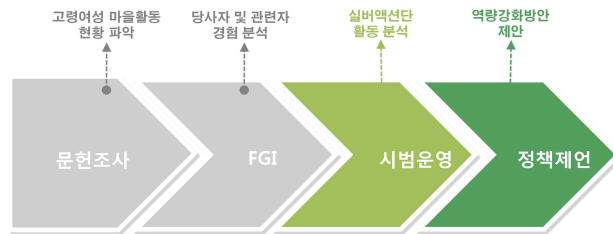
2. 연구목적

- 찾동 마을분야 사업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 분석을 통해 마을의 고령여성 참여 의미와 위상 제고
-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경험 및 욕구를 분석하여 마을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및 정책지원 방안 도출
- 고령여성 모임을 시범운영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활동 모형 및 정책방안 제시

3. 연구방법

- 문헌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액션 리서치

- 문헌조사: 찾동, 마을공동체 보고서 및 통계자료, 고령자 사회참여 관련 정책 분석
- FGI: 찾동 2단계 자치구 중 2015년부터 마을계획을 시작한 14개 동의 마을계획단 고령여성 참여자 그룹(14명), 마을계획단 리더 그룹(4명), 마을사업 담당자 그룹(5명) 대상
- 액션 리서치: 고령여성의 마을계획단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버액션단’ 2그룹 운영 (공릉2동 10명, 여의동 6명) 및 참여관찰



4. 주요 연구결과

- 문헌조사 결과: 서울시 찾동 마을계획단의 연령 및 젠더 문제
 - 마을계획단 구성원의 배경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연령대 성별에 대한 정보조차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아 향후 보완이 필요함.
 - 중고령 여성참여자의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단장의 성별은 1명 외에는 전원 남성임이 드러나 여성의 역할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고령자가 참여주체이기보다 사업의 대상화, 즉 어르신 돌봄 사업의 대상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음.
- FGI 결과
 - **저평가된 고령여성 참여:** 마을계획단에서 고령여성은 숫적으로도 적극성으로도 비중이 적지 않으며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60대 이상의 여성들은 통장이나 지역 봉사활동의 이력을 통해 마을계획단에 합류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마을을 개선해보겠다는 의지 또는 가까운 이웃관계에 대한 희망으로 자발적 참여를 하기도 함. 이들의 장점은 오랜 마을 거주 경험, 친화력, 위 아랫세대를 잇는 역할

에 있음.

- **역할의 한계**; 고령여성들은 장점과 활동력에 비해 단장 등 리더 역할을 맡기 보다는 실무와 협조의 역할을 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남. 이는 리더 경험의 부족과 가부장적 문화에 익숙한 점 때문으로 보임. 또한 마을의 기성세대인 본인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젊은 세대가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는데, 과연 한 번도 주역으로 조명 받은 적 없는 이들 여성들이 뒤로 물러서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시해야 함. 또한 마을계획단에서 고령여성이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기대 받는 역할은 음식 만들기 또는 돌봄 등과 같은 것으로 한정적인 편임. 이와 같은 일들이 마을 주민과의 소통과 마을활동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으려면, 살림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의 역할을 마을로 가져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임. 이를 위해서는 젠더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수라고 할 수 있음.
 - **고령자에 대한 편견 경험**: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적인 노인 이미지의 영향이 있어, 마을활동을 하면서도 안팎의 편견에 마주함. 아집과 소통부족으로 대표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한편으로는 소통 연습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편견 극복을 위한 세대 간 이해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 실버액션단 운영 결과
- 공릉2동과 여의동에서 각각 8회차에 걸쳐 강의 및 토론을 통한 젠더·연령 감수성 강화 프로그램 및 마을의제·실행계획 수립 시뮬레이션을 진행함.
 - **활동의 성과**
 - **‘여성인 나’의 성찰과 선배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재정립**: 16명의 참여자들은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노후를 위해 자신감을 갖는 계기를 갖게 되었으며,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후배시민들과 교류하는 ‘선배시민’으로서 자각의 기회를 갖게 되었음.
 - **젠더감수성과 주민주도성 인식의 긍정적 변화**: 간단한 질문지를 활용하여 실버액션단 참여 전후를 비교한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게 약해지는 변화를 보였으며, 마을참여에 대한 인식에서도 본인들이 마을에서 필요한 존

재이며 주민이 정책을 개선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함으로써 긍정적 변화를 보였음.

○ 향후 고령여성 마을활동을 위한 시사점

- **촉진자 역량의 중요성:** 워크숍 운영에서 촉진자(퍼실리테이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연령·젠더·마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촉진자 발굴과 육성이 필요함.
-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기간 설정 필요:** 평소 젠더 이슈를 고민하거나 여성의 눈으로 자신과 사회를 바라본 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이라면 1~2회의 워크숍으로 완벽하게 젠더관점에서 마을 의제를 제시하는 것을 불가능에 가까움. 또한 마을 의제 선정과 실행계획 수립 역시 단시간에 완성하기 어려운 과제임. 따라서 각 단계마다 충분한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마을별·구성원별 특성 고려 필요:** 동세대 안에서도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임. 따라서 마을 단위의 프로그램 운영과 정책 시행에는 마을 구성원 특성의 차이를 세밀하게 고려되어야 함.
- **장기적 전망의 후속활동 필요:** 실버액션단 활동 종료 이후 참여자들이 개별 활동가로서 마을활동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후속 모임 등을 통해 향후 활동 방향과 경험 확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5. 정책제언

□ 마을계획단의 현재와 향후 개선방향

영역	구분	현재	개선방향
참여주체 (고령여성)	진입경로	• 통장, 직능단체, 기존 참여자 중심의 모집 한계	• 자발적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진입통로 확대
	비중 및 역할	• 참가자 비중 높고 활동력 있으나 리더역할에서 배제 • 고령자에 대한 편견 존재 • 돌봄역할로 역할 한정	• 고령여성 리더십 강화 • 전 세대 주민의 인식개선 및 세대간 소통 강화 • 돌봄과 살림의 가치 재의미화
	교육과 경험	• 젠더의식 고취 경험 부족	• 고령여성 마을활동을 위한 프

영역	구분	현재	개선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육구 파악 기회 부족 • 가부장적 친족관계 역할로 인해 사회활동 제약 경험 	<p>로그랩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와 연령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기회 제공 • 지속적 교육으로 실버젠더활동가 양성
참여환경 (마을계획단)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고령자, 청소년, 비혼 1인 가구 등의 참여 부족 • 성별/연령별 참여자 통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의 다양성 강화 및 소수자 대표성 확보 • 성별분리통계 실시
	고령자 관련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는 사업의 대상/수혜자로 설정 • 돌봄 서비스성 사업으로 고령자관련 의제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사업의 대상에서 사업의 주체로 • 고령친화성 향상을 위한 의제 마련
	민관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주도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주도성 강화 • 행정과 주민사이, 주민과 주민사이의 소통 강화 • 행정의 젠더·연령 감수성 향상

□ 세부과제

- 주체의 역량강화: 고령여성 젠더활동가의 발굴과 마을참여 활성화
 - 고령여성 참여 프로그램 지원 및 확산: 고령여성이 젠더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육구, 사회를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여성 참여 프로그램 실시. 프로그램 운영 시 젠더·연령에 대한 이해를 도울 촉진자 발굴과 양성, 프로그램 표준안 마련 및 배포, 동장 또는 유관부서 담당자와의 협의체계 마련, 참여자 특성 고려 필요.
 - 잠재적 마을활동가 고령여성 발굴: 기존의 직능단체 및 마을활동 경험자 외에도 다양한 여성들의 참여 유도.
 -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연속 활동 기획: 후속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네트워크와 고령여성 셀프디자인스쿨, 새로운 자매조직 구성, 고령여성의 활동영역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 환경의 조성: 마을사업의 젠더·연령 감수성 향상
 - 마을계획단 구성 및 의제의 다양성 실현: 단원 및 의제 할당제, 평등한 역할 배분과 평등지향성 명시
 -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 마을계획단 구성원 모두의 타 연령층 이해와 소통 강화.
 - 마을계획사업의 성별분리통계 실시
 - 찾동 주민자치 관련 인력의 성인지 교육 실시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100세 시대, 고령여성과 활기찬 노후^{Active Aging}의 중요성

인구성장률 감소로 인해 2016년 현재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3.53%, 서울시는 13.05%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여성노인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이 55.9%로, 여성노인 100명당 남성노인은 79.0명 꼴이다(2016년 기준). 2030년 인구동향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 예상하고 있는 ‘고령인구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송인주·정은하, 2015).¹⁾

1)

전국 대비 서울시 65세이상 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65세 이상 인구			성비*
	계	남성	여성	
전국	6,569,082	2,763,407 42.1%	3,805,675 57.9%	72.6
서울특별시	1,202,894	530,871 44.1%	672,023 55.9%	79.0

* 주 : 성비는 여성인구 100명 당 남성인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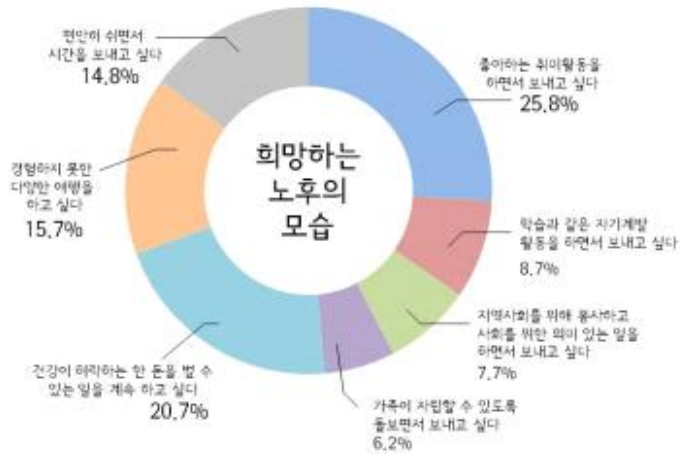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교육정도가 낮고, 만성질환이 있는 비율이 높으며, 생활비를 자녀에게 의존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남성과 여성 노인 사이에는 생활실태의 차이가 드러난다(윤경아 외, 2007).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통해 노인세대가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해온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이를 반영하여 대상에 알맞은 정책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의존·고립·고독과 같은 이미지의 반복과 사회서비스 중심의 제한적 지원정책, 그리고 노인여성에 대한 정책고려는 부족한 상황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존적 여성 노인 상이라는 사회통념의 한계와 중증질환·빈곤계층 대상 돌봄 서비스 위주인 기존 노인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어서, 다수 고령여성들이 사회적 부담 내지 시혜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 사회참여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김영정, 2016).

실제로 고령여성들은 활동적인 노후를 희망하고 있다. 서울시 60~80대 여성 1인 가구 설문조사 결과, 희망하는 노후의 모습(1순위) 응답으로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하면서 보내고 싶다’ 25.8% >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 20.7% >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여행을 하고 싶다’ 15.7%의 순으로 취미활동, 경제활동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노후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응답자와 여행, 자기계발, 지역사회에 봉사 등을 바란다는 응답자가 ‘편안히 쉬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응답자의 수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정, 2016).

이는 여성노인의 기대수명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노인의 기대수명은 2015년을 기준으로 남녀평균 82.1세인데, 남성은 79.0세, 여성은 85.2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6.2년 더 오래 산다.

■ 그림 I-1 ■ 고령여성(60~80대) 1인가구가 희망하는 노후의 모습



출처: 김영정, 2016: 91

이렇듯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고령여성들의 의지는 액티브 에이징의 개념과 연결된다. 고령자의 수동적 생활과 참여제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에 문제 제기 하며 등장한 액티브 에이징은 WHO에 의해 “삶의 질(QOL)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health}, 사회참여^{participation}, 안전^{security}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 (Jan Tymowski 2015, 김영정 2016 재인용)으로 정의된다. 액티브 에이징의 목표는 고령자의 자율성과 자립성 유지이며, 여기서 ‘액티브’의 의미는 신체적 활동능력이나 노동시장 참여 여부가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정신·시민적 일상에 대한 지속적 참여²⁾를 의미한다(선우덕 외, 2012).

2) 활기찬 노후의 실천 공간으로서 ‘마을’

고령여성들은 마을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왔고 가장 많은 시간을 마을에서 보내

2) 사회 참여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협의의 개념으로서 사회 참여는 개인의 유급 노동활동과 지역사회조직 및 단체 활동을 의미하지만 광의의 개념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참여욕구를 가진 어떤 사회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김학만, 2011).

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현 거주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의 비율이 64.3%로 한 마을에서 지내온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2010 인구주택총조사), ‘노후를 보낼 장소로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대한 질문에 70.6%의 노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이라고 답한 바 있다(황금희, 2016). 또한 고령여성 대상 설문조사에서 모임·단체 활동의 지역 범위가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에 ‘거주하는 동’ (28.2%) > ‘거주하는 구’ (26.2%) > ‘집 근처’ (18.8%) 순으로 응답하여 대체로 근거리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고령여성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원하는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들이 적극적 지역 구성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김영정, 2016).

Ⅰ 그림 I-2 Ⅰ 고령여성(60~80대) 모임·단체 활동의 지역 범위



출처: 김영정, 2016: 110

이에 따라 고령친화 커뮤니티(Age-Friendly Community Initiatives(AFCIs))의 정책 적용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친화 커뮤니티는 건강한 노인의 안전성 보장과 건강관리, 나아가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활동 장려까지 그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고령친화 커뮤니티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고령친화성에 대한 논의와 계획, 실천의 단계에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그동안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고령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윤현숙 외, 2016). 실제로 노년층이 지역의 개발, 관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는 매우 높은 반면,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의 지역사회 참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박성정 외, 2015).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활기찬 노후

2015년 시작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는 주민센터로 내방하는 민원 처리 중심에서 각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공공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정책이다. 찾동은 공공복지의 대상을 빈곤가구(선별적 복지)에서 차상위 계층과 일반대상(보편적 복지)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행되었다. 찾동은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목표로 복지, 건강, 여성, 마을, 행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³⁾

노년층은 찾동과 특별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찾동 사업의 복지·건강분야에서 노인들이 주요한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되어, 빈곤가구 또는 65세, 70세 도래 어르신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마을분야에서는 마을기금, 마을계획단, 마을활력소, 주민참여지원사업의 4개 사업 모두에서 노년층에 특화된 지점을 찾기 힘들다. 개별 공동체 사업에서도 노인이 주체가 되거나 노년층을 주제영

3) 찾동의 취지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건강이라는 목표아래 복지사각지대 발굴, 빈곤위기가정 방문, 돌봄위기 가정 방문, 65세·70세 어르신 보편방문, 임산부·영유아 보편지속 방문을 추진하였다. 둘째, 주민을 위한 통합서비스로 동 단위 사례관리 강화, 원스톱(One-stop) 복지상담, 복지생태계 조성, 민관 협치 실현,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등을 실행하였다. 셋째, 주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위하여 민관 협치 등 행정 구현을 위한 동장 역할 강화, 주민들의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우리동네 주무관 실행, 동주민센터 공간혁신을 위한 주민공유·자치 공간 확대, 직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중점으로 추진하였다. 넷째, 주민에 의한 마을의제 해결을 위하여 주민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주민 회의체계를 활성화하였으며, 공동 의제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마을기금, 마을계획을 운영, 공유 공간 운영을 위한 마을 활력소 마련 등 주민자치력을 강화하였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분야별 추진 사업 내용

분야	주요 사업 내용
복지	복지수퍼바이저, 출산가정 방문, 빈곤위기 가정 방문 복지공동체 조성(나눔이웃, 나눔가게, 지역사회 주민관계망 활성화)
여성	양육가정 방문, 돌봄위기가정 방문
건강	65세·70세 도래 어르신 가정방문
마을	주민참여지원사업, 마을기금, 마을계획, 마을활력소
행정	우리동네 주무관

자료: 서울시, 2016

역으로 특화된 사업은 드문 것으로 보인다. 복지·건강분야와 달리 마을분야는 주민의 주체적 참여가 기본 성격이므로, 사업 주제보다는 노년층의 참여수준과 역할이 어떠한 지가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도 조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찾동의 마을분야 사업 체계 안에서 특히 고령여성의 참여 증진과 고령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체계로 기능할 수 있는 사업은 마을계획이다. 마을계획이 마을의 생활의제를 주민 스스로의 의사결정과 실천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활동과정이므로, 고령여성이 주체가 되고 역량을 발휘하며 마을 전체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찾동이 처음 시행된 2015년도 마을계획단 참여자 현황을 보면, 여성의 참여율(71%)이 높고, 50대 이상 참여율이 50%에 달하여, 마을계획단 참여자 중 고령여성의 비율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노년층의 사회활동 참여 형태에서 나타나는 성별 특징, 즉 여성이 종교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제외한 활동영역에서 남성보다 참여율이 낮고, 여성의 단체 활동 경험율이 높기는 하나 리더·간부 역할 경험 비율은 남성보다 17.5% 더 낮다는 점(박성정 외, 2015)에서, 고령여성의 마을계획단에서의 위치와 활동 적극성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들의 참여 실태를 정밀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을은 고령여성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과 행복을 늘릴 수 있는 사회참여의 공간으로 가장 적당하다. 서울시 차원에서 근래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마을공동체 사업과 찾동 마을분야사업에서 이들 고령여성의 참여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마을이 고령여성의 활기찬 노후를 실현할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계획단을 비롯한 마을활동에서 고령여성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비율이 높다면 의사결정구조에서도 평등한 위치에 있는지, 이들의 역할과 기여가 인정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유희인력으로 간주되어 사업에 동원되거나 대상화되

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여성들이 주변적 위치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주체로 마을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와 조건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활기찬 노후를 위한 마을의 고령친화성 향상 방안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갖는다.

첫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 분석을 통하여 마을의 고령여성 참여 의미와 위상을 제고한다.

둘째,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경험 및 욕구를 분석하여 마을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및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실제 고령여성 모임을 운영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모형 및 정책방안을 제시한다.⁴⁾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찾동 마을분야 사업과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여성 여성으로 한다. 노인의 연령기준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65세 이상이 일반적이거나 연구자 기관 또는 목적과 배경에 따라 60세, 65세, 70세 등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예비노인까지 범위를 넓혀 베이비부머세대까지 노인 논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30세 청년층, 40~50세 중장년층과의 구분을 고려하여

4) 본 연구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와 동 재단에서의 실천(사업집행) 사이 연계를 도모한다. 2015년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역할 분석 및 여성참여의 지역거점 활용 방안”, 2016년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608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결과 도출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고령여성의 현장 마을활동을 직접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일반적 인식에 크게 반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60세 이상 연령의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마을계획단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주로 60대의 여성들의 경험과 요구를 탐구하였다. 단, 마을활동 참여자로서의 고령여성을 60세 이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거나 연구결과의 반영을 이들 여성들에게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크게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 사업 현황 분석, 2)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경험 및 욕구 분석, 3) 고령여성의 참여 확대를 통한 마을의 고령친화성 향상 활동 모델 및 정책방안 제시의 내용을 다룬다. 첫째, 찾동 마을분야 사업 현황 분석에서는 마을사업 참여자의 성별·연령별 비중 및 역할을 검토하고 마을계획의 제 및 세부사업의 현황을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살펴본다. 둘째,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경험 및 욕구 분석에서는 고령여성의 마을계획단 참여 동기 및 경로, 주요 활동 내용, 마을활동 참여 애로사항 등을 살펴본 뒤 고령여성의 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을활동 참여자·관계자들의 관점에서 고민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경험 및 욕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여성 모임을 실제로 운영해보고 이를 관찰하여 고령여성 마을계획 활동 모델 및 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액션리서치^{action research} 방법을 적용한 시범운영 및 참여관찰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각각의 방법은 독립적으로 연구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체계로서 1) 문헌조사를 통한 일반현황과 문제 파악, 2) 여기서 드러난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FGI, 그리고 3) FGI 결과에 기반하여 기획

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이로부터 개선점과 확대방안을 도출하는 액션리서치까지 순차적·연속적으로 사용되었다.

문헌조사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보고서 및 통계 자료를 통하여 찾동 마을분야 사업 및 마을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령자 사회참여와 관련한 정책을 살펴보고, 여성과 나이듦, 여성과 지역사회 등 고령여성과 관련한 주제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마을계획단 고령여성 참여자 그룹, 마을계획단 리더 그룹, 마을사업담당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자치구 중 2015년부터 마을계획을 시작한 14개동에서 마을계획 참여경험이 있는 60세 이상 여성 14명, 마을계획단장 또는 마을계획단의 리더 4명, 마을계획단 실무자인 마을사업담당자 5명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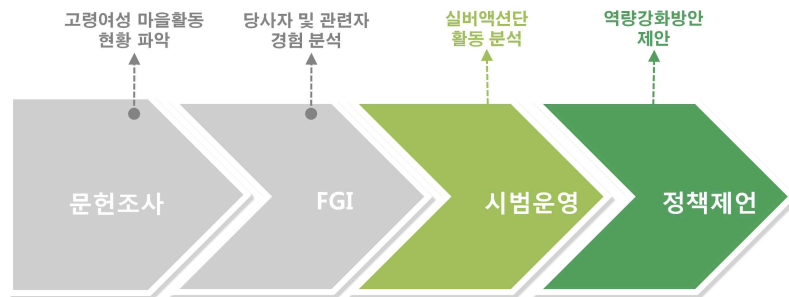
조사내용은, 먼저 고령여성 당사자 그룹에서는 마을계획단의 참여 배경, 주요활동 내용, 애로사항과 개선점, 마을계획 활동이 주는 개인적 의미, 지역사회의 성과, 6080여성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다루었고, 마을계획단의 리더와 실무자(마을사업담당자) 그룹에서는 마을계획단 운영배경 및 과정, 고령여성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FGI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액션 리서치 Action Research

이상과 같은 문헌조사와 FGI 결과에 기반하여 고령여성의 마을계획단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버액션단’을 운영하였다. 실버액션단 운영은 일종의 액션 리서치 Action Research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했다. ‘실행연구’ 등으로 번역되어 쓰이기도 하는 액션 리서치는 실천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과정에서

반성과 개선점을 찾아 결국 현장에 의미 있는 공감을 주는 연구방식이다(김미옥, 2009).⁵⁾ 실버액션단에 참여하는 고령여성, 진행자, 기타 참여자가 함께 직접 실천을 행하고 개선지점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이다.

시범운영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실행 자치구(14개) 중 마을계획을 운영하는 동으로 6080 여성의 참여자 수가 많고 실버액션단 구성을 희망하는 동을 대상으로 섭외를 시도하여, 공릉2동과 여의동이 선정되었다. 공릉2동 10명의 여성, 여의동 6명의 여성이 참여하여 8회차까지의 모임을 진행하였다. 실버액션단 활동의 전 과정은 참여관찰기록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다.



4)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추진되었다.

5) 액션 리서치가 여타의 전통적 연구방법과 구별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행연구는 사람들의 매일 매일의 일상사에 유용한 실천적 지식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둘째, 실행연구는 실천적 결과 달성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이해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행위 없는 이론이 의미 없는 것처럼 성찰과 이해 없는 행위는 맹목적이라고 본다. 셋째, 사람들의 일상사, 해방적 방식의 앎과 실천적 지식을 추구한다. 따라서 실행연구는 참여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즉 실행연구는 전문 연구자뿐 아니라 연구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들을 위해, 그들에 의해서 수행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연구가 된다. 넷째, 실행연구는 매일의 경험에서 출발하고, 체험적 지식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므로, 탐구의 결과 뿐 아니라 탐구의 과정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김미옥, 2009: 182)”

표 I-1 연구추진 체계

단 계		주요 내용		
1 단계	기획 및 착수	▶시행계획서 작성	- 과제목적, 내용, 방법, 일정 등 계획수립	과제운영방향 설정 및 주요 연구내용 도출
		▶착수자문회의 실시 및 착수보고서 제출	- 학계 전문가, 현장 활동가, 서울시 담당자, 재단 내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과제방향 및 설계 적절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검토	
2 단계	찾아다니기 조사	▶관련 정책 및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고령친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이론 및 연구동향 파악	찾아다니기 마을분야 현황 및 마을계획 참여 실태 분석
		▶찾아다니기 마을분야 현황 검토	- 마을분야 사업의 현황 분석	
		▶FGI 실시 및 분석	- 마을계획단 참여 고령여성 FGI - 마을계획 단장 FGI - 마을사업 전문가 FGI - 참여 실태 및 요구 분석	
3 단계	실버액션단 운영	▶시범운영 그룹구성 및 활동 진행	- 문헌 조사 및 FGI 결과 반영 실버액션단 운영 기획 -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실버액션단 운영 및 자체 평가	실버액션단 시범운영 결과분석
		▶활동 내용 분석	- 조직운영 및 활동내용 분석 - 향후 고령여성 마을활동 참여에 대한 시사점 도출	
4 단계	정책방안 도출	▶포럼	- 정책 방향성 도출을 위한 현장전문가, 학계전문가, 시민 의견 수렴	정책 제안
		▶정책방안 정리	-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발굴	
5 단계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작성 및 최종심의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심의의견 반영	최종 보고서 발간
		▶최종보고 및 보고서 발간	- 보고서 발간	



II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이론과 현황

1. 여성과 나이듦, 활기찬 노후, 정든 마을에서의 노후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의 젠더와 연령 이슈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이론과 현황

1. 여성과 나이듦, 활기찬 노후, 정든 마을에서의 노후⁶⁾

1) 여성과 나이듦

여성과 나이에 관한 규범과 관련하여, 최근 십여년 사이에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양상은 전희경(201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전통적 규범과 반규범의 성격을 띤 현상의 혼재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여성의 나이 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쇠락하는 ‘늙음’이자 생식력을 잃어버리는 ‘여성성의 쇠퇴’로,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배울 수 있는 학습능력의 쇠퇴로 이해된다. 그래서 여성을 주요 소비자로 하는 다양한 ‘뷰티 산업’과 ‘안티 에이징’ 담론이 시장의 마케팅 전략이 되고, 35세 이상 기혼여성은 ‘고령 산모’로 분류되어 촘촘한 의료적 개입 아래 놓이며, 60세 이상 여성들은 ‘할머니’라는 ‘의존적’ 범주로 분류되어 자식과 사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일자리를 갖고자 분투하고 있다. 이들에게 나이는 그 자치로 삶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동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나이가 더 이상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문제가 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30대 비혼 여성들의 집단적 증가는 ‘노처녀’라는 말을 시대착오로 만들어가고 있고, 황혼의 나이에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는 여성들, 남편 없이 아이를 낳는 ‘미스 맘’, 경제 불황과 취업난 속에서 20대 초에 결혼을 선택하

6) 본 절의 내용은 김영정, 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608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제2장 제1절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신(新) 조혼' 경향 등은 여성의 삶을 결혼을 중심으로 조직했던 나이 규범이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전희경, 2012: 1).

다시 말해, 현재와 같은 현상들은 “여성을 평생에 걸쳐 ‘여성’ (딸->아내/어머니->할머니)으로서 살도록 삶의 맥락을 제한해 왔던 젠더체계가 충분히 해체되었음을 뜻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몸을 유지하도록, 혹은 건강하게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젊게’ 살도록 요구하는 성별 체제의 새로운 강화를 뜻하는가?(전희경, 2012: 5)”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게 만든다. 두 가지 현상의 혼재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 경험을 통한 성별체제의 지속 또는 유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를 해체하려는 움직임은 어떤 것인지를 포착하는 것이다.

이렇듯 나이와 성별의 관계 속에 형성된 규범들이 공고화와 해체의 징후를 동시에 드러내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성성과 노화에 대한 관념은 지속되고 있다. 흔히 “꽃다운 나이” 로 일컬어지는 여성성과 나이의 관계는 젊음과 아름다움과 여성성을 동일시함으로써 노화를 여성성의 쇠퇴와 상실로 간주하게 한다. 노년의 여성은 생산성의 쇠퇴뿐만 아니라 여성미를 상실한 존재로 보여 지는 것이다. 노화방지를 위한 기술이 이러한 통념과 함께 강조되고, 나이 늙을 젊음보다 열등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생산과 성장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노인은 젊은 세대의 짐으로 여겨지곤 한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의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강조하는 데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인구 고령화 현상은 ‘사회적 부담 증가’ 와 쌍을 이루어 설명되는 식이다. 일례로, 서울의 고령자 주요통계(e-서울통계 74호: 4)의 고령화 추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가. 사회적 부담 증가할 전망

■ 65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 56만명(00) -> 111만1천명(12년), 229만4천명(40년e) -> 15~64세 인구 2010년 800만명대에서 2040년e(592만2천명) 600만명 아래로 감소 전망

■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 급격히 증가할 전망 -> 노인1명을 부양할 생산인구 감소 : 14.1명(00년) -> 7.2명(12년) -> 2.0명(40년e)

노인여성을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로 규정하고 노인 보살핌을 젊은이의 희생과 부담으로 인식하는 담론 역시 이어져왔다(이동욱, 2012). 특히 임금노동 경험이 거의 없이 전업주부로 살아온 고령여성들이 남편이나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으며 평생 행해온 보살핌 노동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절하의 다른 한편에는 모성의 원형으로서 고령여성 이미지화가 자리한다. 즉 자기 욕망과 필요를 가진 인간으로 보다는 한없이 사랑과 보살핌을 베푸는 어머니/할머니로서만 인식하고, 이는 고령여성이 보살핌을 받을 수도 있는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이동욱, 2012).

한편, 노인인구의 증가를 세금으로 부양해야 할 “부담”의 증가로 여기는 경향은 더 나아가 노인혐오 현상을 낳기도 한다. 현재 사회에 만연 중인 혐오의 문화가 노인에게도 향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노인 비하와 혐오 정서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은 이 혐오의 대상이 주로 남성 노인이지만, 김영옥(2017)에 따르면 노년기라는 생애 단계 자체가 혐오와 회피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성 노인 역시 이러한 혐오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노년에 대한 시간이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다.

유교적 문화 전통에 따르면 나이 든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 도리에 속한다. 그러나 후기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와 테크놀로지 우선주의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거나 소비 능력이 떨어지는 노년을 잉여 취급하고 신기술과 아무런 접점이 없는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저평가한다.(김영옥, 2017: 20)

이렇듯 집단화된 노년의 이미지 고착과 노인 혐오문화의 확산에 대한 문제제기와 극복이 필요하다.

2) 액티브 에이징과 고령친화 커뮤니티 Age-Friendly Community Initiatives

액티브 에이징

해외에서도 1990년대까지는 지배적인 퇴직모형에 따라 고령자의 수동적 생활과 참여제한이 당연시되었다. 액티브 에이징 정책의 수립의 배경은 이러한 분위기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WHO가 노년기의 비활동적, 비참여적 생활에 대한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서 찾을 수 있다(선우덕 외, 2012).

아시아태평양 액티브 에이징 컨소시엄(Active Aging Consortium in Asia Pacific)은 액티브 에이징을 “노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하고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는 노인 개인의 노력과 사회정책을 만들어 안전한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최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의한다(한동희, 2014: 35). 한국에서는 노년사회학에서 ‘활기찬 노후’, ‘활동적 노년’ 등으로, 노년의학에서는 ‘활동적 노화’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한동희, 2014).

I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액티브’의 의미는 사회·경제·문화·정신·시민적 일상사에 대한 지속적 참여에 있다. 즉 은퇴한 사람이든 질병을 지닌 사람이든 모두가 가족, 동료, 지역사회나 국가에 능동적인 기여자로 남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액티브 에이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수동적 필요에 기반한 것^{need-based}이 아니라 권리에 기반한^{rights-based} 접근방식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결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건강을 유도하고 사회 참여적 활동이 늘어나 이것이 다시 건강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결국 의료적·사회적 비용의 감소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선우덕 외, 2012).

■ 표 II-1 ■ 액티브 에이징 정책의 기본틀

결정요소	내용
건강과 사회적 서비스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행위적 결정요소	흡연, 신체 활동, 건강한 식사, 구강건강, 음주, 약물복용, 의학적 부작용 및 집착
개인적 결정요소	생물학적·유전적 요소, 심리적 요소
물리적 결정요소	환경, 주거안전, 물·공기·식품 안전

사회적 결정요소	사회적지지, 교육 및 문해력, 폭력·학대로부터 보호
경제적 결정요소	소득, 사회적 보호, 노동

자료: 선우덕 외, 2012; 한동희, 2014

■ 그림 II-1 ■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결정요인



출처: WHO GNAFCC,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www.who.int/en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와 고령친화 커뮤니티^{Age-Friendly Community Initiatives}

에이징 인 플레이스(AIP)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노인이 살아온 곳에서 일정 정도 자립성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 (Davey et al., 2004, 송인주·정은하, 2015 재인용)을 의미한다. 이는 원래 요양시설에서 인생의 최후를 맞는 노인들의 수가 많아진 복지선진국들에서 국가의 재정 부담과 시설이용자들의 삶의 질 문제가 대두되고, 그 결과 자신이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노후생활의 모형으로 인정받게 된 데에서 비롯된 개념이다(윤현숙 외, 2016). 한국에서는 ‘정든 곳에서의 노화’ 등으로 번역되어 쓰이는데, 여기서 장소^{place}는 주택이나 지역이라는 물리적 차원, 가족과 이웃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 연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차원, 귀속감이나 소속감을 뜻하는 심리적 차원 모두를 포함한다(송인주·정은하,



2015).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협소한 의미에서 노인 개인들이 집과 동네에 계속 거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community}의 여건을 갖추는 것까지도 의미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 인근에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의료·간병 서비스, 생활 용품과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는 것이다(윤현숙 외, 2016). 즉, 플레이스^{Place}를 거주지^{home}로 해석했을 때는 지역사회^{community}로 의미를 확대하여 에이징 인 커뮤니티를 강조하며, 이에 따라 최근의 국내외 고령화 대응 정책 또한 고령친화형 지역사회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민현석, 2012).

에이징 인 플레이스 개념의 확산과 함께 고령친화 커뮤니티의 개념도 사용되기 시작했다. 고령친화 커뮤니티 계획(AFCIs)^{Age-Friendly Community Initiatives}는 “특정 지역에서 노인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노인이 자신의 집과 커뮤니티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의 사려 깊고 분명한 노력(2015 미국 백악관 고령화 포럼, 윤현숙 외, 2016: 40 재인용)”으로 정의된다.⁷⁾

고령친화 커뮤니티 개념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community}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노인관련 정책들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우선 기존 노인관련 정책들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중심이었다면 고령친화 커뮤니티는 이에 더해 건강한 노인의 안전성 보장과 건강관리, 나아가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 활동 장려까지 그 영역을 넓힌다. 또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령친화 커뮤니티의 결과는 노인에게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청장년층이 미래의 노인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지만, 노인에게 제공되는 쾌적한 주거환경, 이동성 보장 등은 사실상 전 연령층에게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령친화 커뮤니티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고령친화성에 대한 논의와 계

7) 여기서 ‘고령친화’ ^{age-friendly}라는 개념은 과거 연구자들이 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사용하여, 노인만을 대상으로 보는 고령자 친화^{elder-friendly}의 의미(연령분절적 관점)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 고려^{age-friendly}의 의미 두 가지가 쓰였다. 그러나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연령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령 통합적 관점의 개념 정의가 적절하다(이상철·박영란·정은화, 2016).

획, 실천의 단계에 함께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그동안 의사결정과정
에 참여하기 힘들었던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윤현숙 외, 2016). 서론에서 언급했듯, 고령자들에게는 일상을 주로 보내는 주거와
근린지역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의 관계망이 중요하므로 한국에서는 마을과 동,
자치구에서의 커뮤니티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분야의 젠더와 연령 이슈

1) 찾동 마을분야 사업 현황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찾동 마을분야 사업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
례’ (2012. 3.15. 제정)에 따라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 간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회복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공동체 정책1
기’로 ‘주민의 등장’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당 부처에서는 자평한다. 정
책 1기의 핵심 목표는 지역 활동을 하지 않던 주민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
이었다. 주민 발굴을 위한 주요 전략은 주민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이었고, 이는 주
민 3명이 모이면 누구나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통해 실현되었다. 공
모사업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주민을 등장시키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더
많은 변화를 위한 새로운 마을공동체 정책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
다.

마을공동체 정책1기 사업에서 핵심 목표였던 마을공동체 활동 주체의 양적 확대
는 충분히 달성되었으며, 사업 참여자 수 5만명 이상이 증가했고, 최소 128,743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집단은 여성이 73%로 남성

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참여자들의 연령분포는 서울시사업에서는 30~40대가 많고, 자치구 사업에서는 50~6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수준은 중산층 이상에서 참여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b).

이어 2기는 1기의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을의 등장’을 중점으로 시행되었다. 1기에서 주민 3인이 자신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참여하였다면, 2기에는 다수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마을공동체 형성이 강조되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개인의 성장에 대한 주민 자가 진단 결과, 공동체성 변화가 85.9%로 가장 높고, 행복감 경험 83.6%, 사회적 인식 변화 75.9%, 주민주도성 변화 6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성장에 이어 주민모임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망을 측정하는 결과 관계망의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b).

마을공동체 사업 2기가 시작된 2015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성과평가 결과에 의하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참여자 중 대표제안자⁸⁾의 성별과 연령을 보았을 때 여성이 79.6%로 많았고, 40대의 참여자가 전체의 44.6%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마을공동체 사업 1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60대 이상의 연령의 참여자가 가장 많았던 사업은 ‘에너지 자립마을’로 고령자 참여가 35.2%였으며, 다음으로 ‘우리마을 공간지원사업’ (10.3%)이 뒤를 이었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b).

마을공동체 사업이 특정 성별 또는 연령과 관련한 주제로 국한된 것은 아니나, 앞에서 살펴본 참여자 현황을 보아 대체로 중년, 자녀를 둔 다인가구의 관심사를 반영한 주제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는 현재 공동육아, 아파트 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 마을기업, 마을예술창작소, 부모 커뮤니티, 에너지 자립 마을, 다문화 마을공동체,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우리마을 지

8) 마을공동체 사업의 특성상, 공동체 구성원이나 사업 참여자의 범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제안자’의 자료로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원사업이 있어, 고령자를 명확하게 주제영역으로 다룬 사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사업 중 다양한 주제의 마을 모임 공모사업인 우리마을 지원사업에 선정된 44개의 마을공동체 중 3개 정도만 적극적으로 고령자를 교육대상(어르신 재활용강사 양성사업)으로 하거나 참여자로 포함(느릿느릿육아사랑방) 또는 문화봉사수혜대상(뽕짝뽕짝중창단)으로 삼고 있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a).

찾동 마을분야 사업

찾동은 동주민센터의 주요 기능을 기존의 민원·행정에서 주민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마을공동체 조성으로 전환함으로써 서울형 복지전달체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2015년 1단계 13개 자치구 80개동을 시작으로 2단계 18개 자치구 283개동, 3단계 24개 자치구 342개동으로 확산되었다. 찾동은 마을·복지·건강·여성·행정의 5개 분야가 협치를 이루는 형태로 구성된다. 복지·행정·건강 분야는 기존의 민원해결 중심의 복지행정서비스에서 주민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서비스와 보편복지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였다.

찾동의 마을분야는 그림 II-2와 같이 분류된다. 주민 모임 지원을 통해 마을에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주민참여지원사업, 동단위 보편적 생활의제를 민관협력 네트워크 해결을 하도록 하는 마을기금,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요구와 문제를 다른 주민들과 공유하고 논의하여 해결하는 마을계획, 주민자치실현을 위하여 동주민센터의 공간에 대한 변화를 주어 주민들이 친근감 있게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마을활력소이다. 이에 대한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주민 누구나 내 이웃을 위해 직접 마을활동에 참여하여 주민 자치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Ⅱ 그림 II-2 Ⅱ 찾동 마을분야 사업



출처: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c: 12

2) 찾동 마을계획의 젠더와 연령 이슈

마을계획 취지 및 현황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정책의 변화 속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이하, 찾동 마을계획)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찾동 마을계획은 기존 마을공동체정책과 달리 ‘행정동’을 마을 활동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마을공동체정책 1기 동안 주민의 활동과 마을공동체의 형성이 행정의 지리적 범위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활동의 범위를 ‘행정동’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찾동 마을계획에서 행정동을 사업 범위로 설정한 이유는 첫째,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의 최소 범위가 행정동이라는 점, 두 번째는 주민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보다 밀착된 행정지원이 필요한데, 주민의 생활공간과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동 주민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찾동 마을계획은 동별 100여명의 주민이 마을계획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최소 참여 단위가 주민3인인데 비해 찾동 마을계획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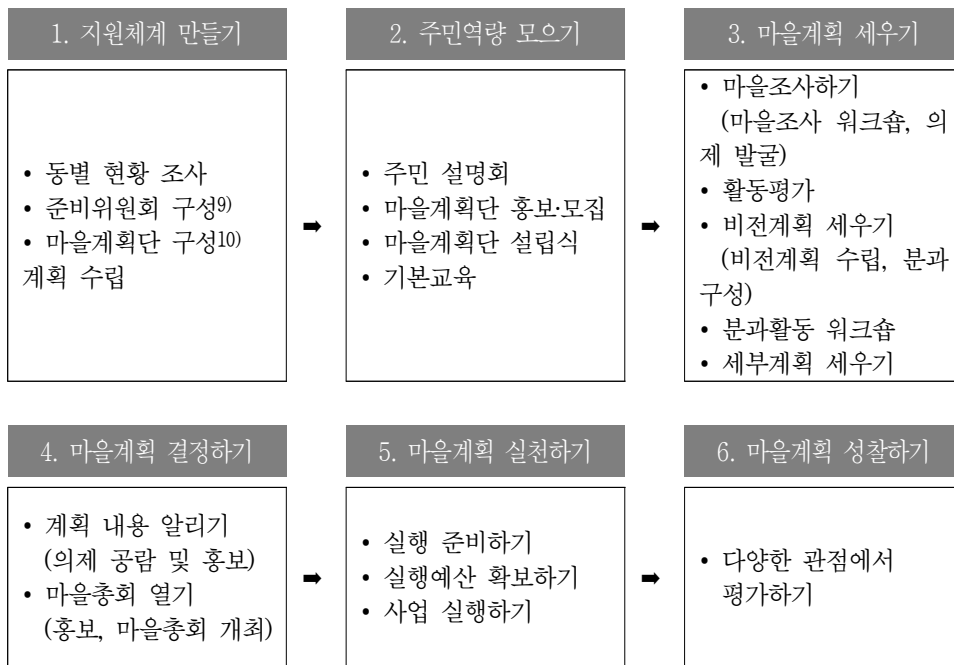
참여 단위는 주민 100여명으로 규모면에서 매우 큰 변화를 보인다. 이는 1기 마을공동체 정책의 한계로 지적된 보다 많은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주민의 마을활동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공모사업이 개인 혹은 주민 3인 이상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이었다면, 찾동 마을계획은 행정동 내 다양한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다수 주민이 공유하고, 공론화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

마을계획은 주민들이 직접 자신의 동의 의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전반을 의미한다. 마을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마을을 직접 살피며 조사하고, 마을총회를 통해 대표의제를 결정한다. 이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공서에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하기도 하고,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마을기금이나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직접 해결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마을사업담당자와 마을축진자가 함께 도움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의미가 있다. 마을계획의 목적과 주요과제는 아래와 같다.

- 마을계획의 목적 및 목표
 - 주민이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 공론의 장을 형성하고 주민 자치력 강화
 - 동 단위 공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와 문화 형성
 - 지역자원 조사, 주민관계망 확장, 다양한 공동체 지원 형성 등 건강한 마을공동체 구축을 통해 동 단위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
 - 주요과제
 - 자치구/동 차원의 마을계획 지원체계 마련
 - 주민역량 형성을 통한 마을계획단 구성
 - 지역자원조사 수행
 - 마을계획수립(비전-부문-실행계획)
 - 주민역량강화 교육(마을계획단, 마을기금, 마을미디어)
 - 주민공람과 마을총회를 통한 계획 결정
 - 민간주도/ 민관협력/ 관주도형 실행사업별 예산 확보 및 실행
 - 마을계획 수립 과정 및 실행 평가
- (김귀영 외, 2016b: 25)

마을계획 진행과정은 서울시가 제시하고, 자치구 및 동의 특성에 따라 진행 하게 된다. 즉 마을계획을 추진하는 동에서는 필요에 따라 진행과정 순서와 내용을 변경 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기조는 동일하다.

【그림 II-3】 마을계획 진행 과정



출처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b: 25

찾동 마을계획은 2015년 7월(찾동1단계)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2015년 7월에 찾동1단계 4개 자치구 14개동을 시작으로, 2016년 7월에는 13개 자치구 35개동이 마을계획을 추가 시행하였다.¹¹⁾

찾동 마을계획의 사업기간은 18개월로, 2015년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4개 자치

9) 동 주민센터(행정) 중심의 마을계획단 구성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리더 중심의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10) 마을계획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단장, 운영위원회, 간사(1명)를 둘 수 있다.

11) 찾동의 마을계획 동 현황



구 14개동은 2016년 12월을 기점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자치구에 따라 찾동 마을계획 2기가 실행중이기도 하다. 18개월의 사업 기간에는 주민역량 모으기, 마을계획 세우기, 마을계획 정하기, 마을계획 실천하기 등의 과정이 포함되며, 동 주민센터와 주민이 마을계획 수행에 대한 자기 동기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상호협력의 과정을 거쳐 마을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찾동 마을계획은 주민주도 마을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내 인력을 배치하고 자치구 단위로 민간 활동가를 지원 주체로 구성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역할을 구체화하였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b).

한시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마을계획은 서울형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흡수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즉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 주민참여 예산 동지역회의, 그 외 다양한 주민단체와 융합하여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동

구분	내용	
찾동 1단계 (2015. 7. 시작)	금천구	독산1동, 독산4동, 시흥5동
	도봉구	방학1동, 방학3동, 창2동
	성동구	금호1가2동, 마장동, 성수1가2동, 행당1동
	성북구	길음1동, 동선동, 월곡2동, 종암동
찾동 2단계 (2016. 7. 시작)	종로구	청운효자동
	동대문구	제기동, 전농2동
	노원구	공릉2동, 중계4동, 상계1동
	은평구	갈현1동, 응암2동, 역촌동
	서대문구	남가좌1동, 북가좌1동, 연희동
	마포구	공덕동, 성산2동
	양천구	목2동, 신정3동, 신월5동
	강서구	화곡3동, 방화3동, 화곡6동
	구로구	오류1동, 개봉1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문래동, 양평2동
	동작구	사당2동, 대방동, 노량진1동
	관악구	서림동, 성현동
	강동구	길동, 명일2동, 천호3동

출처: 서울시, 2017: 168

단위 주민자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마을계획단이 서울형주민자치회에 흡수되어 운영된다면 운영주체에 주민의 참여가 더 강화된다는 점 이외 기조와 형태는 유지될 것이며, 더욱 내실화 될 것이다.

마을계획단 구성 및 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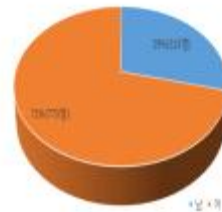
마을계획은 동 단위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공의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실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동단위의 공론장을 형성하며 자치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마을계획단은 성별, 연령, 직종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동 내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민들이 마을계획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과 운영을 진행한다.

찾동 1단계 마을계획단 4개 자치구 14개동의 성별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여성은 71%, 남성은 29%로 여성이 2배 이상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마을계획단 성별 참여 현황

(단위: 명,%)

자치구	동	남	여	계
4	14	313(29)	773(71)	1,086(100)



마을계획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연령대를 보면 50대가 전체의 30%, 40대 26%로 비율로 중장년층이 56%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292명으로 27%에 이른다.

표 II-3 마을계획단 구성 현황

(단위: 명,%)

자치구	동	'16 인원 수	남 (%)	여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금 천	독산1동	79	25 (32)	54 (68)	-	-	4 (5)	19 (24)	26 (33)	23 (29)	7 (9)

(단위: 명,%)

자치구	동	'16 인원 수	남 (%)	여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구	독산4동	93	14 (15)	79 (85)	- -	2 (2)	2 (2)	23 (25)	25 (27)	40 (43)	1 (1)
	시흥5동	57	18 (32)	39 (68)	2 (4)	1 (2)	5 (9)	11 (19)	14 (25)	15 (26)	9 (16)
소계		229	57 (25)	172 (75)	2 (1)	3 (1)	11 (5)	53 (23)	65 (28)	78 (34)	17 (7)
도 봉 구	방학1동	87	23 (26)	64 (74)	- -	1 1	14 (16)	16 (18)	31 (36)	18 (21)	7 (8)
	방학3동	95	28 (30)	67 (70)	11 (12)	2 (2)	10 (11)	25 (26)	28 (30)	17 (18)	2 (2)
	창2동	53	18 (34)	35 (66)	- -	1 (2)	7 (13)	17 (32)	19 (36)	7 (13)	2 (4)
소계		235	69 (29)	166 (71)	11 (5)	4 (2)	31 (13)	58 (25)	78 (33)	42 (18)	11 (5)
성 동 구	금호1가동	121	42 (35)	79 (65)	- -	4 (3)	13 (11)	32 (26)	44 (36)	28 (23)	- -
	마장동	118	27 (23)	91 (77)	16 (14)	3 (3)	16 (14)	48 (41)	17 (14)	13 (11)	5 (4)
	성수1가2동	129	46 (36)	83 (64)	11 (9)	4 (3)	22 (17)	33 (26)	39 (30)	14 (11)	6 (5)
	행당1동	105	26 (25)	79 (75)	- -	1 (1)	13 (12)	14 (13)	38 (36)	31 (30)	8 (8)
소계		473	141 (118.3)	332 (70)	27 (6)	12 (3)	64 (14)	127 (27)	138 (29)	86 (18)	19 (4)
성 북 구	길음1동	40	9 (22.5)	31 (77.5)	1 (2.5)	- -	2 (5)	9 (22.5)	12 (30)	13 (32.5)	3 (7.5)
	동선동	35	8 (23)	27 (77)	- -	1 (3)	3 (9)	10 (29)	12 (34)	7 (20)	2 (6)
	월곡2동	23	14 (60)	9 (40)	- -	- -	1 (4)	7 (30)	6 (26)	8 (35)	1 (4)
	종암동	51	15 (30)	36 (70)	1 (2)	4 (8)	5 (10)	18 (35)	18 (35)	5 (10)	- -
소계		149	46 (31)	103 (69)	2 (1)	5 (3)	11 (7)	44 (30)	48 (32)	33 (22)	6 (4)
합계		1,086	313 (29)	773 (71)	42 (4)	24 (2)	117 (11)	282 (26)	329 (30)	239 (22)	53 (5)

출처: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b: 32

마을계획단에 참여한 직업군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직업군은 가사(35%), 자영업(18%), 전문직(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 내에서의 시간활용이 상

대적으로 용이한 편인 가사와 자영업 종사자(53%)가 많고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4 마을계획단 구성원 직종표

(단위: 명,%)

차역	동	'16 인원수	설문 응답수	자영업	전문직	회사원	민간 단체	가사	무직	기타	무응답
금천구	독산1동	79	66	11 (17)	9 (14)	7 (11)	2 (3)	26 (39)	8 (12)	3 (5)	- -
	독산4동	93	64	7 (11)	5 (8)	2 (3)	3 (5)	35 (55)	3 (5)	6 (9)	3 (5)
	시흥5동	57	35	8 (23)	4 (11)	1 (3)	6 (17)	11 (31)	- -	3 (9)	2 (6)
소계		229	165	26 (16)	18 (11)	10 (6)	11 (7)	72 (44)	11 (7)	12 (7)	5 (3)
도봉구	방학1동	87	75	4 (5)	6 (8)	9 (12)	1 (1)	35 (47)	4 (5)	7 (9)	9 (12)
	방학3동	95	71	6 (8)	11 (15)	3 (4)	5 (7)	24 (34)	8 (11)	13 (18)	1 (1)
	창2동	53	46	8 (17)	4 (9)	5 (11)	1 (2)	13 (28)	3 (7)	10 (22)	2 (4)
소계		235	192	18 (9)	21 (11)	17 (9)	7 (4)	72 (38)	15 (8)	30 (16)	12 (6)
성동구	금호가동	121	68	14 (21)	12 (18)	11 (16)	2 (3)	16 (24)	5 (7)	8 (12)	- -
	마장동	118	53	13 (25)	8 (15)	1 (2)	- -	21 (40)	3 (6)	5 (9)	2 (4)
	성수기2동	129	62	17 (27)	7 (11)	8 (13)	1 (2)	20 (32)	3 (5)	6 (10)	- (4)
	행당1동	105	33	7 (21)	9 (27)	2 (6)	2 (6)	11 (33)	1 (3)	1 (3)	- -
소계		473	216	51 (24)	36 (17)	22 (10)	5 (2)	68 (31)	12 (6)	20 (9)	2 (1)
성북구	길음1동	40	18	- -	3 (17)	3 (17)	1 (6)	4 (22)	2 (11)	4 (22)	1 (6)
	동선동	35	22 (63)	6 (27)	1 (5)	1 (5)	3 (14)	7 (32)	- -	3 (14)	1 (5)
	월곡2동	23	17 (74)	7 (41)	3 (18)	- -	- -	2 (12)	4 (24)	1 (6)	- -
	종암동	51	35	9	6	4	2	6	-	8	-



(단위: 명,%)

자료	동	'16 인원수	설문 응답수	자영업	전문직	회사원	민간 단체	가사	무직	기타	무응답
			(69)	(26)	(17)	(11)	(6)	(17)	-	(23)	-
소계		149	92 (62)	22 (24)	13 (14)	8 (9)	6 (7)	19 (21)	6 (7)	16 (17)	2 (2)
합계		1,086	665 (61)	117 (18)	88 (13)	57 (9)	29 (4)	231 (35)	44 (7)	78 (12)	21 (3)

출처: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b: 33

주) 구성원 직종은 마을계획단 전체 인원 1,086명이 아닌 설문응답자 665명에 대한 내용만 분석한 결과임.

마을계획단 내에서는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과 결정과정이 민주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별로 대표, 분과장, 간사를 선정하고 자체 운영규약을 수립하여 운영체계를 갖추었다. 대표와 간사는 주로 동장, 마을사업전문가, 준비위원회의 추대로 선정되었고, 분과장의 경우는 대부분 분과원들의 합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마을총회 전까지는 임시 대표를 정하여 운영하다가, 마을총회 시 마을계획단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추천과 동의, 승인 과정을 밟아 새로운 대표를 선정하여 운영한 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계획단의 임원들의 현황은 동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연령대별 참여자 분포는 파악되나, 연령대별 성별 분포는 지속적인 자료 협조요청을 통해서도 결국 수집할 수 없었다. 각 마을계획단의 연령대별 성별 분포가 찾동 내에서 파악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며, 이처럼 성별기초통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

【 표 II-5 】 마을계획단 대표 및 실무진 구성 현황

(단위: 명)

자치구	동	인원수	대표단			간사
			대 표 (단장)	부대표 (부단장)	분과장	마을간사 (분과간사)
금 천 구	독산1동	79	1	-	5	1(5)
	독산4동	93	1	-	7	-
	시흥5동	57	-	-	6	1(1)

(단위: 명)

자치구	동	인원수	대표단			간사
			대표 (단장)	부대표 (부단장)	분과장	마을간사 (분과간사)
도봉구	방학1동	87	-	-	10	1
	방학3동	95	1	-	7	2
	창2동	53	1	1	7	1
성동구	금호1가동	121	1	-	6	2
	마장동	118	1	-	5	1
	성수1가2동	129	1	-	5	1
	행당1동	105	1	-	4	1(4)
성북구	길음1동	40	1	1	3	1(3)
	동선동	35	1	2	2	1
	월곡2동	23	1	-	3	1
	중암동	51	1	1	2	1
합계		1,086	12	5	75	28

출처: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b: 43

위의 표처럼 14개 동 중에서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 1인의 단장을 두는 대신 집단 리더 체제로 운영 중인 동을 제외한 12개 동에 단장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FGI를 통해 파악한 바로, 단장은 대부분의 동에서 남성 중장년이 맡고 있으며, 여성이 단장인 동은 오직 1개에 불과하다.

마을계획단은 6개월 여 간의 계획수립 과정을 거쳐 생활, 안전, 건강, 복지, 문화(예술), 교육, 육아, 공유, 경제, 생태, 소통(공간), 마을미디어, 환경미화, 도시 인프라 등의 주제로 291개의 의제와 실행계획을 제안했다. 제안된 의제들은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추려지는데, 291개의 제안 중 동별 의제리스트에는 241개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동별 의제리스트는 부록 참조).

표 II-6 마을계획 의제 분류

대주제(8)	소주제(14)	해당내용 및 분과명
생활/안전	생활	주차, 쓰레기, 악취, 흡연
	안전	놀이터, 보행안전(통학로), 치안, 방재
건강/복지	건강	노인건강, 스포츠
	복지	복지, 자원봉사, 사각지대 발굴
문화/역사	문화(예술)	문화, 예술, 축제, 역사
교육/돌봄	교육	교육, 청소년
	육아	보육, 아동
공유/경제	공유	공유, 자원재활용, 베희시장
	경제	지역경제, 수익창출
자연/생태	생태	환경보호, 생태학습
소통/미디어	소통(공간)	세대/가족 통합, 갈등해소, 이웃교류, 다문화, 소통 공간
	마을미디어	마을신문, 라디오
인프라/미화	환경미화	벽화, 화단 조성 및 식재, 가로 및 천변 정비
	도시 인프라	대중교통 체계, 정류장 개선, 공공 및 편의시설 신축

출처: 김영 외, 2016: 163

주로 마을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주로 한 의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마을 주민들 간의 관계 향상(축제, 공간마련 포함), 마을에 대해 알기(마을 전통과 지리)와 같이 남녀노소 전체 주민들이 주체와 대상이 되는 의제들이 대부분이다.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교육과 돌봄(어린이, 청소년)에 관한 주제와 취약계층 배려에 관한 주제였다. 여기서 이른바 취약계층의 상당수를 이루고 있는 대상은 여성(안전취약집단으로 간주, 여성안심귀갓길 및 순찰강화), 다문화가정 이외에는 대부분 노년층이었다. 노년층 대상의 봉사 또는 교육을 의제로 설정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총 15개이다.

표 II-7 노년층 관련 마을의제

연번	의제	해당 등
1	마을봉사단-지역 내 경로당 주방 및 화장실 청소	독산1동

연번	의제	해당 동
2	모이재! 밥상 데이(전입자초대, 다문화이웃, 홀몸어르신 등)	독산4동
3	옐로우 카드(안전반사판)제작 후 아이들과 어르신에게 나눔	독산4동
4	어르신을 위한 골목 의자 설치	시흥5동
5	홀몸 어르신 또는 저소득 가정에 이미용 봉사	시흥5동
6	어르신 컴퓨터	방학1동
7	할머니 스타강사 만들기	금호1가동
8	찾아가는 어르신 SNS 교육	금호1가동
9	어르신 말벗 나눔	금호1가동
10	독거어르신 안전지도 만들기	금호1가동
11	남녀노소 학습단(어린이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동화 구연 등)	금호1가동
12	시니어 건강동아리 운영	마장동
13	시니어 해외여행을 위한 영어교실 ‘바디 랭귀지를 알려드려요’	성수1가2동
14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부르는 ‘마을합창단’	성수1가2동
15	노인대상 체조교실, 뜰뜨기, 웃음치료 운영	행당1동

마을계획단의 연령 및 젠더 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마을계획단 현황을 통해 고령 여성의 위치와 역할과 관련하여 해결이 필요한 몇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계획단 구성원의 배경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령대 성별에 대한 정보조차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마을계획단의 인원과 분과 구성이 한 회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바뀐다는 점,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 때문이기도 하지만, 활동 분석과 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통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중고령 여성참여자의 수는 많지만 구체적 역할은 파악하기 힘들고, 단장의 성별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남성이라는 점에서 리더 역할이 주어지고 있는지 우려된다. 여성의 참여가 많지만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마을공동

체 사업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여성(40대, 기혼 중심)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경제적 보상과 전문성 인정에 있어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에 적극 협조하면서도 무보수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여성들이 동원 내지 대상화된다는 비판이 있다. 실제로 여성 마을활동가들이 전문성을 갖춘 활동가로 인정받기보다 여전히 잉여시간을 내어 참가하는 이들 정도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김영정, 2016).

셋째, 고령자가 참여주체가기보다 사업의 대상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물론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한정되지 않고 마을분야 사업의 특성상 이들을 참여주체로 끌어들이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몇몇 의제들에서 나타난 세대통합 노력과 적극적 활동을 위한 소양 교육은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고령자를 일방적인 돌봄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III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참여 실태 : FGI 결과 분석

1. 조사개요
2. 참여의 조건과 동기
3. 참여의 내용과 성과
4. 참여의 걸림돌과 한계
5. 참여 애로사항과 극복지점
6. 요약 및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참여 실태 : FGI 결과 분석

1. 조사 개요

고령여성의 마을계획단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과 요구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2017년 5월에 다섯 차례에 걸쳐 1) 마을계획에 참여 중인 60대 여성 당사자 그룹 13명, 2) 마을계획단 리더 그룹 4명, 3) 마을사업담당자 그룹 5명, 총 22명에 대해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장소는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시간은 각 그룹 당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연구목적 및 연구자 소개, 녹음 양해, 익명 보장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연구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뒤 인터뷰를 시작했다. 녹음된 내용은 녹취록 작성 후 정리와 코딩을 거쳐 분석하였다. 녹음된 인터뷰 내용이 구어체이므로 발언자의 의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듬어 인용하기로 한다.

첫 번째 그룹인 고령여성 당사자 그룹은 마을계획단 1단계 14개 동 중 1개 동을 제외한 모든 동에서 각 1명씩이 모여 일정에 따라 3회에 나누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한 편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활동 배경 및 내용,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동 마을계획단의 운영과 활동내용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다. 각 동의 마을사업담당자 등에게 협조를 구하여 60세 이상의 여성을 모집대상으로 정했으나, 섭외 과정에서 제시한 ‘마을계획단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원’이라는 조건 때문에 50대의 2명이 섭외되는 예외적 사례가 발생했다. 최고령자는 68세였으며, 의도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지만 마을계획단 연령구성이나 참여도 때문에 결과적으로 70대는 섭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개는 풀타임으로 근무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절반의 전업주부였으며, 혼인상태는 이혼 2명, 기혼 11명이었다. 인터뷰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된다.

【 표 III-1 】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마을계획단 참여 여성 그룹

연번	이름	연령(만)	학력	직업	소속 구
1	A	63	대졸	사회복지사	성북구
2	B	60	고졸	주부	도봉구
3	C	64	중재학	상업	성동구
4	D	61	고졸	주부	성동구
5	E	65	초대졸	강사	금천구
6	F	61	대졸	프리랜서	도봉구
7	G	63	고졸	주부	성동구
8	H	51	고졸	도서관운영자	금천구
9	I	55	고졸	주부	성북구
10	J	61	대졸	주부	도봉구
11	K	63	고졸	주부	성북구
12	L	62	중졸	주부	금천구
13	M	68	고졸	파트타임근로	성동구

두 번째로 마을계획단장 그룹의 인터뷰에는 총 4명이 참여했다. 14개 마을계획단 중 유일하게 여성 단장인 1명, 단장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은 동의 분과장 여성 1명, 그리고 선출직 남성 단장 2명으로 구성되었다.

【 표 III-2 】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마을계획단장 그룹

연번	이름	연령(만)	성별	직업	소속 구
1	O	43	여	강사	도봉구
2	P	56	남	사회복지사	금천구
3	Q	62	남	공무원은퇴	도봉구
4	R	54	여	학원장	금천구

마지막으로 마을사업담당자 그룹은 총 5명으로 이루어졌다. 40~50대의 이들 마을

사업담당자들은 찾동 마을분야 사업의 시작과 함께 채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동의 마을사업담당자 경력은 2년 이내로 모두 비슷하나, 이미 최소 4년에서 최대 11년의 마을 관련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표 III-3】 FGI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마을사업담당자 그룹

연번	이름	연령(만)	성별	마을활동 경력	소속 구
1	S	51	여	11년	성동구
2	T	46	여	6년	금천구
3	U	47	여	4년	금천구
4	V	40	남	5년	도봉구
5	W	46	여	10년	성북구



2. 참여의 조건과 동기

1) 주민의식과 이웃의 중요성 인식

공식적 장에서의 주민의식 발현 욕구

마을계획단은 누구에게나 생소한 것이었다. 전례가 없는 사업이 실시되었기에 마을계획단의 구체적 활동상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동기로 마을계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문제의식과 희망사항을 중심으로 이들의 마을활동 욕구를 살펴보았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의 다수가 통장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다. 마을계획단을 구성하면서 우선 단원 모집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이 통장과 기존 직능단체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외에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던 경험을 많은 인터뷰 참여자들이 갖고 있었는데, 이들은 동장을 비롯한 동주민센터의 당연한 섭외대상으로서 마을계획단 참여 권유를 받았다.

여성발전센터를 다니며 알게 된 이웃의 제의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주민자치위원 경력도 있는 E단원, 같은 마을에 40년 동안 살면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에 참여하고 현재 통장을 맡고 있는 C단원, 구청의 자원봉사단 회장이었던 Q단원, 주민센터에서 상담가로 자원봉사를 했던 E단원 등은 이미 마을계획단 이전에 지역에서 활동해온 이들이다. C단원은 상업에 종사하여 시간이 없는데도 “통장들은 꼭 마을계획단에 참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된다고 해서” 하게 되었다고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앞에서 소개했던 ‘현수막을 보고 참여’ 하게 된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대체로 마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 등으로 참여 동기를 설명한 것과는 달리, 통장, 주민자치위원 경력자들은 특별한 참여 동기를 밝히기 보다는 자신이 맡고 있던 직책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을계획단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편이었다.

이렇듯 참여자들 중 상당수는 통장이거나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어 마을계획단 참여를 권유받기도 했지만, 봉사활동 등에서 이어진 관심 또는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 동 실무자의 적극적 권유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참여 동기를 물었을 때 특히 지역의 주민으로서 주인의식과 사명감 때문이었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과거 시민운동과 봉사단 경험이 있는 J단원은 마을에서 오래 살면서 알게 된 많은 문제점과 애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손을 대게 돼서 너무나 많은 가짓수를 하고 있다가 우리 마을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고, 지금 사는 곳에서는 우리 **구에서 거의 38년?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구요,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되고 고쳐야 될 문제점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B단원)

H단원은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마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경험을 마을활동 시작의 계기로 설명했다. 마을과 사람에 관심이 많아 적극적으로 마을활동을 찾아하게 된 경우다.

저는 직장 다니다가. 아이를... 선생님이 “아이를 잘 키워야지, 어머니가 일만 하시느라 아이를 놓치면 안되잖아요?” 그 한마디가 굉장히 걸렸어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우리 아이는 이상이 없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일을 그만 두고 마을에서 소일 하면서 아이 동선 따라 일을 좀 해보자 해서 학교 활동도 처음 하고, 학교 활동 하면서 모르는 거를 마을 공동체 학부모 단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을 활동을 꾸준히 했어요. 가장 먼저 봉사활동을 하러 간 게, 주민센터 안에 있는 작은 문고 봉사부터 했거든요.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말이 나오기 전부터 마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좋은 교육 있다고 하면 찾아다니고, 그러던 입장이라 주민자치위원회도 제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런 기반에 정보력이 더해지니까 우선적으로 참여를 한 게 제 입장이고요. (H단원)

직장생활 때문에 정작 자신의 마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거나, 마을을 벗어난 활동 범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특정한 계기를 통해 마을로 눈을 돌려 중요성을 인식하기도 한다. 봉사활동이나 강좌수강을 타 지역에서 많이 하던 J단원은 자기 마을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을계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A단원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이 불편했으나 퇴사 이후 마을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경우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 10년 전에 그만뒀어요. 직장생활이 밖으로 도는 일이니까 마을 일에는 큰 관심이 없었죠. (...) 생협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하고는 교류가 많았지만, 실제로 그 그룹을 떠난 다른 분들하고는 교류가 없었죠. 그래서 밖으로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또 제가 또 자원봉사도 밖에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마을에서 내가 결국 잘 살아야지 오래 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가진 재능을 동네에서 펼쳐볼 수 있는 자리를 찾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마을계획단 모임이 있으면서 알음알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J단원)

(전에 살던) 노원구에서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냥 자원봉사하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좀 싫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이웃도 모르고 혼자 살겠다 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퇴직하고 보니까 그래도 이웃이, 내 가족, 이웃이 잘 살아야 또 살기 좋은 게 될 것 같아서 보니까 플랜카드가 주민센터 앞에 마을계획단 모임을 한다는 게 있었어요. (A단원)



이들이 마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거나 애정을 갖게 된 데에는 한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사실 역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여년 이상의 오랜 거주 기간 역시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었다.

또한, 과거에 마을활동을 직접 하지는 않았더라도 다양한 지역범위에서 봉사활동을 했거나,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한 지인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혹은 강의 수강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바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마을 리더 수준의 경력이나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적어도 사회를 향한 관심과 기본 소양은 가지고 있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을계획단은 이러한 여성들이 마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실제로 활동의 장이 되는 셈이다.

실무자 또는 지인의 권유 없이 현수막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 결심을 하게 된 K단원도 “동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수막 보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현수막에 그 마을주민자치 그런 식으로 써 있어서 나도 뭔가 하나 보탬이 되는거. (...) 그거 보고 나서 우리 동네에서 마을 계획단 뽑는다고 하길래 그게 다 일맥상통 하는 게 있겠다 싶어서 저도 우리 동네 뒤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걸 해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미진 곳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있다고, 뭐 가로등 좀 달아주소 이런 거는 아무것도 활동을 안했을 때 보다는 낫잖아요?(K단원)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건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K단원의 경우, 개인 자격으로 건의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공식적 직책을 맡은 사람이 건의할 경우 더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마을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남편 따라서 직장 다니다 다시 서울로 들어온 케이스라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구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되게 답답한 게 가로등이 망가져 갖고 있으면 왜 신고를 안해요.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데... 그런 거랑 아파트 같은데 살면서도 미끄러움 거나 그러면 이거 미끄러워요 그러면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안해요 그런 거를 동대표도

떠밀려서 했었어요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해보니까 그냥 내가 가서 말을 하면 발언권이 무시가 돼요. 근데 내가 뭐 대표직이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의견을 하면 그게 수렴이 더 쉽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냥 조금이라도 동네 사는데 편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어요. (K단원)

실질적으로 마을의 문제 개선의 성과를 가져오고 의견을 효과적으로 피력하기 위해서는 개인으로서 보다는 직위 내지 조직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마을계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마을계획단이 띠는 ‘공식성’을 장점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이웃관계 욕구와 과거문화 복원의 위험

‘친밀한 이웃관계를 향한 욕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마을계획단 참여 동기로 꼽힌다. 앞에서 말했던 마을계획단의 공식적인 성격, 즉 마을계획단이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행정체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적인 이웃모임과는 다르지만, 이웃을 사귀게 된다는 점은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요즘 누구한테 간섭도 안 받고 안당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복도식이 아니고 계단식이라 앞집만 알고 모르는 척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이웃이 잘 살고, 내가 살 곳은 이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뭐가 있는지, 이웃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웃도 알고 싶어 마을계획단에 들어갔었어요. (A단원)

제가 시골에서 자랐었고, 마을이 저를 키워 줬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는 값을 차려인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 말고 그냥 막연한 상이 있어요. 마을에서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워야 된다, 마을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마을은 정이 있어야지, 오고 가는데 인사를 안하고 지나가는 관계로 점점 서먹해지는 그것을 과거의 골목문화, 또는 과거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복원하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H단원)

F단원은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애초부터 왜 마을활동을 시



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개인적 경험을 연결시켜 이야기해주었다. 이웃과 나누는 생활을 좋아하는 성향에서 비롯된 나눔을 마을활동으로 연결시킨 F단원은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이웃사이의 경험에 공공성을 더하고 있다.

저는 워낙에 마을공동체일도 오랫동안 했었고요. 제가 호텔 요리사를 23년을 하다가 지병이 생겨서... 지병이라고 해서 무서운 건 아니고, 양쪽 인대를 못써요. 인대가 늘어져서 결국 회사를 나오게 됐죠. 손목이 이러니까. 워낙에 음식 하는 걸 좋아하고, 해서 남 퍼주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로 빌라로 이사를 와서 지금도 1층에 사는데, 현관문을 열어 놓고 살아요. 오며 가며 사람들 다 불러요. 발소리가 나니까. 김치통 요만한 게 우리 집에 한 100여개가 있어요. 통에 담아서 다 줘요. 먹어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비오는 날은 또 문 열어놓고 냄새 피워요 부침개. (...) 그럼 그 냄새에 막걸리도 사오고, 소주도 사오고, 맥주도 사오고, 밥도 퍼오고, 그게 우리 애 아빠가 주말부부라 집에 없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입소문이 나서 이 마을계획단을 할 때 공무원이 찾아와서... 이 공무원도 처음에 그 부서만 하게끔 사람을 서울시에서 채용을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나랑 계속 활동을 했던 분이었어요. (...)왔더라고요. 일빠따로 해달라고. (F단원)

사람 사이의 친밀함에 대한 욕구, 더 가까운 이웃관계에 대한 갈망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도 존재하며, 이러한 욕구와 갈망을 모이되 친목을 넘어 공공성을 획득하고 마을을 주민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 서울시 마을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욕구가 ‘과거 문화의 복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로의 회기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관계 형성이라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의 마을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가부장성의 문제 등 명확한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마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마을계획단 교육이나 모임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마을활동의 조건: 시간, 자원, 참여의식

마을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는 “아이들 다 키워 놓고” 시간의 여유가 생겼다는 점이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 경험이 있는 L단원은

7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집안에서 살림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다 성장시켜 놓고 나서 마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

3남매 다 키우고 시간도 있고 해서 일을 주민센터 일이나 구청 일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단원)

I단원 역시 자녀들이 모두 결혼한 뒤 여유가 생긴 경우로, 마을계획단에 부담 없이 한번 나가보라는 통장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다. M단원도 자녀 결혼 후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

저는 애들이 다 결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특별하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성당은 좀 나가면서 성당일은 좀 해요. 그러면서 또 통장 일을 해보라고해서 한지 몇 달 안 됐어요. 저는 마을에서 살면서도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20년 넘게 살았는데도 전혀 사람들하고 왕래를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쯤~금씩 이제 얼굴도 낮이 익어 가고 또 뭘 하며는 제가 뭘 할 줄은 몰라도 협조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I단원)

저는 집에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돼요. 여건이. 제가 혼자 돼가지고 애를 둘을 길렀거든요. 다 이제 결혼을 시키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M단원)

마을계획단 구성이 다양한 직업과 연령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나, 자원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60대 여성들의 경우 자녀양육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 시간자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시간의 여유는 가족 돌봄이 줄어들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다. 생계를 위해 일할 경우 마을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마을계획단 참여 여성들도 인정하듯이 시간과 경제적 여유는 마을계획단 참여를 위한 하나의 암묵적 조건이 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리 사람을 모으려고 해도 몸이 불편한 사람은 못 따라오죠, 아프다



보니까 못하고... 또 생활형편이 안되는 사람도 못 옵니다. 생활이 가난해도 봉사하고 반찬 만들어서 뭐하는 사람도 취재를 가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죠. 큰 일을 하고 의식수준도 높은 거 같아서 그런데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형편이 안되시는 분들은 돈하고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좋을까... 사는 데 문제없는 사람, 일도 많이 없는 사람이 딱 좋긴한데 있는 사람은 돈 쓰러 다니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우르면서 '정말 명분이 있어야 겠구나', 명분을 세워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우리동네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이 급선무라는 것을 느껴요. (B단원)

다만, B단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 건강, 경제적 여유가 참여의 조건이 될 수 있기는 하나, 결국 마을의 주인이라는 의식 없이는 마을활동으로 이어질 수 없다. 앞서 단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마을활동에 대한 관심 또는 활동경험이 전제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3. 참여의 내용과 성과

1) 마을계획단 활동 내용: 고령자와 여성을 위한 활동

마을계획단의 활동은 다양하고, 참여 여성들도 각각의 소속 분과에 따라 여러 활동을 펼쳐왔다. 고령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의제나 활동 중에서 연령과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을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고령자와 여성 관련 활동을 살펴보도록 한다. 동별 의제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는 고령자 관련 의제가 많았다.

인터뷰를 통해서도 어르신을 위한 활동 사례가 많이 드러났다. 골목길에 의자를 놓아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거나(B단원), 경로당에 방문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청소를 돕는다거나(L단원), 노인정에서 식사를 함께 하며 말벗이 되는(C단원) 등의 일이다. 활동을 소개하면서 대상에 대한 관점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단독주택에 있는 어르신들은 갈 때가 없는 거예요. 갈 때가 없으니까 심심한 거죠. 그 분들은 경로당도 잘 안가요. 그러니까 골목에서 옆에 있는 어른들끼리 주고받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의자를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걸 해드리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B단원)

우리가 구립경로당이 16개정도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해서 식사 대접하고 냉장고 정리나 화장실청소 유리창 닦는 거 이런 거는 힘들어 하세요. 본인들이 잘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협조가 들어오면 그런 거 해드리고... (L단원)

뭐냐면 70대 이상 된 어른들은 어중간해요. 그 밑에 세대들은 많이 배워서 컴퓨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70대 이상 어른들은 못 배운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은 휴대폰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요즘 노인정 같은데 가서 보면 대부분이 그 어른들이거든요. 동네에서 마을 계획이나 이런 걸 하려면 노인정에 가서 휴대폰을 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제를 냈었죠. 휴대폰도 가르쳐 드리면서 점심때 국수라도 대접하면서 동네에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의제에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면 큰 돈 안들이고, 어른들이 큰 거 바래요? 가서 얘기해주고 점심에 국수라도 끓여드리면서 얘기하면 좋은 얘기 엄청 많아요. 사무적인 얘기 말고, 진짜 토속적인 이야기...(C단원)

마을의 삶을 개선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중요한 의제로 어르신 대상의 활동이 제기된 배경은 마을마다 다르겠지만, 고령자들을 일방적 수혜자로만 설정한다거나 단순히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마을 주민들의 인력을 동원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주도적으로 이 분야의 일을 행하는 이들 역시 중장년 이상 여성들이라고 할 때, 위의 사례들(의자 제공, 청소, 점심대접)에서도 일부 드러난 것처럼 여성이 고령자를 일방적으로 돌보는 방식보다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추후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를 통해서 여성과 함께 하는 활동들도 여러 사례 소개가 되었는데, 이해도와 접근성, 그리고 고령여성 스스로의 욕구가 반영된 때문으로 보인다. B단원의 마을계획단에서는 “젊은 엄마” 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분과활동으로 기획되었다. 공통의 생애 경험을 바탕으로 타 세대 이슈에 접근하게 된 경우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거의 고학력이잖아요. 그러면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이고, 계획대로 아이들 잘 키우죠, 그런데 아이를 학력만 높다고 해서 잘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키우고, 꼭 이게 돈만 갖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신적인 교육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분야를 얘기해야겠다고 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B단원)

주부들과 함께 마을 공방을 운영했던 D단원은 참여자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으나 자치구에서 바라는 ‘단기간 다수 참여’ 방식보다는 ‘장기간 지속적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방에서는 엄마들이 엄청 좋아 가지고, 돈 안내고 와가지고 친환경 소재로 인해서 코 뜨기, 뜨개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하면서 친환경이라고 해서 수세미 같은걸 엄청 땀어요. 땀더니 엄마들이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EM 만들기, 이런 거 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전부 다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한 20~30명이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자고 하더니 딱딱 나와 가지고 출석체크를 했더니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잘 나오더라고요. 오전에, 10시에 저희는 시작했거든요. 10시부터 11시까지, 그렇게 하고 가고, 전부 모여 가지고 커피 같은 거마시고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고 그랬어요. (D단원)

고령자와 여성이 함께 하는 활동은 마을활동 참여자 확대, 주민과 접촉 강화, 나아가 참여자들이 마을계획단을 비롯한 여러 마을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 이들을 대상화하지 않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2) 고령여성 참여의 의미

60+의 힘

인터뷰 참여자들은 숫적으로 60~70대 여성이 마을계획단에 다수 포진되어 있는 데다 활동에 있어서도 적극적이며 잠재력 있는 집단임을 주장했다. C단원은 60~70대 여성을 일컬어 “끌어당기지 않아서 그렇지 잘 참여할 수 있는 연령층”이라고 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마을활동을 독려해야 한다고 했

다. J단원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활약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분들의 저력은 대단하지요 사실 4,50대가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연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J단원)

마을계획단장 Q 또한 마을계획단에서 열심히 활동한 고령여성, 특히 60대 여성들의 역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했다.

그런 분들은 진짜 온~몸을 다 바쳐서 하시니까...(...) 어머니들의 힘이 대단하셔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과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결국은 60대 분들이예요. (...)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60대들이 나중에 그 활성화 방안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60대 초반이. 그래서 이 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1년 동안 마을계획단 활동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Q단장)

60~80대 중에서 특별히 60대를 분리하여 마을활동 적극 참여자로 여기고 이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경우도 더러 눈에 띄었다. 고령자 사이의 구분이 반드시 연령 기준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건강 정도 등에 따른 구분도 가능하나, 통상 연령대를 기준으로 60대를 고연령대 노인과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마을계획단에서도 60대에 대한 구분은 그대로 드러났다. F단원은 60대의 역할로 50대와 70대 사이의 다리 역할을 들었다.

(60대는) 많이 젊지도, 나이를 먹지도 않고 그래서 70대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렇긴 한데, 50대와 70대를 이어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우리는 사랑방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어울려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교 역할, 없어서는 안될, 왜냐면 50대하고 70대는 벌써 20년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 자칫 잘못하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거든. 70대 분들은 당신 스스로 살아온 이런 아집들이 있어요. 50대는 50대 나름대로 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해주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트러블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60대가 해 준 것 같아요.(F단원)

60대 참여자들이 70~80대와 본인들을 구별한 데에는 70~80대와는 다소 다른 시대



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점과 신체적·사회적으로 구별되어 인식되는 점, 무엇보다도 더 이상 스스로를 노인으로 정체화하지 않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과 건강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70~80대를 참여주체에서 배제시키고 대상으로만 설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령자 층이 돌봄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계획단 적극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향후 고령자 이해에 기반 한 의제 제안과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마을의 이해

마을계획단의 성과는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고령여성 참여자 개개인의 변화 차원에서도 논의될 가치가 있다. 마을계획단에 참여하게 된 동기, 즉 마을의 문제를 내 손으로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 이웃을 사귀고 싶다는 욕구는 실제 활동을 하면서 실현되고 곧 개인의 성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 밖에 마을을 더 많이 알게 된 것도 성과로 꼽혔다. 주민으로서 오래 거주했음에도 몰랐던 사실이나 사람들을 알게 된 것이다.

제일 나한테 적합한 게 걷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게 됐는데,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참 좋다~ 또 숲만 걷는 게 아니라 숲을 나와서도 동네도 걸거든요? 동네도 사실 정류장까지 갔다, 우리 집에 왔다, 마트에 갔다 그거 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동네를 돌게 되고 동네 사람도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니까 그런 것이 생긴 거죠. 그걸 하면서. 만약에 그걸 안했다면 집밖에 몰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고. (G단원)

마을 의제로 다수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마을을 더 잘 알기’이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알리는 작업인데, E단원은 해당 마을의 주요 이벤트이기도 한 문화행사를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보였다.

우리 **동에는 아주 큰 은행나무가 3그루 있고, 우리 동네의 상징이에요. 작년 9월경 정조 대왕 행군이 크게 진행됐어요. 경희궁에서 출발해서 과천, 수원 화성까지 행진하고 며칠 간

진행된 행사인데 이 행사에 대한 포부가 매우 크고 분과도 운영 중입니다. 저는 다른 분과이지만 **행사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행사에 불려가 함께 참여했어요.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E단원)

60+의 역할 재정립

인터뷰 참여자들은 60대 이상 여성들의 현재 역할과 향후 더 큰 역할을 해내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해주었다. 주로 나온 내용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민 관계의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 내지 경험치에서 나오는 전통문화 전달에 관한 것들이었다. 예를 들어 H단원의 마을에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금줄을 치는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새로 이사 온 주민들을 위해 환영의 밥상을 마련하는 일을 60대 여성 위주로 진행하고 있었다.

전체가 다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분과 중 60대 분들 포함되어 있는 분과가 ‘*****분과’인데 그 분들이 아까 전입자 밥상 차리기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금줄치기 같은 거 하면 또 가서 같이 행사 거들어 주고.(...)주민센터에서 팝콘기계를 샀는데 그걸 팝콘을 튀겨요. 팝콘을 튀기면서 천원에 그걸 팔기도 하고, 인사를 계속 말을 건네고, 그 분들이 계시니까 계속 인사를 나누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을의 얼굴 같은 역할을 하시죠. 상을 차려서 먹거리로... 음식을 제일 편하게 잘 하실 수 있는 연세시니까 밥상을 차리고 또 푸근하게 맞아줄 수 있는 역할로, 영화 보는 날 팝콘을 튀겨주고, 금줄치기 하는 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년시절부터의 배워진 것들이 있잖아요. 새끼꼬기도 본인들이 본을 보여주고, 역할이 한정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셨던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H단원)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 가장 관심과 자신이 있는 활동을 해냈다는 점에서, 더욱이 마을계획단이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해당 동 60대 여성들의 적극적 역할은 큰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 주민을 위한 밥상처럼 과감한 시도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오랜 동안 마을에서 쌓은 친화력과 상처림을 매개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 때문이었고, 이는 분명 이들이 가진 큰 장점이다. 그러나 다양한 마을활동 중에서 “전통의 계승자” 로만 이들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정해진다면, 요리, 돌봄과 같은 가족 내에서의 역할만 마을활동으로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고령여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특히 음식과 관련한 활동이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는데, 고령여성들의 음식 만들기가 어떤 관점에서 제안되었는지, 어느 범위로 확장 또는 제한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Q단장이 해당 마을계획단에서 고령여성 참여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모아온 결과로 제시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마을부엌과 같은 프로그램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나눔 부엌 같은 프로그램으로 모임을 결성해줘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6080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음식문화예요. 음식문화는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노하우인데, 이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로 활성화 시켜야겠다... (Q단장)

이처럼 음식 만들기와 고령여성을 연결시킬 때, 단순히 가족 내 역할의 연장선상에서 이들의 역할을 규정한 것인가, 아니면 이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특별한 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평생에 걸쳐 수행해왔던 가사에 대해 의미부여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능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로 평가해야 한다.

밥상 차려주기 이런 거 했을 때 그 분들한테는 나물 무치는 거나 음식 만들기 노하우 이런 것들이 너무 쉬운 일인데 젊은 엄마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별거예요. 막 검색해서 레시피 가지고서 막 만들고 하잖아요. (H단원)

한편, 마을활동을 통해 고령여성이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고 자기 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취향, 지향, 능력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F단원은 60대인 자신의 세대를 “내가 뭘 잘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세대”로 명하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F단원 역시 욕구 파악을 우선한 맞춤형 교육을 제안했다.

60대가 젊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할머니 취급 받을 나이도 아니고 (...)우리 60대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저처럼 직업을 가졌고, 오랫동안 활동을 한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가정에서 나와서 이 활동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애매한 나이에요. 그리고 내가 뭘 잘 하나 그것도 잘 모르고, 그 세대예요. (...) 내가 뭘 잘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세대가 우리 세대예요. 조금만 몇 가지만 짚어서 교육을 시켜주면 많이 베풀고 살 수 있는 세대가 우리 세대예요. 왜냐면 우리 세대는 7, 80대보다 아집도 덜 해요. 젊은 사람들하고 공감을 금방 할 수 있는 세대예요. 나는 4, 50대하고도 잘 어울리거든요 소주 먹으러도 다니고. 그게 가능한 세대가 우리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F 단원)

그 연령대에 적합한 교육은 받아본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멍뚱그러서 교육 받은 것에 그냥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줄게 할 정도로만 조금씩 도와줬는데, 사실은 그 힘이 모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것에 아무도 시도를 못 해준 게 저희 동 같은 사례인 것 같아요. (...) 맞춤형 교육, 욕구, 필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다재다능한 것들을 꺼내서 마을 일자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단원)

현재의 고령여성들은 자신의 욕구와 취향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할 기회가 부족했다. 이들이 자신을 이해하는 교육을 통하여 향후 활동의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을계획단에서 실시하는 일반적인 교육(2개월 간 5회를 지침으로 하고 있다) 외에 추가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마을계획단에 실버분과를 하나 신설을 하고 이 분들만을 모아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추진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7, 80대를 위한 전문 강좌를 개설을 해서 참여와 소통의 방법론 같은 것을 해줘야 한다...(Q 단장)

4. 참여의 걸림돌과 한계

1) 연령에 관한 태도와 타 세대의 편견

마을계획단 구성에서 10~30대 연령대 비율이 낮아서 젊은 세대를 유입시키고 활약하도록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다. 단지 물리적인 나이 분류에 의한 고령자가 아니라 “기존 세력”, “기성세대”로서의 이미지도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참여자들 중에는 본인들 스스로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었다.

거의 60대 우리 할일 다 한 사람들이 많이 협조해주고 50대는 우리가 끌어들이 이유는 우리가 이제 60넘었으니까 너무 늦게까지 또 그러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들어와라 들어 와라 그런 거고. (L단원)

지금은 후배를 키우느라 될 수 있으면 뒤로 빠져요. 젊은 사람들 자주 투입 시키고 열의 있는 젊은 사람들 찾아서 키우고 있어요. 65세까지 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빠져야지. 젊은 사람들 키우는 것이 올해 우리 계획이 젊은 사람들 끌어들이어서 작년에 했던 우리 일 같이 올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L단원)

젊은 세대, 새로운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고령자들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태도로 인해, 자칫 한 번도 주역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고령 여성들까지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고령자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인터뷰 과정에서 많이 흘러나왔다. 주로 고집과 의사소통 노력 부족에 대한 내용이다.

연세 많이 잡수신 분이 계셨는데 좀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다고 해야 되나... 한번 말을 꺼내면 끝이 없네요. 거기에 관련도 안 된 얘기, 자기 살아온 애 없는 얘기 말을 하면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긴 얘기라도 상관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살아온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그랬던 거 같아요. (R단장)

노인분들이, 고정관념이 위계질서를 굉장히 찾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예의, 인사도 대접받기를 원하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안 해요,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 (...)다음은 마을계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 층이 가끔 있는데, 이 젊은 층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의를 하면 회의 중에 까딱하면 엉뚱한 데로 넘어가 버려요. (Q단장)

남자분들 70대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의견이 안 맞으면 무시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트러블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A단원)

일반적으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본인들 살아온 궤적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 세요. 뭔가 하나에 딱 꽂히면 끝없이 밀고 나가요. 분과장 몇 명이 그런 현상이 있어서 자기 분과 원들 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과에서는 아주 고집이 세신 분이 하나 있는데 하다가 나 안 한다고 나가버리는 일도 있었고 특유의 가치관이 있는 거죠. (Q단장)

어른들 보면 너무나 막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른들이. 듣거나 듣고 해석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듣기 편하게 할머니들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또래는 좀 괜찮은데, 우리 이상의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G단원)

참여자들은 고집과 위계강조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젊은 세대가 가진 편견과 고령자 기피도 드러냈다. 고령자들이 많은 모임을 싫어한다거나 고령자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였다.

또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많은 걸 보면 노인정 같다는 표현을 대놓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7.80대 여성들이 많으면 젊은 사람들이 무슨 노인정 같애, 이런 소리를 실제로 들었어요. 그래서 에이, 노인정 같은 왜 와, 이런 얘기를 하를 젊은이도 있다는 거죠. (Q단장)

일단은 시작을 해서 뭘하면 좋을까 했는데 젊은 엄마를 만나는 게 하늘에 별따기예요. 놀이터나 집집마다 다녀도 젊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 만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자신들이 더 배우고 더 똑똑하게 가르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안돼요. (B단원)

세대 간 이해와 의사소통에 대한 노력이 전 연령대에 걸쳐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던 노인혐오현상이 마을의 일상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타 세대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하다.

2) 가부장 문화의 답습: 리더는 남성 어르신?



앞서 마을계획단 구성 현황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단계 14개동 마을계획단 중에서 1개 동을 제외한 모든 동의 단장은 남성이다. 유일한 여성 단장을 둔 마을계획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장 선출 배경을 설명했다.

저희도 단장을 이 사람 안 뽑았으면 남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마이크에 대고 마이크 든 분이 이제부터 단장을 뽑겠습니다~ 단장 하고싶으신 분~ 그러길래 내가 손들면서 아니요, 마이크 들은 김에 하세요 이렇게 밀어 붙여서 그랬지 안 그랬으면 남자분이 했을 거예요. (...) 그러가지고 단장으로 밀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요. 작년에 서울시장상도 받았잖아요.

이 마을계획단의 40대 여성단장 선출을 부러워하면서, 다른 마을의 H단원은 왜 여성들이 단장이 되기 힘든지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다. 젊은 여성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육아 때문에 시간활용의 한계가 있고, 고령여성은 리더 역할의 경험이 부족하여 선뜻 나서기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리더가 되면 가사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되게 부러운 케이스고요. 저희는 젊은 여성들은 솔직히 다 직업전선으로 나가 있어서 젊은 여성이 없거나, 있어도 육아 때문에 깊게 관여를 못해요. 조금씩 조금씩 마을을 바꾸기 위한 노력에 조금씩은 보탬 수는 있지만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편이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하지만 이 일도 행정이지 않겠어요? 어느 기관에 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생활이나 그런 것들이 익숙치 않으니깐 겁이 나는 거고, 너무 본인을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이고, 좀 아무지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것까지 하면 정말 자기 자신을 다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집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건 직업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일은 다 하고, 그 결과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만큼의 위치도 잡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 그렇게까지 하면 그 다음에는 그녀를 볼 수 없어요. 현실이... (H단원)

남성들이 마을활동에 참여하면서 주로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느끼는 F단원은 평단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리더 역할을 선호하는 남성들의 경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근데 남자들은 자기가 리더가 하고 싶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밑에서 하려면 안

와요. 대부분 그런 습성이 있어요. 내가니 밑에서는 못해. 그래서 나오지 절대로 밑에서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G단원)

리더가 남성이 되는 현상에 대해 모든 여성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 여성 리더의 육성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보조역할로 자신들의 위치를 한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L단원은 남성들의 능력과 열정이 실제로 더 높다고 이야기한다.

근데 열성으로 여자들이 일한다고 해도 남자들 열성을 못 따라가요. 남자분들이 진짜 잘하세요.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장도 오래 하셨고 동네일이라면 먼저 발 벗고 나서시는 분.. 우리가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우리들이 먼저 추천을 해요. 근데 아무리 바쁘셔도 전화 드리면 나오시고 병원 운영하면서 하는데도 여자들 열의 있다고 해도 남자들이 더 열성이세요. 우리는 항상 뒤에서 보조 역할이에요 엄청 잘하세요. 다.(L단원)

고령여성들이 스스로 리더로 나서기보다 남성 리더에게 협조하는 태도에 대해 단장 그룹의 인터뷰에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P단장은 고령여성들이 실무를 열심히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의사결정은 남성 리더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원인을 가부장적 문화에 익숙하다는 점과 여성단체의 영향력이 낮아 각성의 기회가 부족했던 점에서 찾는다.

저희 동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단장님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단장님 보다 그 밑에서 활동하시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 어머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단장님에게 물어 보라고... 이게 어머님들이 너무.. 옛날 어머님들이 항상 모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집안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 단장님이 만약에 안 계시면 또 저희 동에는 분과장님 중에.. 연세 있으신 남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다 이야기를 해놓고, 정말 중요한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물론 선생님 의견도 좋은데, 어머니 의견, 어머니,, 이러는.. 저희 **구가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단체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동에서는 되게 아주머니들이.. 저희 동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그분을 찾으세요. 남성분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남성) 같은 경우도 저희 마을계획단 같이 하거든요, 그럼 또 그 분이 오시면 또 그분의 의견을 물어보고 항상..(P단장)



근데 사실 그거는 남자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단장으로서 위상을 살려주기위해 계속 의견을 묻는 거지... 그게 꼭 남자기 때문에 그런건 아니지.(R단장)

아니 이 말도 아주 틀린 소린 아닌데,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단장님이나.. 근데 ***선생님이라고 그 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분은 우리 동 주민도 아니야, **동 주민이신데 우리 동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데 그분이 나타나고 이렇게 어머님들이 앉아계시면, 항상 그분의 의견을 너무 존중하세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남아선호사상? 이런 게 너무.....(P단장)

5. 참여 애로사항과 극복지점

1) 마을계획단 내·외부 갈등

관의 주도과 간섭

찾동이 기본적으로 행정체계를 이용하는 것인데, 마을공동체라는 매우 자발적인 주민조직이 이와 조화를 이루기란 무척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행정의 역할이 주민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이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다. F단원은 관의 주도성을 마을계획단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여기(다른 마을)도 트러블이 더 많아요. 왜냐면 ***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줄 알아요. 내가 우선인거야. 그래서 트러블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잘 굴러가는 이유가, **동 동장님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요. (...)그게 진짜 관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뿔뿔뿔 솟아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동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한 쪽으로만 치우쳐서 이쪽은 이게... 난 잘못됐다는 거예요.(F단원)

O단장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관의 참여에 대해 인정하고 현재의 관-민 관계를 비롯한 마을계획단 활동 전반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나, 관에서 추진하는 일정과 마을활동의 속도 차이, 특히 성과보고에 발맞추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지적

하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마을계획단이 취지나 이런 것들이 관 주도로 정책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도가 먼저 생긴데다가, 저희가 원래 마을끼리 해야 하는 일들이 거꾸로 되다 보니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자이기도 했고, 마을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고 마을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어울리면서 고민하고 밤에도 마을 조사하고 낮에도 마을 조사하고 이런 거 반복하는 게 다들 재미있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서 갔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우리는 천천히 가고 있는데 맞춰서 뭘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일정들이 짜인 게 일정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뭘 언제까지 제안을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의 걸음걸이와, 관에서 짜여진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 것들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힘들긴 했지만 마을계획 자체는 저희가 천천히 지금도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에..(O단장)

이렇게 관의 주도성에 대해 비판적인 가운데, 동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는 의견들도 나왔다. 결국 지나친 주도는 반대해야 하나 협력적인 관계에 대한 바람이 있으며,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행정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저희는 동장님을 비롯해서 김** 주무관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레몬생강차를 만들어서 애쓰신 분들을 다 하나씩 드렸어요. (M단원)

사실 저는 깊이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동장님부터가 앞장서서 솔선수범 하다 보니 참 자기 일처럼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보기 좋았어요.(J단원)

참여자들은 구체적으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L단원은 동주민센터가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많이 하지만, 주민센터도 신경을 많이,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해요. 1인 가구가 어떻게 사는지 통장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민센터는 알잖아요. 들어가고 나가고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관이 같이 합쳐야 그게 무슨 일이 되지.. 정보는 그쪽에서 알고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L단원)



관의 주도성에 대한 비판, 협력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 역지사지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J단원은 동주민센터 공간을 이용한 마을카페 때문에 혹시 여성 공무원들의 사무와 휴게공간의 침해가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는 것까지도 주민의식에 포함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마을카페를 **동에 만들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자기공간을 내놓아서 만든 거잖아요. 동장실도 엄청 좁은 소파도 낡은 것 그대로 쓰시고, 주민센터 갈 때마다 보면 직원들이 여자들 이 많은데 좁은 장소에서 일하는데 내 딸이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슬플 것 같아요. 제가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또 내 딸아이도 직장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들이 누리는 공간이 결국 공무원이 내어준 것이란 것을 주민들이 알기는 해야 할 거예요. 물론 당연히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아요. 직원들에게 물어보죠. 여직원 휴게소, 생리통이 있을 때 누울 곳, 수유공간의 걱정이 있느냐 근데 그런 거까지 의제로 내기에는 내가 열심히도 안하면서 오지랖이 넓다고 할까 봐 그러지는 못했는데, 물론 동장님은 좋은 동장님으로 인정받았지만 여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우려됐어요. 동장님도 소파도 낡았고 좁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곳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주민의식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으로도 그런 언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직원들의 복지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도 배려할 수 있는 주민의식이 생겨야겠다고 생각해요.(J단원)

관 주도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주민의 자주성과 민관협력의 가치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이들 여성이 마을계획단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각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주어진 역할과 프로세스에 몸을 맡기는 대신 문제의식과 방향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을계획단 참여의 성과이자 향후 적극적 마을활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그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강조해온 ‘주민 주도의 민관협력’ 원칙에서 주민이 갖는 위치가 여성으로 등치될 수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일방적인 관 주도에 대한 비판의식은 기존의 민-관 관계에 대한 여성 주민 당사자의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 볼 수 있다.¹²⁾

기존 주민조직과의 갈등

조직 운영에 있어서 내부 갈등은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마을 계획단 역시 100명에 가까운 다수의 구성원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 마을에서 나타나 패턴화된 갈등이 있었다.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단이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계획단 단장을 안 뽑은 이유가 그런 문제도 있었고. (P단장)

그러니까 너무 열성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데서 온다고 보는데 주민자치위원 있죠, 주민자치는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뭐든지 자기네들이 관할을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마을계획단은 계획단대로, 따로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나가고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그대로 나가면 사실 여기서도 분과 별로 제 각각 서로 크고 죽는 건 죽더라도 일단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데로 화합 해야지 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 분과 같은 경우는요, 사실 말을 못했어요. (B단원)

A단원이 들려준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갈등 또는 관계 조정 실패를 당초 마을계획단 구성 단계에서 기존 조직을 동원한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원래는 민이 주도하는 데 관이 참여를 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 모집하는데 있어서... 제일 처음에는 동장님 권유로 많이 참여를 했어요. 동장님 얼굴보고 와가지고... 한 50명 정도 발대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안 해서 그런가, 누구의 권유로 마지못해서 와서 그런지... 또 주

12) ‘주민 주도의 민관협력’ 원칙에서 “주민”은 대체로 관에 대치되는 개념 또는 기존 단체가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이른바 신규주민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단적 호명 “주민” 속에서 여성의 위치는 규명되지 않았는데, 다만 “주민”이 관 또는 기존 단체의 상대 개념으로서 공공영역에 나서지 못했던 이들을 지칭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여성은 “가정에 머무르고 있다가 마을에서 무보상으로 쉽게 활용 가능한 인력”으로 여겨져 왔다(김영정, 2015).



민자치하고는 그 분들은 또 뭐가 되면 빠져 나가야 되나 봐요. 우리도 그때 회장이 주민자치위원 뭐가 됐다고 빠져야 된다고 해서 빠지더라고요. (A단원)

인터뷰 참여자 중에는 과거 또는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한 여성들도 있었다. A단원의 이야기처럼 계획단을 모집할 때 주민자치위원들을 독려했기 때문에 대거 유입되었던 자치위원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탈퇴에 이르게 된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참여를 했다가... 저는 거기 있는 사람이 ‘꼭 나와서 해야 된다, 그 동안 몇 십년을 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꼭 필요로 하니깐 나와서 일을 해라’ 해서 저는 마지못해 나와서 일을 했던 건데 이렇게 끝까지 참여를 했던 거구요. 다른 분들은 나왔다가 저랑 같이 일을 했다가 다 그만뒀어요. “왜 마을계획단 조끼를 입고 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주민자치도 빠지고 마을계획단도 빠지고... 안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일을 안 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분은 아예 안하는 걸로 빠졌어요. (D단원)

주민자치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계기로 인해서 마을계획단도 하면 사람들하고 같이 여럿이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원분이 소개해줘서 마을계획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제가 마을계획단 들어오다 보니까 ‘너는 주민자치에서 일했는데 왜 마을계획단에 가서 또 일을 하나. 그럼 주민자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 ‘이것도 하면서 힘닿는 데까지 마을계획단도 한번 해보고 싶다, 어차피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마을계획단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주춤했어요. 한번 처음 나가서 ‘나도 편하게 주민자치만 끌고 나가면 되는데 왜 마을계획단까지 자꾸 하라고 하느냐’ 동주민센터에서는 활성화할 수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여돼 있는 분들은 ‘안 된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일만 해라’ 하는 갈등이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제 이름으로 안하고 의제를 낼 때도 남의 이름을 빌려서 내고, 일은 제가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그게 아니었구나, 마을계획단하고 주민자치하고 같이 이어져 나가는 계기였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D단원)

2) 고령여성 역량강화 필요



내실 있는 교육 필요

각 마을계획단은 5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각각의 마을 상황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자기 마을에 대한 이해(환경, 역사 등), 찾동 마을사업 설명, 주민들과의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타 마을 활동가 사례 등을 내용으로 다룬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도 드러냈다.

전문적인 교육도 필요하고요, 정신적인 교육도 필요해요.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이.(G단원)

다수를 놓고 하는 대중 강좌 말고, 소그룹 단위로 요구가 있는...(H단원)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 중에는 SNS 홍보 방법 등의 구체적인 실무 교육을 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마을계획단 활동의 근본적 취지와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욕구, 특히 시기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E단원은 구성원 다수가 마을계획단 운영 과정과 방법에 대해 알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날 무렵에 교육을 가는 게 많았어요. 근데 그걸 가서 교육을 들을 때 어 저걸 진작 들으면 마을계획단 사업할 때 좋았겠다 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 마을계획단이든지, 마을 사업 이든, 찾동이든지, 저 차제가 뭔지 일단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안 다음에 모집을 하고 이러면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구성에서부터 계획에서부터 실행에서부터까지 하기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모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교육은 다 끝났어요. 총회,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 그니까 이게 좀 선 후가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교육을 갔을 때 리더십교육이던, 마을 주민으로서의 마음가짐 등에 대한 교육을 듣다 보니 처음에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E단원)

Q단장 역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최초로 주민 대상 워크숍이 있었어야 했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초로 우리도 역량강화 마을 워크숍을 한 것은 1년간의 마을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에 의해 교육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없었어요. (Q단장)

교육 내용 중에서는 분과장 등 리더 역할을 하는 이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을계획단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 전달 외에도,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거기서 느껴진 것이 서로 믿고 믿어야 리더 할 수 있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믿고 따라간다. 결국 이게 포인트였는데, 저는 감동받았거든요. 이 분과원들이 나를 믿게끔 해야 되고, 또 분과원들은 리더를 믿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전 교육이,.. 그런 것도 좀 리더를 하기 전에 그런 리더십 교육이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분과원들도 믿고 따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 같이 할 수 있는 리더십 교육.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R단장)

행정작업과 활동 외화의 어려움

마을계획단 활동을 하며 겪는 애로사항으로 회계와 문서작성 등 행정작업도 자주 거론된다. 공문서 작성의 경험이 부족한 고령여성의 경우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또한 활동 계획이나 결과를 문서 또는 발표 형식으로 외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O단장은 토론의 결과를 문서화하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리더로 나서기도 어려워한다고 느꼈고, U단장도 문서작성이 6080세대에게 특히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그 분들(연세 드신 언니들)은 같이 마을 조사를 나가거나 그럴 때 우리 마을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도 많이 주시고, 애쓴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 분들은 단지 그런 거를 하려면 제안서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 모든 문제점이나 우리들의 아이디어가 모아졌을 때 그것들을 취합해서 서류화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래서 분과장 같은 것을 추천하면 난 못한다고, 이러시면서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역할로 하시거든요. 그 분들은 그런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

이 있는데, 사실 마을계획단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나와야 되는 제안서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좀 신경 써서 많이 집중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O단장)

엄청 많죠, 쓰라고 할 때는 제일 싫어하세요, “그냥 써, 말 할게” 6080세대 분들이 의외로, 아니, 의외가 아니죠. 엄청 많죠, 문제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U단장)

고령여성 당사자인 D단원은 사업계획서 작성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장기간에 걸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서류작성 방법을 익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단발성 교육으로는 행정작업을 익힐 수 없다는 점에 대해 B단원도 강조했다. 실전을 겪으면서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

저희는 60대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써내야 되잖아요. 의제를 제외했을 때, 사업계획서 같은 거야, 하는 대로 써내면 되지만, 그거 말고 사업비를 받으려면 엄청 뭐 쓸 일이 많더라고요. 복잡해. 준비하는 게 너무 복잡해, 서류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은 당장 배울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주로 해줬잖아요. 담당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저희가 배워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를 필요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필요하고 마을계획단은 우리가 해야 하므로 스스로 해야 하잖아요. 근데 담당자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익히지를 못했으니까 1년-2년 간 더 한 사람씩 더 세워서 담당이 있도록 만들면서 저희가 그 안에 사업비,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공문서를 다 만질 수 있는 그런 걸 배워서 할 수 있도록 연장됐으면 좋겠어요.(D단원)

그런데 그건, 배워서 안돼요. 무턱대고 사업계획과 공문 신청을 해서 직접 부딪혀야 되는 거지, 교육 많이 받는다고 절대 못해요. 그냥 무조건해서 모르면 가져가서 구청도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뭘 써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가면서 자꾸 해봐야, 내가 직접 해봐야, 그렇게 해야 배우는 거지, 그거 직접 해야지, 교육 받아서는 못해요.(B단원)

행정작업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예산 집행의 원칙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류 작성 등의 작업은 좀 더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더 많은 시간을 행정보다 활동 자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쓰고 실행에 오기까지 한두 달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생각했던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단 이걸 먼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 항목 자체도 변경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요. 우리가 써냈던 거에만 써야 된다는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돈을 쓰는데 있어서도 문구류를 사기로 했을 때도, 문구 샀던 물품 내용도 사진도 찍어야 하고, 모든 것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처음이었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6080어르신들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간소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0단장)

6. 요약 및 시사점

마을계획단에서 고령여성은 숫적으로도 적극성으로도 비중이 적지 않으며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계획단에 참여하는 60대 이상의 여성들은 통장이나 지역 봉사활동의 이력을 통해 마을계획단에 합류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마을을 개선해보겠다는 의지 또는 가까운 이웃관계에 대한 희망으로 자발적 참여를 하기도 한다. 건강과 시간의 여유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전제 하에 주민의식이 기반 된 참여라고 할 수 있다. 70~80대의 참여는 저조하지만 60대의 경우 실제로 마을계획단 구성에 있어 숫자적으로나 활동성 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장점은 오랜 마을 거주 경험, 친화력, 위 아랫세대를 잇는 역할에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활동력에 비해 단장 등의 리더 역할을 맡기보다는 실무와 협조의 역할을 하는 경향에 대해, 리더 경험의 부족과 가부장적 문화에 익숙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활동을 하면서 마을의 기성세대인 본인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젊은 세대가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는데, 세대 통합이나 교류의 관점에서 중요한 일일 수도 있으나 과연 한 번도 주역으로 조명 받은 적 없는 이들 여성조차 뒤로 물러서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제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활기찬 노후 활동의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마을 차원에서도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적인 노인 이미지의 영향이 있어, 마을활동을 하면

서도 안팎의 편견에 마주한다. 아집과 소통부족으로 대표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한편으로는 소통 연습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편견 극복을 위한 세대 간 이해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들 여성이 마을계획단 활동을 하면서 애로사항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꼽은 것들은 첫째, 지나친 관 주도성을 극복하고 행정과 주민의 협력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 둘째, 내부 갈등, 그 중에서도 기존 주민조직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한다는 점, 셋째, 회계나 문서작성 등 행정 작업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 넷째,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초기 교육부터 ‘자아 찾기’ 처럼 세대 특성에 맞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내용의 교육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을계획단에서 고령여성이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기대 받는 역할은 음식 만들기 또는 돌봄 등과 같은 것으로 한정적인 편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마을 주민과의 소통과 마을활동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으려면, 살림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정에서의 역할을 마을로 가져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젠더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IV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 : 실버액션단 활동 결과 분석

1. 실버액션단 운영 개요
2. 실버액션단 활동 내용
3. 평가 및 시사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고령여성 마을활동 참여 프로그램 : 실버액션단 활동 결과 분석

1. 실버액션단 운영 개요

조사결과 기반 현장 프로그램

Ⅲ장까지 찾동 마을계획단 사업개요 및 일반현황, 그리고 실제 인적 구성과 활동 내용에 대하여 젠더와 연령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특히 마을 계획단 참여 당사자들의 애로사항과 요구를 반영하여, 현장에 적용할 고령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요소들을 정리해보았다.

고령여성들은 기존 주민조직 및 활동체계 안에 있었던 경험 또는 마을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 등으로 인해 마을계획단에 자의·타의로 상당수 참여하기는 하지만, 내·외부로부터 형성된 몇 가지 한계와 편견을 극복해야 본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으로서 자아의 성찰과 분석을 마을활동에 연결시키는 것이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 의식고양과 실무역량 강화 양 쪽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령여성으로서 젠더와 연령 감수성을 체득하고 의식을 고양하는 데 있어서는 자아 찾기, 지역사회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해(돌봄과 살림의 가치 의미화, 여성주의 리더십 이해 등), 마을공동체 이해(주민주도, 민-관 협치 등)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무역량을 갖추는 영역에는 행정작업의 원리·원칙 습득, 의사소통 및 회의기법 훈련, 마을 역사와 문화 학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핵심요소들이 의제 제안과 해결방법 제시 및 실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형식 측면에서는 대형 강의나 일방적 강의 형

식보다는 소규모 그룹 사이에서 의견 교환이 가능한 방식을 선호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그림 IV-1 ■ 고령여성 마을활동 역량강화 핵심요소

	젠더·연령 관련 의식고양		실무역량 강화
나	‘나’의 이해	■ 나의 과거와 현재	■ 행정 원리·원칙 습득
	지역사회 여성의 역할 이해	■ 여성 리더십	■ 의사소통 훈련 ■ 회의기법 습득
마을	마을공동체 및 마을계획 이해	■ 주민주도성과 민관협치	■ 마을의 역사와 문화 학습 ■ 마을의 현재와 미래 전망

이제 이를 기초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로 운영해보았다.

실버액션단 운영 개요

실버액션단은 활기찬 노후를 위해 필요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시도하는 ‘주체적인 노인’의 활동을 구조화한 것으로 2개의 동에서 실시하였다. 2개동 선정과정은 서울시 찾동 2단계 13개 자치구 중에서 마을계획단을 운영하는 35개동 중 고령여성의 참여가 활발하고 참여의지가 있는 2개동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여의동과 공릉2동에서, 9월부터 주1회씩 총8회기에 걸쳐 운영하였다.

실버액션단 구성은 공릉2동 10명, 여의동 6명씩 60세 이상의 여성으로 구성하였으며, 참여자 모집은 각 동의 마을사업담당자가 마을계획단과 마을의 6080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홍보하여 희망자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자 모집기간이 각 동의 마을행사와 기존 마을계획단의 의제실행 단계와 시기가 겹쳐 참여자 모집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여의동에서는 계획인원보다 4명이 적은 6명이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1회에 2시간정도 진행하였다. 동별 주요 운영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IV-1】 실버액션단 운영 개요

구분	공릉2동	여의동
참여자	60* 여성 10명	60* 여성 6명
운영기간	2017. 9-10(8주)	2017. 9-11(8주)
장소	동주민센터 내	동주민센터 및 인근복지관
주요 의제	실버카페 내 실버도서관 제안	지역 내 복합세대커뮤니티 제안

참여자 총 16명의 연령분포는 만59세에서 만71세까지로 60대가 14명(87.5%), 70대는 2명(12.5%)로 60대가 절대적으로 많이 참여하였다. ‘6080’이라는 프로그램 설명문구로 인해 한국나이 60세(만59세)도 일반적으로 6080이라고 인식하여 참여대상에 포함시켰다. 참여자 그룹의 평균연령은 64.1세였다.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을 희망자 중심으로 한 결과, 70대가 적게 참여한 한계점이 있었다.



【표 IV-2】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번	이름	연령(만)	학력	직업(이전/현재)	혼인상태	마을활동 경험
1	a	66	고졸	자영업	기혼	마을계획단
2	b	71	대졸	회사원/주부	사별	없음
3	c	64	고졸	부동산업/주부	기혼	자원봉사
4	d	65	고졸	은행원/주부	기혼	마을계획단 자원봉사
5	e	62	대졸	자영업	기혼	없음
6	f	71	고졸	학원강사	사별	마을계획단 이웃사랑봉사단 어르신돌보미
7	g	66	대졸	주부	기혼	마을계획단

연번	이름	연령(만)	학력	직업(이전/현재)	혼인상태	마을활동 경험
						통장
8	h	65	고졸	주부	기혼	마을계획단 자원봉사
9	i	64	중졸	생산직	기혼	자원봉사
10	j	63	고졸	주부	기혼	마을계획
11	k	65	대졸	주부	기혼	마을계획단 주민대표
12	l	66	대졸	주부·학원강사	기혼	마을계획단 주민자치위원회 시/구 예산심의위원
13	m	59	대학원졸	기업 임원	기혼	마을계획단
14	n	59	대졸	교사·미술강사	기혼	마을계획단
15	o	59	고졸	의상디자이너/화가	기혼	마을계획단
16	p	60	대학원졸	교수	기혼	마을계획단

참여자 학력은 중졸 1명(6.3%), 고졸 7명(43.7%), 대졸이상 8명(50.0%)이었다. 현재 혼인상태는 14명(87.5%)이 기혼자였으며, 2명(12.5%)은 사별로 인한 1인가구였다. 이전 또는 현재 직업을 파악한 결과 주부 5명(31.3%), 자영업 3명(18.7%), 회사원 4명(25.0%), 기타 4명(25.0%)으로 과반수가 직장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참여 경험은 자원봉사, 종교활동, 그리고 마을계획단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마을활동 참여 등, 전체 참여자 중 2명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 참여자 중 16명 중 12명은 마을계획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경험이 있었다.

고령여성 단원 외에 실버액션단 운영을 위해 실무담당자, 촉진자, 교육 강사가 함께 했다. 먼저, 시추진지원단 마을분야에서 추천받은 촉진자(피실리테이터) 2명이 각각 한 동씩 담당하여 총 8회기에 모두 참여하였다. 교육이 진행되는 3회기 동안에는 시뮬레이션의 방향과 목적을 맞추기 위하여 보조강사로서 같이 참관하고, 나머지 5회기는 직접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촉진자들은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양 동에서의 활동을 공유하고 평가와 계획을 세웠다. 또한 교육 강사는 1회와 2회에서는 여성운동과 풀뿌리운동의 오랜 경험을 가진 강사로 섭외하여 젠더와 연령 이슈를 담당하도록 했고, 3회에서는 마을사업담당자가 마을활동의 이해를 담당하였다.

회기별 목표와 세부적인 활동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실버액션단 프로그램은 주1회씩 총 8주간 운영되었으며, 1회에서 3회까지는 마을을 기반으로 한 젠더관점의 이해를 돕는 교육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세부 교육주제는 고령화와 6080여성의 사회참여, 그리고 마을계획의 이해였다. 이후 4회에서 8회까지는 6080여성의 눈으로 마을을 다시 돌아보고, 의제를 찾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워크숍으로 운영되었으며, 마지막 회기에는 함께 진행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실버액션단의 활동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를 모색하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운영되었다.

실버액션단 활동이 연구의 과정에 포함되어 분석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참여자 모두에게 알리고, 연구목적과 활용계획을 공유한 뒤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활동의 전 과정은 필드노트로 자세히 기록되었으며,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범위 안에서 촬영 및 녹음되었다.

【표 IV-3】 실버액션단 운영 개요

화차	구분	목표	주요내용
1	교육 1	사업배경 공유 및 주제 강연을 통한 참여자 동기부여	【오리엔테이션】 · 실버액션단 활동 안내 · 참석자 소개 【교육1_여성의 활기찬 노후】 · 여성과 나이듦 · 나와 마을
2	교육 2	여성의 사회참여 필요성 이해	【교육2_6080여성과 사회참여】 · 60대 여성 생애사와 나 · 여성과 리더쉽
3	교육 3	마을계획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의제해결 과정 이해	【교육3_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계획】 · 사례로 배우는 마을계획 · 마을공동체사업과 젠더
4	워크숍 1	6080 여성의 시각에서 마을 이해	【시뮬레이션 1】 · 6080여성, 욕구 기반 마을 다시 바라보기 - 여성으로서 삶 되돌아보기 - 영화속 주인공이 되어 삶 되돌아보기
5	워크숍 2		【시뮬레이션 2】 · 6080 여성의 시각에서 의제발굴 - 파티기획을 적용한 의제찾기 - 선배여성으로 마을 바라보기
6	워크숍 3	6080 여성의 시각에서 마을 의제 구체화 및 실행계획 수립	【시뮬레이션 3】 · 의제 구체화하기 - 실버도서관 계획 - 복합세대 커뮤니티 계획
7	워크숍 4		【시뮬레이션 4】 · 의제 실행계획 수립하기 - 실행방법 계획서로 구체화하기
8	워크숍 5	평가와 계획을 통한 마을에서 역할 구축	【결과 공유회】 · 실버액션단 결과발표 및 토론 - 선배시민으로서의 다짐 선포 - 향후 마을계획단 적용방안 공유

2. 실버액션단 활동 내용

1회차 여성의 활기찬 노후: 젠더와 연령의 이해 I

실버액션단 1회차는 참여자 소개와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참여자가 모인 가운데 실버액션단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모든 참여자가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자신의 경력을 중심으로 길게 자기소개를 하는 반면 사회경험이 없는 참여자의 경우 짧게 자신을 소개하고, 잘 부탁한다는 등의 관계 지향적인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자기소개를 통한 상호 파악의 순서에 이어 교육의 주요 내용은 젠더관점에서 노년의 문제를 바라보고, 노년이 스스로 리더이자 주체가 되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노년층은 경제와 사회활동으로부터 제약되는 현실을 인지하고 노후를 자녀 중심에서 벗어나 ‘나(노인)’ 중심의 주도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다른 노년과 함께 연대하여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노년이 갖고 있는 경험을 기반으로 세대 간·노년 간 호혜적인 문화를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 스스로 젠더의식을 갖고 스스로 변해야 하며, 아주 작은 그룹도 좋으니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만들어 다양한 창의적인 일들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선배시민으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재능을 나누되 안정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제도(노노케어, 타임뱅크 방식)를 적극 검토하고 제안하여야 한다(부록 “여성의 활기찬 노후” 실버액션단 자료집 참조). 60+ 여성은 탈가부장제와 탈자본주의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성장하여야 한다는 강의를 듣고 난 참여자들의 소감은 아래와 같았다.

노년이 리더로서 역할을 배울 기회가 적었다. 배움의 과정과 자리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
(참여자 h)

저는 젠더 개념 보다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선배시민이.. 제가 40세부터 시야를 넓히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남편이 정년퇴임을 하고 저도 60세가 되면서 내년을 생각할 때 사회에서는 한발 물러서야 하는 나이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긍심만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 선배시민으로서 역할을 해야겠다는..(참

여자 n)

참여자들은 강의를 통해 젠더관점을 이해하고 노년에 접어든 세대로서 노인이 주체가 되어야함을 인식하였다. 강제가 진행되는 동안 특정 참여자의 발언이 잦아지고 강의의 흐름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교육시간 내에 공개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 보다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불편한 마음을 몇몇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 참여자의 경우 담당자에게 불편한 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즉 참여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을 반영하여 다음회기에는 자발적으로 의사표현 방식을 지양하고,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보도록 조정하였다.

Ⅰ 그림 IV-2 Ⅰ 실버액션단 1회차 진행 모습



2회차 6080 여성과 사회참여 : 젠더와 연령의 이해Ⅱ

2회차는 III장 FGI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6080을 위한 여성리더십에 대한 강의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즉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리더십에 관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강의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부록 “6080 여성과 사회참여” 실버액션단 자료집 참조).

- 이전과는 다르게 ‘나’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자존감을 세워보자
- 모든 리더십은 유형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모두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힘을 발견하고 발휘하는 셀프리더십부터 시작하자
- 여성주의 핵심은 인간주의적이고 평등한 것이다. 내 삶에서 주체의식을 갖고 타인을 공감으로 읽어내는 힘이 필요하다
-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주도한다. 그 과정이 의미 있는 것이며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두 번째 강의를 듣고 난 참여자들의 소감은 아래와 같았다.

...나를(나에 대해) 알고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p)

그 동안 어떤 역할(직업)로 살았죠. 내년부터는 경제활동을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순위가 밀렸었어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었는데, 그것을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n)

교육(내용)과 현실이 벽(차이)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 000만해도 여러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아쉬워요. (참여자 l)

IV

▣ 그림 IV-3 ▣ 실버액션단 2회차 진행 모습



실버액션단 참여자들은 강의를 듣기 전에 ‘리더십’에 대해서는 주도형 리더십만을 떠올리며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는데, 실버액션단 안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부터가 리더십임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용기

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 그룹에서는 발표를 어려워하는 참여자가 몇 명 있었는데 한명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가 짧게나마 자신의 의견을 발언하는 변화를 보였다. 참여자들이 강의시간에 자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어려워하였으나, 참여자 모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자 모두 짧게라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3회차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계획 : 마을활동의 이해

노년과 젠더관점에 대한 2회의 교육에 이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찾동 마을사업’에 대한 강의를 통해 실버액션단의 목적과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였다. 본 강의에 앞서 ‘몸 풀기 시간’을 마련하여 워밍업(warming-up)을 유도하였다. 먼저 본 강의에 기대하는 바를 적어 이 시간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였으며, ‘요즘의 내게 필요한 또는 어울리는 낱말카드’를 선택하여 상호 서로 인사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타동의 마을계획단 사례를 통해 마을계획의 과정과 목적을 이해하도록 서울시의 동영상 자료를 보고 서울시 마을사업의 젠더분석(참여자의 성비 등)결과를 공유하였다. 1개동에서는 강사가 준비한 ‘마을 공원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모의 마을 계획’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의제를 선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2회기의 수업형태의 강의에서 동영상 시청, 몸 풀기, 실제 모의계획 수립 등 참여자 중심의 강의형태에 더욱 만족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실제 경험을 말씀해 주시니까 알기 쉽네요. 먼저는 학술적 교육이었고...(참여자 g)

그림 IV-4 실버액션단 3회차 진행 모습



4회차 6080 여성의 시각에서 마을 다시보기

의제발굴에 앞서 젠더관점에서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았다. 그림책 ‘엠마(글 웬디 케셀만, 그림 바바라 쿠니 / 느림보)로 토론을 시작하였다. 자식과 손주들이 다녀갈 때 마다 외로움을 느끼던 할머니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나중엔 작품 활동을 하면서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자신의 삶과 생활을 돌아보았다. 마침 유사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참여자 f를 참여자 h가 제보하며 적극 칭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6080여성으로서 나를 되돌아봄으로써 본인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욕구에 맞는 의제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제 3가지를 주고 ‘내가 좋아하는 일, 젊었을 때는 별로였으나 혹은 안좋아 했는데 지금 좋아하게 된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포기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는 7남매의 맏이(장녀)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아들을 공부시키느라 딸인 저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네 살이 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했어요. 예전에는 부모님을 원망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나이 들어 공부하면서 교수님들도 알게 되었고, 친구들도 생기고, 제 스스로도 젊어지고 늦었지만 컴퓨터 등을 다루는 것도 배우게 되고... 저는 어릴 때 체육을 잘해서 초등학교 때 00시 마라톤대회도 나가고 했는데 주변에서 여자아이가 말 같이 뛰다고 혼내곤 했어요. (참여자e)

대학가고 싶었던 것, 공부하고 싶었던 것.. 옛날이라 부모님이 대학은 안 보내 주더라구. 기

회가 된다면 대학 가고 싶어요. (참여자 a)

결혼해서 살다가 5년간 애가 안 생겨서 시어머니가 구박을 많이 했죠. 후에 연년생으로 애들을 낳았는데 늦게 아이들을 낳았으니 애들이 멍청할 거라 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가르쳤어요. 애들 다 가르쳐 놓고 대학가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아팠어요. 3개월 치료받고 나오니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버렸죠. 한 가지에 깊이 집중 할 수 없어서 꿈을 접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어릴 적 꿈이 실현된 거 같아 너무 기뻐요. (참여자 d)

엄마도 엄하셨고, 큰오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밤늦게 들어가면 오빠가 기다리고 있다가 혼나고 머리도 잘리고.. 결혼하니 시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6남매의 맏며느리로 53년 동안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 까지 귀 닫고, 입 닫고 살았어요. 어떻게든 하루는 간다는 생각으로 살았죠. (참여자f)

공릉1동에서는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아쉬웠던 부분들을 집약하여 ‘파티’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체험해 보았다. 파티의 기획자가 되어 조건을 설정하지 않고 하고 싶은 파티를 자유롭게 계획해 보도록 하였다. 파티에 꼭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양분하여 집단 토의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는데 주로 자신들이 평소 즐기지 못하거나 해보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주체가 되어 계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파티에 꼭 있어야 할 것

예쁜 꽃 장식, 마이크, 내가 그린 그림, 가면 쓰기, 와인, 한복 입기, 맛있는 음악, 음식, 장구, 민요, 색종이 접기 장식, 왕관, 풍선, 선물, 조명, 모자, 뽀족구두 신기, 드레스 입기, 제일 많이 웃긴 팀 상주기, 가수 노래 듣기, 밴드, 뷔페, 멋진 남자, 상대방 말 들어주기

파티가 재미있게 하기 위해 없어야 할 것

식순·인사말 없기, 먼저 가는 사람 없기, 말 적게 하기, 점잔빼기 없기, 지저분한 것, 막걸리, 소주, 술주정, 말 많은 사람, 인사말 짧게 하기, 상대방 말 잘 들어주고 비평안하기, 뒷담화 안하기

결국 ‘평소 하고 싶었던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생애를 심층적으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파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 없어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관공서 행사 등을 떠올리며 자신이 주체가 되어 개선사항들을 떠올려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맞추려는 의지가 강했으며 문제의식을 갖고 의견을 제안하는 태도는 다소 부족했던 점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었다.

여의동에서는 영화 ‘내가 죽기 전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을 관람하고 서로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영화는 열심히 살만 보고 살아온 여성이 노년이 되어 자신의 부고기사를 미리 의뢰하였는데 자신에 대한 주변과 가족의 평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삶을 되짚어 긍정적인 부고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과정을 그렸다. 노년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주인공과 같이 참여자들도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향후의 삶을 모색해 보았다.

시집살이를 30년 했어요. 시댁은 00동 나는 00동, 매일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었어요. 시댁을 잘 만나긴 했죠. 제가 막내며느리인데 시아버님 초상도 제가 치루었어요. 남편이 그걸 알아주는 거죠. 다른 건 고생한 것 없어. 제가 30~40년 어머니의 정신적 비서였던 거예요. 친구도 못 만나고, 돌아가신 후에 세상에 나오고 요리도 배우고 봉사도 하고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중략) 가끔 남편에게 내 성격에 어머니 시집살이 안하고 젊었을 때부터 나가서 일 했더라면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말도 하지만 그건 제 팔자고(웃음). (참여자 k)

【그림 IV-5】 실버액션단 4회차 진행 모습



5회차 의제발굴 : 파티기획에 적용해 보기 vs 선배여성으로 마을 다시 보기

본격적인 의제발굴에 앞서 공릉1동에서는 몸 풀기 게임으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이긴 사람 얼굴에 스티커 붙여주기를 하면서 참여자 상호간의 친밀감과 연대감 형성을 유도하였으며, 여의동에서는 2인1조 진행자의 구호에 맞춰 손을 움직이는 게임을 통해 친밀감과 협력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워밍업을 통해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릉2동 실버액션단의 경우 서로의 이해와 신뢰가 높아졌으며, 한사람의 잦은 의사표현 구도에서 참여자가 고르게 의견을 표현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활기차고 서로를 응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다른 6080여성들도 함께 ‘파티 같은 삶’을 주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을에서 찾아보려고 재강조하였다. 이에 참여자들은 지난프로그램 이후 파티장소 중심으로 마을을 조사하게 되었고 경춘선 공릉 철길, 철길공원, 태릉선수촌, 장미터널, 와인카페 0000 등 계절상 야외장소를 제안하였다.

파티기획은 실버액션단의 상징적인 활동으로 실버액션단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제안들을 경험함으로써 자신들의 억압되고 모순되었던 삶을 떠올리기 충분하였다. 결혼 후 직면하게 된 ‘여성으로서의 삶’을 떠올리기도 하였고, 집에서 ‘딸’로서의 희생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토론의 시간이 다소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솔직히 드러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혼 했을 때 내가 며느리가 아니라 노비인줄 알았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형님들도 노비아. 밥 먹을 때 전날 남은 찬밥을 따로 퍼두는데 그게 어머니와 며느리들 밥이야. 그래서 한번 다 섞어 버렸어. 찬밥을 먹으니까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친정에서도 8남매 계집애들 틈에 살아서 찬밥 많이 먹었어. 그래서 눈물이 막 나는데 남편은 방에서 맛있게 먹는 거야. 동시대 살아도 남자들과는 행복과 슬픔이 달라. 밥을 섞은 날 어머니가 찬밥을 찾는데 없으니 버린 줄 아신 거야. 그래서 ‘내가 섞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신거야. (참여자 h)

우리가 낀 세대예요. 위로 시부모님한테 잘해드리고 지금은 며느리한테 잘 해줘야 돼. (참여자 b)

파티기획과 자신의 삶을 접목한 다양한 토론들이 오고간 이후 파티기획에 관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 공릉2동 6080 여성 중심의 파티기획 결과물

1그룹	2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 b c, e, f, i • 장 소 : 은행사거리 • 준비물 : 민요, 장구 • 데 코 : 풍선장식, 조명설치 • 음 식 : 출장뷔페 • 프로그램 : 노래, 실버 국악·색소폰·하모니카 연주(000 선생), 자유 댄스, 댄스체조, 트리에 희망 적어 달기, 참석자 행복 미소 사진 출력 증정, 참석자 검은바지 입고 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 a, d, g, h, j • 장소 : 태능 선수촌 • 준비 : 차량(독거어르신 초대용) • 프로그램 : 자기이름 지어서 명찰 붙이기 오카리나 합주 노래(h, i, 00, g, 누구나) 춤/에어로빅(i, g, 누구나) 시 낭송(신00)



여의동 그룹에서는 2인 1조로 나누어 서로의 별명, 어린 시절 꿈, 여성으로서 자존감이 올라갈 때, 반대로 여성으로서 불편했던 점을 이야기하고 상호 대리 발표해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참여자 o님은 남편이 무시하는 말을 할 때 속상하고 남자로 태어나지 왜 여자로 태어났냐 하고 느꼈지만 살다 보니 본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어렸을 때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여자 l)

참여자 l님은 여자로 사는 게 싫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여자로 태어난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지금은 여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현실이 남자들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힘든 데도 돈 벌어야 되고 저는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잖아요. 내가 누구를 부양해야하는 책임은 없이 누리고 사니까(웃음). (참여자 o)

참여자 n님은 엄마가 되었을 때 여성으로서 자존감을 가장 크게 느꼈다고... 불편함을 느꼈던 점은 보수적인 시절에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귀가 시간, 여행 혼자 못가는 것, 이런 통제가 불편했었는데 그것이 습관이 도다 보니 지금은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뭔가 혼자 시도하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불편하다고...(참여자 m)

참여자 m님은 살아오면서 여성으로서 자존감을 크게 느꼈을 때는 아들이 두 명인데 장성한 아들들이 모든 것에서 어머니이자 직장선배이기도 한 자신에게 조언을 구할 때 본보기로 살아온 것에 자존감을 느끼신다고.. 여성으로서 불편했던 점은 직장, 가정, 시댁에서 내 의견을 개진할 때나 일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여자라 비하하는 시선을 느끼셨을 때 속상하셨다고...(참여자 n)

참여자 p님은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더 몰입할 수 있는 남성들에게 기회를 넘겨야 하고 본인은 가정을 챙겨야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써포트 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해야 했을 때 사회참여에 완전히 몰입 할 수 없을 때 여성으로서 아쉬웠다. (참여자 k)

참여자들이 여성으로서의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되돌아봄으로써 젠더감수성을 좀 더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마을의제를 찾기 위해 다시 마을을 돌아보게 하였다. 선배시민으로서 마을을 돌아보고 의제를 취합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들을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주민이 서로 모르니까 반상회 부활도 좋고 주민모임이 필요하다.
- 3) 경로당과 같이 노인층이 모이는 곳에 아이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 같이 셋팅이 되거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곳이 생기면 젊은 엄마들도 사용할 수 있고 손주를 돌보는 노인들도 사용 할 수 있다.
- 4) 재건축과 같은 문제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명회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여의도가 처음 계획 도시였던 것처럼 주민들의 필요 욕구에 맞게 거시적인 안목의 새로운 도시설계 계획이 필요하다.
- 5) 셋강 주변이 안전하지 못하고 우범지역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

다섯 가지 의제 중 도시계획과 같이 동차원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의제를 제외하고 마을계획으로 제안할 수 있는 의제로 안전을 정리한 결과 ‘세대복합공간 조성’

의제로 합의하였다. 다만 세대복합 공간을 새롭게 계획하기보다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00복지관)’에 대해 6080여서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기로 하였다. 6080 여성의 눈으로 공간, 프로그램, 콘텐츠의 설계와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지역에 새로운 복합커뮤니티가 설립될 때 새로운 제안을 해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Ⅰ 그림 IV-6 Ⅰ 실버액션단 5회차 진행 모습



6회차 의제구체화 : 실버도서관 vs 복합세대 커뮤니티 센터

실버액션단 4회차, 5회차가 진행되는 동안 젠더관점으로 다시 마을을 바라보고 의제를 찾아낸 뒤 제안된 여러 개의 안건 중 공릉2동 그룹은 실버도서관 제안을, 여의동 그룹은 복합세대 커뮤니티 제안을 의제로 정리하였다.

6회 몸 풀기 시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시도하였는데, 노래에 따라 한사람씩 동작제안을 하면 다른 참여자들이 따라하는 형태로 그동안 소극적으로 발언하였던 참여자들도 동작을 크게 창의적으로 제안하며 서로 지지하며 격려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그 동안 6080 여성의 욕구를 스스로 들여다보고, 6080 여성의 시각에서 마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파티기획’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적용하여 훈련한 것을 좀 더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시간이었다.

논의 결과 노인은 삶의 지혜가 있는 상징적 존재이므로 도서관과 밀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실버도서관’으로 의제를 최종 정리하였다. 마침 한 참여자의 정보에 의해 자치구에 6080 세대를 위한 공간인 실버카페가 설립되는데 이때

별도의 공간을 시니어를 위한 도서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의견을 모은 것이다. 어르신을 위한 도서관에 계획을 위치, 면적, 실내 환경, 보유설비,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내용으로 구체화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 정리는 아래와 같다.

표 IV-5 | 공릉2동 실버도서관 계획

1그룹	2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 b, d, f, h, j • 시 설 : 공릉동, 자동문, 문지방 없애기, 50평 이상 • 실내환경 : 딱딱하지 않은 의자와 낮은 책상 • 보유설비 : 다양한 시설들 • 프로그램 : 작은 액자 그림 봉사, 치이용자를 위한 안내 • 기 타 : 1일 3시간 작업, 수세미 뜨기, 포장, 매듭, 퀼트, 전통공예 배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 a, c, e, g, i • 시 설 : 법원자리, 태능선수촌, 100평 오디오 북, 확대경 • 실내환경 : 온돌방, 소파방, 자동문, 남향 1층 • 보유설비 : 음료·쿠키방(카페), 블록방, 생활영어교실 공간, 수다방 • 기 타 : 낚시공간, 네일아트공간, 공부하는 공간, 컴퓨터방, 수다방, 음악감상실

여의동 그룹은 5가지 의제 중 돌봄 문제와 복합커뮤니티 공간부재로 인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복합세대 커뮤니티 조성’에 관한 의제를 구체화 해보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단일세대 커뮤니티 공간과 복합세대 커뮤니티 공간이 갖는 각각의 장단점을 참여자 전원이 함께 모색해봄으로써 의제의 적합성을 검증하도록 하였다.

【표 IV-6】 단일세대 커뮤니티 공간 vs 복합세대 커뮤니티 공간의 장단점(논의내용)

구분	단일세대 커뮤니티 공간	복합세대 커뮤니티 공간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의 관심사 조성의 수월함 • 정보취득 • 원활한 소통과 친목도모 수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의 취미가 공통적임 • 여러 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가능 • 이웃 간에 건강한 관계 형성 •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음 • 효율성 때문에 비용 절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이기주의 발생 • 이용자간 갈등 발생 • 활기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배분의 어려움 • 융합할 수 있는 공간 형성 어려울 수 있음 • 주민들의 욕구 충족 가능



IV

복합세대 커뮤니티 공간이 단일세대 커뮤니티 공간의 장단점을 흡수하기 때문에 복합세대 커뮤니티 조성으로 의제를 최종정리하고, 실제 존재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6080 여성의 관점에서 다시 상상해보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즉 공간 구성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등 모두 열어놓고 다른 6080 여성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점이 없는지 중심으로 다시 모니터링 해보는 과정이었다.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과 없는 것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찾아보도록 하였다. 특정기관에 대한 내용이므로 결과는 생략하기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젠더관점에서 공간의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실제 존재하는 공간을 토대로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해 본 후 직접 상상에 기반하

여 설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룹활동을 진행했다.

Ⅱ 그림 IV-7 Ⅱ 실버액션단 6회차 진행 모습



7회차 의제의 실행계획 수립

공릉동 그룹의 몸풀기 게임은 감정이 표현된 낱말카드를 하나씩 이마에 붙인 후 그것을 당사자에게 몸으로 설명하여 맞추는 게임을 진행하였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을 성찰하는 시간이었는데 몸풀기 시간에는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반응하며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후 지난 시간에 수립한 실행계획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치구에 공간조성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면 6080 여성의 눈으로 공간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후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변화한 점, 같이 참여한 다른 참여자들의 변화한 점, 그리고 실버액션단 참여 후 어떻게 사회참여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선배시민으로서 스스로의 다짐을 적어 본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하는 방안을 스스로 모색하도록 하였다. 선배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실버액션단 종료 후 삶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다짐을 적고 공유하도록 하였다. 서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한 참여자도 빠짐없이 발표하고 피드백도 원활하게 주고 받는 모습이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IV-8 | 선배시민으로서의 다짐

1 이웃 사랑 실천
(먼저 만나서, 욕을 칠상으로 여기는 청소년을 작정)

2 흡사, 태너에 대한 교육과 주위 시범예!
(내도 모급적으로)

3 IT 시대에 맞춰 글방이 있는 시인문!
(나무도 실사, 생명 불꽃)

1 동네 청소하기

2 어른스름을 위한 봉사

3 열심히 노력하기

4 나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싶습니다!

1. 마을 활동을 많이 하고 어른인 돌봄도

2. 병원에서 봉사

3. 참여 할 수 있는 곳은 나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봉사 할 계획임

4. 나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1 동네 분들과 인사하기

2 마을 청소를 주민들과 함께 하기

3 어려운 이웃 돕기

4 지금 다니는 건강 디스코를 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무엇이 어려운 일이 없어도 인내심을 발휘한다.

2. 약을 위하여 목욕탕을 정돈한다.

3. 막연하게 대화를 많이 하고 봉사는 마음을 기쁘게 실천한다.

4. 나를 위하여 죽음 예약자 그림을 그리고 봉사에 활동을 할 것이다.

5. 나를 위해 건강 사랑하고 생애를 마음껏 쓴다.

1. 선택해서 내가 배운 미술 공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살고 싶다.

2. 내가 배운 직기를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다.

3. 몸이 불편한 이웃을 돌봐보면서 같이 도우며 살고 싶다.

정체시민으로서 일상생활 중 환경 살리기 차원에서
1. 쓰레기 분리수거에 앞장서서
차량순환과 에너지 절약 등, 각종 생활 용품 분리수거나 다지는 것을 행하지 않겠다.
2. 노인들 문화(맛집, 공연, 힐링, 힐링, 힐링, 힐링)
영양 교육, 노인적 병원, 건강한 식습관, 장석적 건강, 좋은 음식 보양, 발달장애
관련 바인드리스도 해보기, 궁정적 교육, 경제, 건강, 생활에 좋은 방법들을 주는
공간으로 영도당을 활성화 하고 싶다.
3. 단말을 지원하는 알뜰한 책방
제순으로 책도 봉사, 그림으로 소울 케어의 기쁨 주기, 가을 세 주기, 나만의 삶에
장거리 당일 여행 계획 만들기, 지방 후 행복찬 추억을 되새김과 공유할 수 있는
유연 날개 주기
4. 생활책방

1 나 자신들 위해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남을 위해 봉사할 수!

2 이웃간 함께 하기

3 한박니 즐겁게 행복하게 사랑으로 친구를 만나다!

4 시후에 정기 기쁘고 안녕 기쁨은 분기 있다!

항상 매너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손녀를 낳 할머니가 되었지요
고것도 70이 넘은 나이로요 그러나 전 지금이 참 필요로움 느껴요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이구나' 느끼며 할 수 있는 일
봉사도 하고, 책도 기부도 하면서 즐거움은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이 어디에 있다 찾아봅니다. 나 자신이 고공일역이라는 걸
느끼면서도 또 다른 문제 이 행복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1. 어린이, 청소년과 어울림 !

2. 어른신들 보살핌 !

3. 하모니카, 피아노 공부하기 !

IV

여의동 그룹에서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코끼리’를 묘사한 글처럼 자신을 묘사해보고 상호간의 누구인지 맞춰보는 시간을 통해 몸풀기를 하였다. 자신의 얼굴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사진을 보며 자세히 묘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처음에는 어색해 하였으나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시간을 가져보았다.

이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의제별로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물은 아래와 같다.

【 표 IV-7 】 여의동 실행계획서 작성 결과

1그룹	2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 m, n, o • 주제 : 마을과 복지관의 네트워크 파티 <p>1. 제안 배경 및 이유 마을과 복지관의 공통 목표는 소통, 삶의 질 향상, 문화생활 공유, 안전한 지역사회 (6080 여성들의 역할이 필요한 지점) 한곳에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활용도, 효과성, 홍보효과 증대, 시너지 효과</p> <p>2. 사업내용(방법,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EVENT” 공유, 함께 참여, 즐기기 • 주민 재능 발표의 장 형성 : 전시회, 아이들의 공연, 시니어 연주회, 젊은이들 공연 • 생활캠페인의 중심역할 : 청소, 눈썰기, 인사하기 • 복지관과 마을 공통목표 설정(프로그램 개발) → 참여 독려(통장, 아파트 주민대표, 복지관 홍보활동) → 이벤트 실시(참여, 함께 즐기기) • 추진주체 : 복지관 + 마을계획단 <p>3. 기대효과 전세대 주민모두 소통과 협력하여 살기 좋은 마을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모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 k, l, p • 주제 : 행복한 돌봄 행복한 세대교류 ‘돌봄공간’ <p>1. 제안 배경 및 이유 여의동 전세대가 어우러져 행복한 삶을 위해 돌봄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함.</p> <p>2.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직장인 자녀들과 부모들의 휴식과 돌봄이 필요함. • 조부모들과 아이들을 맡기고 프로그램 참여 할 수 있는 일시 돌봄이 필요함. • 책도 읽고 놀이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필요 • 아이들을 돌봄은 6080(남녀) 세대 인력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자원봉사 인력, 품앗이 <p>3. 추진주체 복지관, 동주민센터, 마을계획단(민·관)이 협력한다.</p> <p>4. 역할분담 : 6080 세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센터, 복지관 통해서 재능있고, 발표/공연 할 수 있는 인적 자원 DB, NW 형성 • 만남의 기회 만들기 • 공연/발표 1년치 계획(캘린더) 만들기 • 학교들과 협력 예) 학교축제와 연계하여 학교에서 전시, 공연후 지역주민을 위한 공연, 전시 기획 <p>5.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서로 알고, 보살펴 주고, 관심 갖는 • 우리 동네 사람들 • 안전한 우리 동네 • 행복한 우리 동네 <p>“여기에 6080 여성이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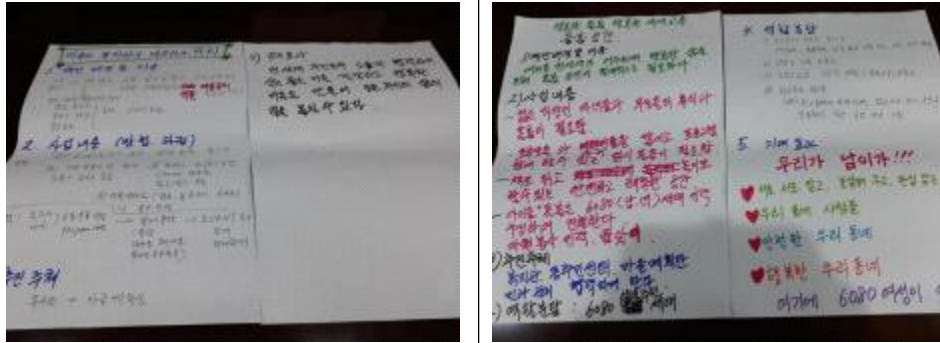


그림 IV-9 실버액션단 7회차 진행 모습



IV

8회차 최종 공유회 : 성과 공유와 지속 다짐

8회차는 그동안의 활동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통한 변화 그리고 이후 이것을 어떻게 사회참여에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신감이 없었고, 나를 사랑 안하고 모든 건 남편 위주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애들 우선적으로 두 번째로 하고, 나는 모든 걸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를 위해서. 근데 이걸(실버액션단) 함으로 해가지고 자신감도 생겼고 나를 사랑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보람 있고... (참여자 c)

나 자신이 가장 변한 것은 말도 잘 못하고 용기도 없었어요. 자신감도 없었는데 여기 나와 가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발표도 할 수 있고. 내 모습이 변했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자랑스럽

게 생각해요. 제가 실버액션단에 들어왔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워요. (참여자 j)

처음에는 내가 나는 이런데 안 와봐서... 자꾸 한 번 두 번 하다보니까 이제 여럿이서 모여서 하는 게 여러 사람들도 다 잘 하시고 친절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내 자신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건강해진 것 같아요. 자신이 건강해진 것 같고... (참여자 d)

처음에(첫시간) 강의하는데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그런데 즐거웠고. 그 다음에 또 걱정되면서도 기다려지고. 또 배운점이 있어요. 제가 몰랐던 거 또 배우게 되고 주변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서도 배우게 되고... (참여자 a)

봉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자원봉사도.. 그리고 마을에 대해서 옛날에 새마을 교육도 있었지만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구요. (참여자 b)

젊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았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점은 제가 많이 배워가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e)

저는 상대방 배려를 많이 하고 저를 챙기는 것 보다. 예를 들어 먹을 게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다 가져간 다음에 제 걸 챙기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단점일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걸 좀 버려야 되겠다. 좀 욕심을 내야 되겠다구요. 너무 양보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구요. (참여자 i)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어도 적극적으로 못하고 소극적이었어요. 항상 한쪽에 참여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마을계획단에 들어와서 또 실버액션단에 들어오고 나니까 액션하면 뭔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고 액션 그러면은. 그래서 많이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뭔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타인을 위해서. 그런 걸 느꼈어요. 타인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것을 액션단에 들어와서. (참여자 g)

놓치지 않고 꼭 붙들은 게 ‘어 그러셨군요. 괜찮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이번에 가장 큰 소득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나 딸이나 아들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면 ‘애 그러지마.’ 그건 위험한 거거든. 그랬다는 게 애들한테 얼마나 무겁게 다가갔는지. 제가 이번에 액션단하면서 추석이 중간에 있었는데 무슨 말 할 때 제가 그랬어. ‘괜찮아. 한번 해봐.’ 그전 같으면 ‘거길 왜 가니? 그 먼 나라를. 거기 가서 벌어들 돈 필요 없어 (참여자 h)

공릉2동 그룹의 경우 본 프로그램에 나와 남편과 자녀 중심의 삶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자신감 향상을 가장 긍정적인 변화로 손꼽았다. 또한 타인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많이 배웠으며, 전반적으로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많이 성찰하고 변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여의동 그룹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은 자신들의 소회와 함께 실버액션단을 통해 배운 것들을 마을계획단에 어떻게 적용, 접목할 것인가 중심으로 공유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버액션단 교육을 참여하면서 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참여 했었는데, 교육을 받으며 인생선배, 사회선배라는 칭호가 힘을 얻게 하였고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의 열정 또는 나에게 숨어있는 용기를 표출하게 만들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참여자 l)

저는 전업주부로서 재능기부 활동만 해오다 선배시민으로서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의 배움을 통해 소공동체 또는 반사회를 통해 재능과 의제를 발굴하여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비전 있고 추진력 있는 마을계획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k)

무엇보다도 함께 참여했던 분들의 다양하고 진지하며 열정적이었던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공감하며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참여자 m)

여성의 활기찬 노년에 대한 강의는 노년기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하는 신선한 시간이었다. 노년 계층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선배시민이라는 새로운 관점은 나의 노년을 상상해 보는 귀한 경험이었다. (참여자 n)

강의를 듣다가 이러한 현실과 좀 맞지 않는 내용들도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베풀고 봉사하고자 했던 나의 마음이 맞았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가족과 타인 중심의 삶에서 나에게 더 집중하고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o)

6080 여성의 눈으로 우리 마을의 작고 큰 변화와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p)

3. 평가 및 시사점

1) 주체의 성과

‘여성인 나’의 성찰과 ‘선배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재정립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버액션단에 참여한 16명의 참여자들은 고령여성의 눈으로 마을을 바라보기 위한 워크숍에 참여하여 각자의 삶을 여성의 눈으로 새로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졌다. 강의와 토론을 통해 가부장제에 익숙했던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는 불편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젠더화된 사회·문화에 대한 깨달음 속에 지금부터라도 남편과 자녀 중심적 삶에서 ‘나’ 주도적인 삶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면서 자존감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이러한 성찰은 여전히 남편과 자녀 뒷바라지에 바쁜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 노후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체적인 노후를 위해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실버액션단 참여자의 연령층이 60대가 대부분이었으나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었으며, ‘노인’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다분한 단어보다 ‘선배시민^{Senior Citizen}’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다. 부정적이고 의존적인 의미가 포함되곤 하는 ‘노인’ 보다는 ‘선배시민’으로 자신을 명명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후배시민들과 교류하며 마을의 고령친화성을 향상하는 주체가 본인들이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

6080 여성의 욕구 재발견

자신보다는 가족중심의 사고와 삶이 익숙했던 6080 여성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쉽게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욕구는 의제로 반영되는데 좀 더 여성과 고령을 위한 구체적 의제를 발견하기 보다는 자신을 제외한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고 의제를 모아내는데 익숙한 모습이 계속해서 관찰되었다. 한 그룹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6080 여성만의 파티를 기획하여 지속적인 욕구과약을 시도하였고, 한 그룹에서는 동네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동일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자의가 아닌 ‘딸이어서, 여자여서’ 상위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상실감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욕구들은 ‘도서관에 가보고 싶었다’, ‘공부를 원없이 했을 것 같다’, ‘공부를 했다면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표출되었고, 이러한 욕구들을 수렴하여 ‘실버도서관 제안’으로 의제가 정리되었다.

한편 다른 그룹에서는 충분히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경험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바빠서 이웃들은 전혀 돌보지 못했다’, ‘은퇴하고 나니 지역의 문제점들이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 해보고 싶다’와 같이 미처 마을에 ‘숙소’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던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지금은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즉 ‘나 또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와 같은 생각을 떠올리며 이를 ‘돌봄 공간과 인력의 부족’의 마을 문제로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복합세대공간을 건립하여 모든 세대의 문제 해결을 지원해줌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두 가지 의제를 정리하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하고 모아진 의제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다. 이렇듯 평소 여성으로서 스스로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더 다양한 의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실버액션단 활동을 진행한다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의제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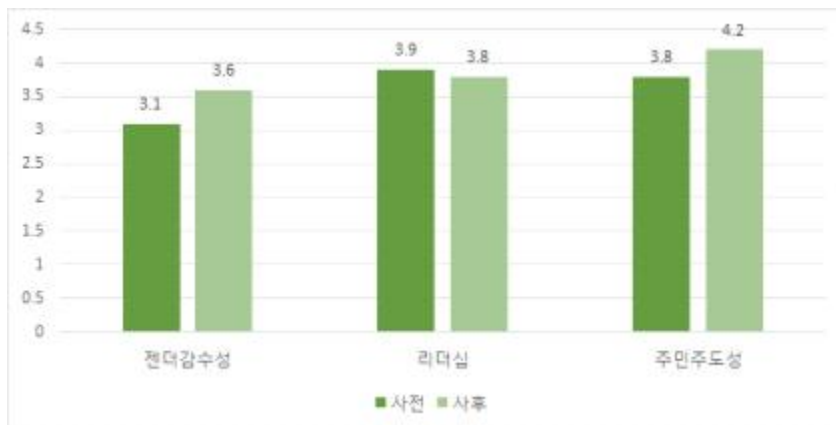
표 IV-8 실버액션단 활동의 회차별 성과

회차	목표	주요 성과
교육 1~3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동기부여 · 여성의 사회참여 필요성 이해 · 마을계획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의제해결 과정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간의 유대감 형성 · 서로의 삶 공유, 여성으로서 삶 공감 · 6080 여성으로서의 자긍심 회복 · 사회참여의 동기부여 생성 ·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 형성
워크숍 4~7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80 여성의 시각에서 마을 이해 · 6080 여성의 시각에서 마을의 제 구체화 및 실행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80 여성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기 · 성인지 관점에 대한 이해와 삶의 적용 능력 향상 · 타인의 생각과 이념 존중
워크숍 8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와 계획을 통한 마을에서 역할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80 여성 중심의 마을활동 공감대 형성 및 노력

젠더감수성, 리더십, 주민주도성 인식의 긍정적 변화

실버액션단 참여자들이 활동 후 젠더와 연령에 관해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척도를 적용하여 간단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질문지는 젠더감수성 5개 문항, 리더십 3개 문항, 마을과 지역사회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IV-10 실버액션단 전후 인식의 평균값의 변화



【표 IV-9】 실버액션단 활동 전후 인식 변화

번호	문항	공릉		여의		전체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1	여성은 직업을 가졌더라도 가사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2.2	2.0	2.3	3.2	2.3	2.4
2	남자는 남자같이, 여자는 여자같이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길러졌기보다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2.6	3.8	2.6	4.2	2.6	3.9
3	가정에서의 의사결정권은 아내보다 남편이 가져야 한다	3.8	3.8	2.8	4.5	3.4	4.0
4	남성은 여성보다 리더십을 수행하는 능력이 더 가지고 있다	3.8	3.8	2.6	4.2	3.8	3.9
5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하는 것을 좋아한다	3.5	3.5	3.3	3.8	3.4	3.6
6	나는 나이들어가는 것이 불안하고 서글프다	3.6	4.0	3.6	4.3	3.6	4.1
7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한다	4.9	3.6	3.0	3.8	4.2	3.7
8	노인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젊은이들에게 양보하여 기회를 주어야한다	3.7	3.7	2.8	3.7	3.8	3.7
9	나는 마을에서 필요한 존재이다	3.9	3.8	3.6	4.2	3.8	3.9
10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 정책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다	3.8	4.3	3.8	4.5	3.8	4.4

주) 1점: 그렇다, 5점: 아니다

전후 비교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5점 만점 척도에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프로그램 참여 전에 ‘남자는 남자같이, 여자는 여자같이 행동하는 것은 그렇게 길러졌기 보다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는 문항에 평균점수가 2.6점으로 ‘그렇다’ 라고 응답한 반면 프로그램 후에는 3.9점으로 ‘아니다’ 라고 응답하여 큰 폭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마을참여 대한 인식 역시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본인들이 마을에서 필요한 존재이며, 주민주도로 정책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다는 데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한편, 위의 두 영역과 달리 고령자의 참여와 리더십에 관한 문항에서는 긍정적 변화가 비교적 적었다. ‘나이들어가는 것이 불안하고 서글프다’ 문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쪽으로 변화하여 나이듦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젊은이들에게 양보하여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문항에 ‘아니다’ 쪽으로 응답하여 여전히 젊은 세대의 주도성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장유유서에 의한 노인존중이라기보다는 선배시민의 의견에 경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피력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운영의 한계

참여경로의 한계

참여자 모집을 기존의 마을계획단과 지역 내 6080 여성들 이용장소(노인복지관 등) 중심으로 홍보를 한 결과, 정보에 많이 노출된 여성들만 참여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6080 여성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보장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 실버액션단에 참여한 여성들의 경우 주변인의 추천과 제안에 의한 참여가 많았다. 이에 60+여성들 중심의 이용기관, 모임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마을계획단 단원 모집에도 동일한 양상이 관찰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고령여성들을 위한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민관 협조의 한계

실버액션단의 모집에서 운영까지 자치구와 동의 협조가 큰 역할을 한다. 이번 실

버액션단 운영을 위한 동 선정과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2단계 자치구 13개동을 중심으로 섭외를 시도했으나 마을사업담당자들의 협조를 받기 어려웠다. 그 이유로 자치구와 동의 마을관련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업무가 과다하고 업무시간 역시 불규칙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마을관련 인력들이 업무과중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였다.

다만 동 선정 이후 실제로 실버액션단을 운영한 공릉2동과 여의동에서는 참여자 모집에서부터 장소 섭외와 같은 실무적인 부분까지 마을사업담당자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 마을사업담당자가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공릉2동의 경우는 동주민센터를 위크숍 장소를 제공받아 접근성도 좋았다. 다만, 마을사업담당자가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를 같이 못했기 때문에 실버액션단 활동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유사 활동 진행시에는 마을사업담당자와 실무진행자 사이의 사전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향후 고령여성 마을활동을 위한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으로서 삶의 성찰과 욕구 재발견, 선배시민으로서의 자각은 주체의 역량강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운영 면에서 타나난 한계를 극복한다면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더 나아가, 향후 마을 단위에서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촉진자 역량의 중요성

위크숍 운영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촉진자(피실리테이터)였다. 그러나 젠더 및 연령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춘 전문촉진자를 발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본 실버액션단 활동에서는 적절한 촉진자들이 발굴되어 핵심적인 역할을 실제로 담당하였다.

실버액션단 활동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관점이 맞지 않아 갈등이 표출,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 당초 프로그램 기획 시 한회기에 욕구과악과 의제 발굴 그 다음회기에 의제구체화 등 짧은 시간에 진행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욕구과악 단계부터 매우 늦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거시적인 안목으로 의제를 발굴하려고 하여 조금씩 여성과 고령 친화적인 시각을 갖고 마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높이 조절과 관점 조정이 필요한 때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촉진자들이 역량을 발휘하여 그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다른 시각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련함이 발휘 되었다. 또한 의제를 구체화하여 계획까지 추진할 수 있었던 데는 촉진자의 역할이 매우 컸다.

진행과정에서 의사표현 촉진과 소통 측면에서도 촉진자의 역할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실버액션단 활동이 일방적인 교육 제공보다는 실제 마을계획단의 의제선정 과정을 행해보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했는데, 이 때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여 안건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참여자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발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착메모지를 나눠주고 모두 의견을 적은 후 한사람씩 발언하도록 하고,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발언하도록 해도 어려워하는 경우는 촉진자가 대신 읽어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에 점차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던 참여자들이 서서히 의사표현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공개적으로 칭찬하여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도록 강화하는 기술 또한 촉진자의 역할이었다. 이렇듯 고령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역량있는 촉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여, 향후 촉진자 발굴과 양성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기간 설정 필요

6080 여성의 시각에서 의제를 찾기 위해 욕구발견에 집중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에 당초 계획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에 첫 회기 이후 바로 의제발굴에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2회차 정도 시간이 지연되었다. 평소 성평등 이슈를 고민하거나 젠더관점에서 자신과 사회를 바라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라면 단 1~2회의 강의와 워크숍으로 완벽하게 마을 의제를 젠더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을의제 선정과 실행계획 수립 역시 단시간에 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분

실버액션단 활동에서는 의제 선정 이후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는 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즉 시니어도서관의 프로그램이나 서가구성, 복합세대 커뮤니티 공간의 시설활용과 예산 같은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나아갈 시간이 부족했다. 따라서 각 단계의 완료가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설정하고,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서도 시간과 프로그램 내용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을별, 구성원별 특성 고려

고령세대가 갖는 특성이 연령에 따라 기대되는 사회규범, 이들이 함께 살아온 시대적 배경에 의해 형성되기는 하나,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에 따라 동세대 안에서도 개개인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현재 6080세대 여성들의 경우 유교문화와 가부장제, 압축적 근대화와 민주화의 경험이라는 동일한 배경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한편, 개인이 처한 환경은 각기 다르다. 공릉2동과 여의동이 같은 연령대의 구성원으로 실버액션단 활동을 진행했지만, 두 동 구성원의 경험과 배경의 차이는 욕구의 차이를 만들어냈고 실버액션단 활동 내용과 의제 선정의 차이로 이어졌다. 구성원들이 상당한 고학력, 직업경험, 해외체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의동 그룹과 상대적 고학력임에도 더 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한 미련을 남기며 친족체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받아야 했던 공릉동 그룹은 분명히 다른 욕구와 활동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과 활동방향 제시에는 이러한 차이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또는 광역 차원의 정책과 달리, 마을 단위의 정책시행에는 소단위 지역구분과 그에 따른 특성의 차이가 특별히 더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기적 전망의 후속활동 필요

젠더와 연령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 실버액션단 구성원들은 본 프로그램의 종료와 함께 마을로 흩어져 흡수된다. 마지막 회차에서 참여자들이 실버액션단에서 익힌 모든 것은 마을계획단 또는 마을활동에 접목하여 실제 활동으로 녹여내야겠다고 다짐하였으므로 향후 개별 활동가로서 활약할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실버 젠더할

동가로서 이들의 활약과 과급효과는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단기간의 워크숍 결과로 향후 활동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후속 모임을 추진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확산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V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역량강화 방안

1. 정책방향
2. 세부과제
3. 연구의 한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V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역량강화 방안

1. 정책방향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찾동 마을계획 현황, 고령여성 단원을 비롯한 마을계획단 참여자(마을계획단장, 마을사업담당자)의 경험과 의견, 그리고 실버액션단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령여성의 마을계획단 참여와 관련한 한계점과 개선필요사항이 드러났다.

먼저 고령여성의 마을계획단 진입경로에 있어서, 현재 각 동에서 통장, 직능단체 회원 등을 위주로 마을계획단 모집을 하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참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현재 마을계획단에서 고령여성의 위치와 역할은 젠더와 연령의 통념에 따라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 수적으로 60대 여성이 적지 않게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리더 역할은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결정 권한을 갖거나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가는 위치보다는 보조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고령여성에게는 음식 만들거나 인사 나누기 등 돌봄과 관련된 역할이 주어져, 가족 내에서 수행하던 전형적인 주부의 역할이 마을활동에서도 재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가부장제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오랜 기간 동안 학습해온 계획단 구성원 모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고령여성 당사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고령여성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원인에는 전 생애에 걸쳐 젠더의식을 고취시킬 만한 경험 부족과 자기 욕구를 자세

히 파악할 기회 부족이 포함된다. 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바로 알고 능력을 발휘하여 마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

고령여성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이들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환경의 변화도 필요하다. 현재 마을계획단의 구성은 연령분포와 성별비중이 각각 따로 집계된 정도에 그쳐 연령대별 성비조차 파악이 어렵다. 대략 파악할 수 있는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다양한 세대의 포함이 눈에 띄는 동도 있지만 대체로 청소년, 청년, 70대 이상의 참여가 적고, 다양한 가족형태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의제선정과 사업실행에 있어서 고령자에 관한 것들은 대개 고령자의 주체적 참여보다는 사업의 대상, 즉 돌봄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고령친화성 향상을 위한 의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령여성들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행정이 주도하고 있는 운영방식과 이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계획단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행정의 젠더의식과 노년세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고령여성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표 V-1 | 마을계획단 개선방향

영역	구분	현재	개선방향
참여주체 (고령여성)	진입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 직능단체, 기존 참여자 중심의 모집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진입통로 확대
	비중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비중 높고 활동력 있으나 리더역할에서 배제 • 고령자에 대한 편견 존재 • 돌봄역할로 역할 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여성 리더십 강화 • 전 세대 주민의 인식개선 및 세대간 소통 강화 • 돌봄과 살림의 가치 재의미화
	교육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의식 고취 경험 부족 • 자기욕구 파악 기회 부족 • 가부장적 친족관계 역할로 인해 사회활동 제약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여성 마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 젠더와 연령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기회 제공 • 지속적 교육으로 실버젠더활동가 양성

참여환경 (마을계획단)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고령자, 청소년, 비혼 1인 가구 등의 참여 부족 • 성별/연령별 참여자 통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의 다양성 강화 및 소수자 대표성 확보 • 성별분리통계 실시
	고령자 관련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는 사업의 대상/수혜자로 설정 • 돌봄 서비스성 사업으로 고령자관련 의제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사업의 대상에서 사업의 주체로 • 고령친화성 향상을 위한 의제 마련
	민관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주도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주도성 강화 • 행정과 주민사이, 주민과 주민사이의 소통 강화 • 행정의 젠더·연령 감수성 향상

고령여성의 활기찬 노후와 적극적 마을활동을 위하여 두 가지 차원, 즉 주체와 환경의 변화발전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고령여성 당사자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고령여성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환경, 즉 마을사업 추진 체계와 주민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주체의 측면에서는 실버액션단 운영의 경험에서 드러난 고령여성 참여 프로그램의 강화와 확산이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의 측면에서는 마을관련 인력과 참여주민 모두의 젠더 및 연령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구성원의 삶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이다.

2. 세부과제

1) 주체의 역량강화: 고령여성 젠더활동가의 발굴과 마을참여 활성화

고령여성 참여 프로그램 지원 및 확산

본 연구에서 시범운영했던 실버액션단 프로그램은 다른 고령자 교육들과는 달리 고령여성이 젠더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과 욕구,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령여성이 선배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을활동 참여의지를 높이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버액션단 사례를 활용한 유사한 고령여성 참여 프로그램을 동 상황에 맞게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FGI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고령여성들이 마을계획단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기는 하나 남성 리더의 보조역할에 머무르거나 젊은 세대에게 활동을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의 활동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는 데에는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더불어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선배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를 돕는 것이 여성과 나이듦에 대한 교육이다.

여성과 나이듦, 마을의 이해, 고령여성의 사회참여 의미와 같은 주제로 자신과 마을의 삶을 생각해보는 워크숍 형태의 교육이 바람직하다. 물론 단 몇 회의 프로그램 참여로 충분히 젠더관점을 갖게 된다거나 마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마을계획단 활동 초기에 고령여성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배치되도록 하거나, 계획단 밖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동주민센터, 기타 각종 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대상 프로그램에서 이같은 젠더교육을 차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버액션단과 같은 프로그램이 향후 모든 동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므로 가능한 전 동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계적으로 1)고령여성의 비율이 높은 동(또는 마을계획단), 2)지역 내 풀뿌리 여성운동 단체와 협력 가능성 등 자원이 있는 동부터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¹³⁾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시·자치구 추진지원단과 각 동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지원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3) 예: 고령인구가 높은 노원구, 지역여성운동의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중랑구, 도봉구(동북여성민우회, 동북여성환경연대 등)와 은평구(살림의료사회협동조합) 등

■ 젠더와 연령에 대한 이해를 도울 촉진자 발굴과 양성

마을계획 전문촉진자 제도에 의해 마을공동체 경험과 퍼실리테이터 자격을 갖춘 촉진자들이 선발되어 활동한다.¹⁴⁾ 본 연구의 실버액션단 활동에서도 드러났듯 이들 촉진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며, 이들 가운데 젠더의식을 가지고 고령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촉진자들을 발굴하고 필요한 교육을 추가하여 지속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 프로그램 표준안 마련 및 배포

각각 다른 구성원과 지역특성을 가진 동에서 일괄적으로 같은 모델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다. 다만 프로그램과 콘텐츠, 진행에 필요한 툴킷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동장 또는 유관부서 담당자와의 협의 체계 마련

공릉동과 여의동의 실버액션단 운영을 통해서 민관협조가 한계이자 향후 중요 고려사항으로 드러났다. 고령여성들에게 행정과의 소통과 협력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의제의 실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장이나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들이 고령여성들에 의해 제안된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작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의의 정례화(사전사후 포함 정기회의) 및 검토결과보고방식 마련이 필요하다.

■ 참여자 특성 고려

시범운영한 두 동 사이에서 나타난 차이에서도 알 수 있듯, 고령여성이 공유하는 시대적 배경과 마을공동체사업의 형식 등의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가지고 있다. 참여자 개인과 해당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 진행시에도 세부내용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14) 촉진자 선발 기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사회복지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활동 경험, 마을계획 촉진자의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 퍼실리테이터 자격이나 활동 경험 풍부, 주민대상 교육 및 워크숍 경험 풍부, 마을계획을 실행하는 ‘동’ 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6, 전문촉진자 활동가이드북, p.8)

개별 참여자의 욕구와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할 요소로는 1) 참여자 연령/건강상태, 직업경험, 마을활동 경험 유무·활동유형·역할, 가족관계(돌봄대상가족 여부 포함), 학력 및 교육수강 경험, 2) 마을의 주민자치 실행 역사,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정도, 지리적 환경(노인 시설 포함), 고령자 비율, 협력 가능한 시민단체, 동장·구청장의 협조 의지 등이 있다.

잠재적 마을활동가 고령여성 발굴

FGI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마을계획단 모집이 우선 통장, 직능단체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들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의 마을경험이 있는 여성들 외에도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수막만 보고도 참여를 결심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은 마을활동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직접적인 참여제의를 받을만한 영역 밖에 있는 여성들의 존재를 보여준다. 고령자들이 밀집된 복지관 등의 공간 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들의 협조를 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규 여성주민의 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보 시 막연한 문구보다는 마을계획단을 비롯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연속 활동 기획

단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후속 모임을 통해 새로운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연속적인 활동계획이 필요하다. 실제로 실버액션단은 8회에 걸친 모임이 종료된 후에도 여전히 SNS 등을 통해 일상적 소통과 접촉을 지속하면서 향후 활동에 대한 욕구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마을계획단 등 다양한 마을활동에 참여하면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단계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1회에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 활동성장단계에 필요로 하는 교육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한다.

【 표 V-2 】 후속모임계획(안)

1단계	2단계	3단계
-----	-----	-----

1단계	2단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나이듦, 마을의 이해 • 마을계획 단기 시뮬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구체화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마을전문가 등 관계자 간담회 진행 • 마을실버활동가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삶 자서전 쓰기 - 성인지 인문학 강좌 - 리더십 이해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공감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청년, 중년세대 교류 활동 계획 및 실행 • 마을실버활동가 네트워크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동 사례 공유 및 협력

■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네트워크와 고령여성 셀프디자인스쿨

지속적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고령여성 활동가 당사자, 촉진자, 관련 연구자, 여성 및 노인관련 단체 활동가, 마을사업담당자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고령여성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지역에 위치한 풀뿌리 여성단체들과 기타 단체들이 청년세대에 주목하고 고령여성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왔으므로, 이들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활동(강사활용, 강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활용, 공동액션 등)을 도모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 당사자인 고령여성들의 평가와 욕구를 바탕으로 연속적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일종의 셀프디자인스쿨을 지원하도록 한다.

■ 새로운 자매조직 만들기

회기의 마을계획단 활동을 마치거나 실버액션단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친 고령여성들이 후속 모임을 만들어 다음 프로그램 참여자나 마을공동체 후배여성들의 활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중년 여성들과의 연대 형성 활동을 도모하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후배여성들의 삶에 가르침을 준다고보다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다.

■ 고령여성의 활동 영역 확대

프로그램에 참가한 여성들이 실버젠더활동가로서 마을계획단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다양한 공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관 운영위원, 마을생태계 조성 활동가, 경로당 코디네이터, 찾동 서포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등의 자리를 마련하고 고령여성 마을활동가들이 경험을 살려 일할 수 있



도록 한다.

■ 그림 V-1 ■ 연속활동 방향



2) 환경의 조성: 마을사업의 젠더-연령 감수성 향상

마을계획단 구성 및 의제의 다양성 실현

마을계획단이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저학력, 고연령 여성일수록 참여가 제한적이기 쉽다. 진행과정에 등장하는 어려운 행정용어와 획일화된 회의방식을 지양하여 좀 더 쉽게 마을계획에 참여하고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령과 성별뿐만 아니라 청소년, 장애인, 성 소수자, 이주자, 비혼 1인가구 등의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기 참여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마을계획단에서 드러난 문제인 중도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단원 및 의제 할당제

마을계획단은 특정한 이해와 목적에 기반한 동아리와는 달리 마을주민 공동의 사

안을 고민하고 변화를 꾀하는 조직이므로, 가능한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쉽게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소수자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에 열거한 주민 집단의 대표성을 가진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기계적인 비율균형은 실질적인 다양성 보장을 해주지 못하므로, 할당에 의해 참여한 단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며, 단원 할당제가 갖는 한계를 의제 할당제로 보완하는 방법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고령자와 관련한 의제, 1인가구나 한부모 등에 관한 의제가 일정 비율 제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평등한 역할 배분과 평등지향 명시

FGI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고령여성들은 마을계획단 안에서 고령대한 편견과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습에 의한 역할분담을 지양하고 대안적인 역할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찾동 관련 사업매뉴얼에 성인지 관점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성, 다양성 지향을 명문화하여 모든 사업에서 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세대공감 프로그램 운영

마을계획단 구성원 모두가 타 연령층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대안적 역할분담과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 청년세대와 노년세대가 상호간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마을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노력과 목적의식적인 프로그램 실행이 필요하다. 하나의 집단 안에서 세대별 특성의 이해, 역할과 임무 설정, 가치와 신뢰 형성의 과정을 거치는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¹⁵⁾

15) 비영리단체에서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을 참고할만 하다. 선배세대와 젊은 세대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제시한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에서는 “밀레니엄 세대: 성장 / X세대: 안정 / 베이비붐 세대: 평가 / 베테랑세대: 기여”로 세대별 특성을 정리하고 각 세대가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 등을 공유하는 대화방식을 제안했다(프란시스 쿤로이더 외, 2015).

성별분리통계 실시

찾동 마을분야 중 마을계획 실태분석 시 성별분리통계 획득의 어려움이 있었다. 마을계획단의 성별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관련 모든 통계에 성별분리통계를 적용하여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찾동 주민자치 관련 인력의 성인지 교육 실시

찾동의 2대 목표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주민자치 실현이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주민에 의한 마을의제 해결이 필수 전략이다. 이 때 주민들의 역량이 잘 발휘되도록 지원하는 공공의 핵심인력들이 성인지 관점을 갖추고 일하는 것은 마을활동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동장, 마을사업담당자, 구 추진단, 전문추진자 등 마을사업 관계자 모두에게 젠더의식 함양 교육과 다양성 이해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그 중에서도 마을계획단에서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정책 및 사업 검토, 고령여성 당사자 및 계획단 핵심 관련자 FGI 뿐만 아니라 역량강화 프로그램(실버액션단) 시범운영을 실시하였다. ‘사업형 연구’ / ‘연구형 사업’이라는 형식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정책연구와 실천의 연계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명확하다.

우선, 고령여성 마을참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마을의 고령친화성 향상’ 또는 ‘고령여성의 역량강화’ 라는 대의의 실현에 기여하기에는 매우 부분적인 활동이라는 점이다. 마을계획단이라는 구체적인 장을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으나, 크나큰 목적을 실현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향후 다양한 영역·다양한 사업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이어져 조각을 맞추어 궁극적으로 고령여성의 마을활동 활성화와 고령친화적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한 정책이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실버액션단이라는 명칭의 프로그램 운영은 향후 각 동에서 실시할 사업의 한 모델 제시 의미가 있으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 동 단위에서 실행했으므로 여타의 동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기는 했으나, 운영주체가 동(주민센터 마을사업담당자 또는 관련 담당자)이 아니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운영주체의 성격이 다르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가능한 예산과 인력 풀의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또한, 제한된 조건에 의한 한계가 있다. 시간과 예산이라는 조건에 영향을 받는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단기프로그램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각 실행단계별로 고령여성 역량강화에 필요한 충분한 내용을 다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두 동의 후속모임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영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명료하게 입증하기도 힘들다.

그러므로 이후 각 동에서 사업을 실천할 때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액셀리서치 연구방법을 활용한 후속연구들을 통하여 연구성과가 집적되고 좀 더 개선된 결과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현정, 김윤정(2011). 노년기 사회적 배제의 실태 및 예측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323-334.
- 곽인숙(2015). 100세 시대를 위한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 발표대회 자료집: 122-127.
- 김귀영 · 윤민석 · 손창우 · 안현찬 · 권민영(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단계 사업 성과관리 학술용역. 서울연구원.
- 김분한, 김윤숙, 전해원(2007).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구조. 성인간호학회지 19(5): 92-103.
- 김영옥(2017). 노년은 아름다워: 새로운 미의 탄생. 서해문집
- 김영정(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608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시간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영정(2015).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역할 분석 및 여성참여의 지역거점 활용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로드리게스 쿤로이더, 헬렌 선희 김, 로비 로드리게스 저, 정상미 역(2015)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일하기, 슬로비
- 박경하, 김수영, 이민홍, 이현미(2012). 노인사회참여 사례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부산시 노인사회참여 종합지원 기능구축 시범사업 1차년도 평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박금식, 한동희, 남희은, 남미경(2011).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분을 위한 역할모형개발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성정, 최인희, 김승연, 장희영, 김주현, 서제인(2015).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의 위한 정책과제(Ⅲ): 지역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서울시(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7 업무매뉴얼(ver.2)-마을.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16a).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안 내서.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16b).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제도화 방안 연구.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16c).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기금 사례집.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2017). 2017년 제2차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 자료집-마을이 답하다: 마을공동체 성과풀이: 5-90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7). 실버액션단! 마을에서 펼쳐는 여성리더십! 실버액션단 시범운영 자료집.
- 선우덕, 김세진, 모선희(2012).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 노후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설민신, 최현주(2016). 노령화사회의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5(1): 99-108.
- 송미영(2008).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 성인지적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 한국노년학 연구 17: 49-72.
- 송인주정은하(2015). 2030 서울시 고령사회마스터플랜. 서울시복지재단.
- 신승배, 박지연(2015). 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아시아여성연구 54(2): 7-46.
- 안현찬(2017). DB로 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결과: 사람, 사업, 지원체계.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마을이 답하다, 마을공동체 성과풀이) 자료집: 2-49.
- 윤현숙(2016). 고령친화 커뮤니티란 무엇인가? Age-Friendly Community Initiatives 관점에서. 초고령사회 세대통합형 고령친화 커뮤니티 디자인.
- 이동욱(2012). 노인여성의 임금노동에 관한 태도와 사회적 인식: 공중과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젠더연구 16: 91-117.
- 이현주(2015). 여성노인의 가사·돌봄 노동의 젠더불평등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5(3): 141-177.
- 원준혁(2017). 성과지표와 주민의식 변화: 너, 나, 우리의 변화가 마을까지. 마을공동체 이슈 포럼(마을이 답하다, 마을공동체 성과풀이) 자료집: 50-84.
- 장미혜, 문미경, 최인희, 석재은, 노혜진, 김혜원, 정지연, 양아름(2013). 여성노인의

- 노후빈곤 현황 및 대응정책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희경(2012). '더-나이체제'와 여성의 나이. 여성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경희(2014).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참여활동과 가구형태변화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7: 53-62.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시 추진단·추진지원단(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2 단계 사업 3차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서울시.
- 최인희(2009). 노년기의 돌봄과 인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65-79.
- 최인희, 김영란, 염지혜(2012).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 한국여성개발원(2002). 고령사회대비 여성노인정책 수립방안 연구. 여성부.
- 한동희(2014). 고령사회와 액티브에이징 고찰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4: 31-51.
- 황인옥, 윤경아, 김은경(2007). 시설 생활노인의 거주만족도 수준 및 예측요인. 한국노년학 27(4): 847-860.
- Davey, J., Nana, G., de Joux, V., and Arcus, M., 2004, Accommodation options for older people in Aotearoa/ New Zealand, NZ Institute for Research on Ageing/Business & Economic Research Ltd, for Centre for Housing Research Aotearoa/New Zealand: Wellington, New Zealand.
- Knight, T. & Ricciardelli, L. 2003. "Successful ageing : perceptions of adults aged between 70 and 101 years" .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6(3), 223-245.
- WHO(2002), Active Ageing: A Policy Framework.

Abstract

Towards Age-friendly Communities Supporting Active-ageing: Female Senior Citizen' s Role in Neighbourhood Planning Group (NPG)

MI Hwa Heo, Manager,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Young Jeong Kim, Research Fellow,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Aging population is one of the biggest concerns in Seoul, with more than half of aged people being women. The policies are limited to care services for the disadvantaged elderly people only. Moreover, public tends to consider elderly women as a burden on younger generation rather than active citizens. However, elderly women themselves should get opportunities to play an active role in local communities. *Maeul* (neighbourhood, local community) provides appropriate space to promote active participation of elderly women, as they live for a long time and spend many hours there every day. Using Interviews and action research as main research methods, the study explores the ways in which older women participate in Neighbourhood Planning Group (NPG) emerging project as one of the recent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policies. After analysing the Focus Group Interviews with elderly female members, the leaders, and officers of NPGs, we organized two elderly women' s groups and conducted specialized programs for 8 weeks. We found that the proposition of elderly women who participate in NPGs is high, but their role tends to be limited to traditional women' s role, which is to support male leaders. Their role in their communities needs to be re-evaluated. Additionally, they often face prejudice from younger generations. The paper suggests the ways in which policies could empower elderly women as the leaders/initiators of local networks. To achieve this, some strategies that should be realized include developing continuous self-training programs for elderly women' s

IV

local leaderships, training local officers to consider gender/age-sensitive perspective, and/or offering programs for inter-generation communication.

Key words: elderly women, gender, aging, urban community, age-friendly community

부 록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부록 1 연구참여 동의서

6080 여성의 마을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면접조사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은 서울여성의 복지 증진과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활기찬 노후를 위한 마을의 고령친화성 향상 방안: 고령여성 마을활동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중심으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6080 여성들의 마을활동을 파악하고, 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6080 여성들이 마을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활동이 여성 참여자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들이 마을활동에서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하는 그룹 면접조사에 참여하시게 되며,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면접 도중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으며, 원하시면 참여 도중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내용은 차후 수행될 연구과정을 위해 녹음되오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면접시 말씀해주신 내용은 연구 및 정책 개발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시면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면접비를 제공해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번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4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담당자 : ***

연락처 : ***

동 의 서

나는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참여방법에 대해 담당 연구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연구책임자 성명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6080 여성의 마을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그룹 면접(참여 여성 당사자)

1. 참여자 개인 소개

이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기혼()	미혼()	이혼() 사별()
가족	자녀 ()명	기타 ()명	
분과명 / 역할			
직업			
거주지역	서울시 ()구 ()동		

2. 마을활동 참여 동기와 경로

- 1) 마을계획에는 처음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 2) 현재의 마을계획 활동 이전에 일(직업)과 지역사회 참여 활동 경험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3) 과거와 현재 마을활동을 하시면서 가진 포부나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3. 마을활동 참여내용(집단)

- 1) 마을계획단 내에서 어떤 역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마을계획단 활동 전반, 본인의 활동-시간투여, 분과, 역할)
- 2) 참여자의 구성과 역할은 어떠했습니까? (연령, 성별, 배경 / 고령자 및 여성 참여도)
- 3) 6080 여성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습니까?
- 4) 운영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졌습니까? (리더, 조직운영, 의사결정방식)
- 5)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6) 지역사회에 남긴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 7) 향후 더 많은 6080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마을활동의 의미(개인)

- 1) 마을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가족, 지인의 반응 포함)

5. 향후 개인경험 발전 계획

- 1) 향후 마을에서 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 2) 평소 마을활동과 고령여성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던 점이나 이번 연구에서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6080 여성의 마을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그룹 면접(마을사업담당자용)

1. 참여자 개인 소개

이름	성별	남 · 여
연령		
경력	(마을관련 업무 총 경력) _____ 년 _____ 개월	
마을계획단 인원	주요활동 인원 _____ 명 / 등록인원 _____ 명	
해당 마을	()구 ()동	

2. 마을계획단 운영 일반

1) 마을분야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시시오.

: 마을활동 및 마을계획단 활동 전반, 분과구성, 주요의제

2) 참여자의 구성과 역할은 어떠했습니까? (연령, 성별, 배경)

3) 더 다양한 주민들이 마을계획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홍보 방법 등)

4) 지역사회에 미친 마을활동의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5) 운영의 애로사항과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3. 6080 여성들의 역할과 참여활성화

6) 마을계획단에서 6080 여성들의 역할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7) 60세 이상 여성들이 마을계획단 참여를 통해 변화된 점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8) 6080 여성들이 마을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향후 계획

1) 1단계 마을계획 종료 후 향후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2) 평소 마을활동과 고령여성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던 점이나 이번 연구에서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내용

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시오.

6080 여성의 마을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그룹 면접(마을계획단 리더용)

1. 참여자 개인 소개

이름	성별	남 · 여
연령	만 세	
마을계획단 역할		
직업		
해당지역	서울시 ()구 ()동	

2. 마을계획 활동 내용

- 1) 선생님이 참여하신 마을계획단의 활동 내용을 소개해주세요십시오. (구성과정, 의제, 성과 등)
- 2) 참여자의 구성과 역할은 어떠했습니까? (연령, 성별, 배경 등)
- 3) 운영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졌습니까? (리더선출, 의사결정방식)

3. 6080 여성의 참여

- 1) 마을계획단에서 6080 여성들의 역할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 2) 6080 여성들의 활동 중 애로사항과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6080 여성들이 마을계획단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080 당사자와 주변환경)
- 4) 6080 여성들이 더 많이 활동하도록 단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마을계획단 전망

- 1) 마을계획단 참여 후 구성원들의 마을활동은 어떠하며, 향후 마을활동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2) 기타, 평소 마을활동과 고령여성의 관계에 대해 생각했던 점이나 이번 연구에서 다루어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마을계획 의제 리스트

1. 금천구

1) 독산1동

연번	마을계획 의제
1	마을 곳곳 담벼락 별화 그리기
2	눈이 번쩍 독산1동 -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캠페인
3	골목 환경 지킴이 - 폐기물 관련 안내자료 제작 및 배출 방법 홍보
4	안전한 독산1동 - 보행자가 위험한 사거리 안전 확보
5	어두운 골목길 밝게 개선하기
6	테마가 있는 독산1동 문화 축제 -주민 스스로 구성해보는 마을축제
7	소규모 바자회 개최
8	문화가 있는 독산1동 -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한 주민의 문화 활동 참여 기회 마련
9	독산1동 마을탐험대 - 마을 둘러보기를 통한 마을 의제 발굴
10	독산1동 마을 봉사단 - 지역 내 경로당 주방 및 화장실 청소
11	나눠쓰는 공구도서관 - 필요한 공구를 함께 나눠 사용 공유 경제 실현
12	독산1동 모여라 - 마을주민과 직장인 등 함께 모이는 공유 공간 마련

2) 독산4동

연번	마을계획 의제
1	모이재! 밥상데이(전입자초대, 다문화이웃, 홀몸어르신 등)
2	이웃과 함께 마을영화관 (마을활력소 모두공간)
3	텀벙텀벙 마을놀이터
4	우리동네 파자마파티(마을활력소 너나들방)
5	옐로우카드(안전반사판)제작 후 아이들과 어르신에게 나눔
6	우리마을 안전지도 제작
7	옥상텃밭조성-마을잔치-나눔문화형성

8	양심주차 스티커 캠페인
9	고보조명 시범설치
10	일방통행 노면표시 살핌이
11	마을담장 개선하기(유리조각, 쇠창살개선 등)
12	마을캐릭터(디자인) 정하기
13	골목청소 캠페인
14	재활용 정거장 만들기
15	분리수거 캠페인
16	마을소식 공유 및 알림
17	월2회 주제별 마을라디오
18	어울림마을축제
19	어울림마을사진전

3) 시흥5동

연번	마을계획 의제
1	어르신이 많은 골목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의자 설치 및 골목쉼터 환경 쾌적하게 유지
2	마을의 역사를 담은 벽화길 조성
3	주택가 골목마다 이동식 클리하우스를 설치하여 재활용 쓰레기 효율적으로 관리
4	겨울철 염화칼슘 보관함을 주택가에 확대 설치하여 겨울철 낙상사고 예방
5	우리 마을의 소중한 문화유적을 찾아내어 탐방안내도 제작, 탐방코스 개발하여 마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6	시흥 행궁복원
7	체험센터를 만들어 체험할 수 있는 기회
8	행궁 음식문화거리를 조성
9	매월1회 은행나무 시장을 중심으로 장을 열어 이웃, 지역공동체와 소통하며 시장 활성화
10	주민이 직접 마을소식을 전하는 라디오 매주 정기 방송
11	월간 마을신문 발행
12	씨앗 모아 마을화단 가꾸기 및 꽃모종 나눔
13	홀몸 어르신 또는 저소득 가정에 이,미용 봉사를 통하여 복지대상자 발굴

II. 도봉구

1) 방학1동

연번	마을계획 의제
1	방학역 4번 출구 만들기
2	아동청소년 공간 및 놀이 만들기
3	이야기꽃 핀 동네 화단 게시판
4	복지 사각지대, 이웃이 답이다
5	쓰레기 봉투 번호 실명제, 소각장 견학체험
6	안전횡단보도
7	청사초롱 소원등 길 만들기
8	마을에서 함께 키우는 아이
9	방학1동 거리축제
10	이야기가 있는 담장 만들기
11	어르신 쉼터
12	청.치.마 (청년공간)
13	마을활력소
14	도시재생 준비활동

2) 방학3동

연번	마을계획 의제
1	주민공청회, 공동체 마을학교 기획, 3일 학교(시물레이션), 마을학교 개교
2	마을청소 메뉴얼북 제작 및 홍보
3	지속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와 품앗이 청소
4	마을 축제 및 공연, 전시 기획, 마을예술단 모집
5	역사문화 들레길 조성
6	방학3동 공유공간 리플렛 및 지도 제작, 홍보 및 활성화
7	발바닥 공원 내 인공연못 수질개선 및 관리, 보행로 정비
8	생태종 자세히 알기 퓌말 달기 행사
9	관계회복 '예절학교'운영
10	이웃간 손편지 전달
11	신규 입주민 환영 위아래층 이웃 티타임 준칙화
12	살림평생교육 (나눔부엌운영)-살림 노하우 전수
13	주민센터 앞 인도 폭 좁은 길 보수, 안전한 인도 설치

14	청소년들의 안전한 자전거 통학을 위한 안전모 캠페인
15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체육시설 설립

3) 창2동

연번	마을계획 의제
1	학교 앞 비좁은 삼거리에 차로확장 추진
2	차량속도계 설치 및 신호등 개선
3	어둡고 비좁은 골목길에 CCTV설치 및 LED 보안등 교체
4	담장에 벽화를, 골목에 화분을,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5	우영마트 앞 교차로 차선 획정 및 주차로 정비
6	마을축제에 우리마을 사진전 개최
7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오래도록 기억될 주민앨범 개설
8	엄마와 아이의 우리말 대화가 힘든 이웃에 한글교실 개설
9	서로 배우는 다문화 요리와 언어교실 운영
10	주민센터 안에 주민간의 소통공간 조성
11	주민 자율운영진 구성 및 주민공간 거점 확대
12	명문대 중심의 진학지도 대신 아이들의 적성에 따른 맞춤형 진학설명회 개최
13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설계를 위한 학부모 정보나눔 모임 활성화
14	버리기 아까운 우산을 수리하는 우산병원 정기적 운영
15	주변 상가와 연계하여 우산이 있는 버스정류장 마련
16	창2동의제 실행을 위한 업무진행비
17	의제실행을 위한 우수사례탐방

III. 성동구

1) 금호1가동

연번	마을계획 의제
1	품앗이 놀이(부모커뮤니티)
2	아이아이 케어(고학년이 저학년 돌봄)

3	베이비시터 파견
4	할머니 스타강사 만들기
5	찾아가는 어르신 SNS 교육(마을정보 알리미)
6	어르신 말벗 나눔
7	독거어르신 안전지도 만들기
8	마을기자단 결성, 마을신문 발행
9	마을기록물 보존소 확보
10	벼룩시장(벽산아파트 303동 뒤편)
11	나눔마켓(골목길 공동체/ 공유경제)
12	금호장터마당 상설화(배수지 공원)
13	마을 휴먼 라이브러리 운영(사람책)
14	남녀노소 학습단 결성(어린이와 어르신이 함께하는 동화구연 등)
15	책읽는 마을과 공유서가 운영
16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17	골목길 가로등 설치
18	소화기/제세동기 비치
19	자전거 대여소 운영(배수지 공원)
20	꽃밭가꾸기, 마을텃밭 조성
21	도자기 벽화그리기
22	도심 버섯재배농장

2) 마장동

연번	마을계획 의제
1	마을 내 공유공간 알리고 이용하기
2	마장동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
3	신규 주민소통공간 조성 추진
4	마을공터 활용하기
5	기네스파크 주변 안전한 야외쉼터 만들기
6	반짝반짝 빛나는 마조로 16길 가꾸기

7	한양대와 함께 30통 뒷산 가꾸기
8	걷고 싶은 청계천 만들기
9	골목에서 시작하는 작은 테마거리 만들기
10	사근램프 진입로 상습 교통정체 개선
11	마장동주민센터 삼거리 횡단보도 신호체계 개선
12	마장역 삼거리 우회전차량 사고방지(실행결정)
13	세차장 이용에 따른 주말 교통혼잡 개선
14	마장역-축산시장-청계천 잇는 마을버스 운행
15	마을버스(성동02)버스정류장 추가 및 이동
16	마을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 증편
17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만들기
18	마장초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19	동명초교 담벼락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
20	30통 일대 골목길 안전펜스 설치(실행완료)
21	30통 일대 안전알림판 설치하기
22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23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하기
24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주민활동
25	재활용 쓰레기 분리대 설치
26	EM활성액을 활용한 마을 가꾸기
27	노후주택가 정비하기
28	주민과 상인이 함께 하는 축산물시장 환경개선 캠페인
29	축산물시장 인근 주차환경 개선(일부실행)
30	축산물시장 유지 공동처리장 조성
31	주민과 상인이 함께 하는 소통모임 만들기
32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마을일자리 만들기
33	세림아파트 후문 골목시장 활성화
34	마을여행코스 개발 및 마을해설사 양성하기
35	주민이 함께 나누고 배우는 동아리활동 활성화
36	시니어 건강동아리 운영하기
37	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학교 운영하기
38	우리 동네보물 청계천박물관을 찾아서
39	마을에서 가족과 이웃이 봉사활동 함께 하기

40	마장동의 역사와 문화유적 알기
41	마을운동회 개최하기
42	이웃과 인사하기 캠페인
43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마을축제 만들기
44	마장동, 벼룩시장에서 만나자!
45	도서관 건립 추진
46	마장역 지상 엘리베이터 설치(실행결정)
47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
48	주민의견을 반영한 한전부지 개발 추진
49	지역 내 고등학교 설립 추진
50	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또는 리모델링 추진

3) 성수1가2동

연번	마을계획 의제
1	교통섬을 성수동의 얼굴로
2	성수동 에코마을 프로젝트
3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네트워크
4	안전한 보행로 만들기 '상원길 인도설치'
5	마을의 담벼락을 갤러리로
6	서울 숲 마을장터
7	성수동 직장인과 성수동 체험공방과의 만남
8	서울숲 함께 걸어요
9	성수동 마을운동회
10	나의 꿈 찾기 프로젝트
11	도심형 청소년 캠프장
12	상상공장-마을이야기
13	게임예방교육-'게임하는 자녀, 고민되지요?'
14	가족이 따로 또 함께하는 '가족 힐링캠프'
15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배우는 '함께 배움 동아리'
16	시니어 해외여행을 위한 영어교실 '바디 랭귀지를 알려드려요'
17	마을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마을학교'
18	성수동 마을파티
19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부르는 '마을합창단'

20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즐기는 '성수동 마을축제'
21	땡땡! Bell Bell' 이웃은 사촌이다
22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
23	초보주민 이웃되기 프로젝트
24	안전한 횡단보도 만들어주세요(경찰청에서 방지턱 설치 완료)
25	어린이놀이터 개선 사업(서울시 창의놀이터 사업 선정) 주민협의체 만들어서 놀이터 설계

4) 행당1동

연번	마을계획 의제
1	보행 중 금연, 불법광고물 부착 근절 캠페인
2	쓰레기 투기 방지 CCTV 설치
3	소월아트홀 광장 유아놀이터 만들기
4	어린이 안전도로(행당초~구립도서관) 조성
5	노인 대상 체조교실, 땀뜨기, 웃음치료 운영
6	청소, 방법, 교육 자원봉사
7	마을 벽화 그리기
8	주민 재능나눔 콘서트
9	숲전문가와 함께 하는 마을 주변 생태체험
10	EM발효액 등 친환경 제품 함께 만들기
11	SNS를 통한 아이돌보미 정보 공유

IV. 성북구

1) 길음1동

연번	마을계획 의제
1	신속한 문화복합공간 건립(도서관, 스포츠센터 등) 촉구
2	길음로15길 급경사 열선공사
3	아동급식 지역식당 연계 지원
4	6단지 상가 앞 불법주차 금지 계도
5	주민센터 별관 주차장 운영
6	나눔(재능기부)가게 운영
7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시행

8	신바람 건강체조 교실
9	길음로 화단 정리 및 가로수 정비
10	마을계획단 자원봉사단 운영
11	대우아파트 앞 보도 미끄럼방지 손잡이 펜스 설치

2) 동선동

연번	마을계획 의제
1	상습흡연구역 환경개선
2	미아리 하부 굴다리 높이제한 표시
3	지하철 환기구 재정비
4	돈암초 주주변 안전한 등교길-CCTV 설치
5	동선동 자원봉사단
6	문턱없는 거리 만들기
7	아나바다 놀이장터, 공동밥상 프로젝트 운영
8	방과 후 아동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9	신나는 토요일 문화놀이터

3) 월곡2동

연번	마을계획 의제
1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지역 만들기
2	CCTV 설치(상그레빌 아파트 101동 옆)
3	역세권 토지용도 상향 및 북부간선도로 관련 주민서명운동
4	여성안심귀갓길 확대 및 순찰강화
5	장월로1길 33-4앞 안전하게 걷고싶어요
6	삼태기 신명배움터
7	상월곡역 4번 출구 주민센터 안내 표시
8	모기 없는 오동근린공원 만들기
9	동절기 미끄럼 방지선 설치
10	장월로1나길 CCTV 설치
11	KIST입구 버스정류장 폐쇄와 월곡중 버스정류장 이전 관련 공청회 실시
12	월곡중 앞 도로다이아트 사업 공청회 실시

4) 종암동

연번	마을계획 의제
1	정릉천 되살리기
2	마을둘레길 “북바위 둘레길“ 조성
3	버스정류장을 안전한 곳으로
4	청소년 쉼터 마련과 운영
5	종암동 청결단 자원활동 운영
6	고압선 위치 조정 정리
7	은행나무 거리를 깨끗하게
8	종암동 마을학교
9	PC 수리해 드려요
10	바람개비 마을(마당) 조성
11	종암동 소식공유 게시판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추지지원단 마을계획팀 (2016), 2016 찾아가는동주민센터 마을계획 제도 화방안 연구,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p.214-223

여성의 활기찬 노후

- 선배시민으로 발휘하는 노년의 리더십 -

김영옥 대표 /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1. 시작하기 전에

어제 혁신파크 맛동에서 70세 되신 노년여성 두 분을 만났다. ‘너무도 바쁜 와중에’ 짬이 나서 맛동이 기획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음식문화’ 에 오셨단다. 매주 서로 다른 요리사들이 각자의 요리솜씨를 뽐내는 이 맛동 행사를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몰라서 못 다니는 일은 없다’ 고 말씀하신다. 월요일에는 영어 배우기, 화요일에는 하모니카 배우기, 수요일에는 생협활동하기, 목요일에는 요가하기, 금요일에는 일어 배우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여기 저기 좋은 데 소풍 나가기. 이 두 분의 일주일 시간표다. 절친인 두 사람은 그야말로 손 꼭 잡고 일주일 내내 즐거운 배움의 여행을 다닌다. 하나를 배우면 적어도 반은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지만 상관하지 않는다는 이 두 ‘할매들’ 은 날개를 단 듯 가볍고 경쾌해 보였다. 생협활동이라 함은요? 나의 질문에 본인은 폐유로 비누 만드는 일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서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일을 배우신단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너무 바쁘다. 시간이 없다’ 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당연히 괴롭다기보다는 자신감에 충만한 ‘자랑’ 으로 들렸다. 인생의 이모작을 재취업으로 시도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 하는 노년남성들이 많다는데, 노년여성들은 ‘제멋에 겨워’ 각종 문화센터가 제공하는 무료 프로그램 사이사이로 ‘배움’ 의 여행을 다닌다. 아무튼 점점 더 무슨 활동인가를 계속 ‘하는’ 노년들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마주친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있는 모습을 보는 것에 앞으로는 우리 모두 더욱 익숙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서로 곁이 되어주면서 평등한 공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2. 연령차별주의: 나이가 적어도 나이가 ‘너무’ 많아도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이상한 나 이 나라

엄밀히 말해서 사람은 자궁 안에서부터 시간에 따른 변화 속에서 산다. 아니, 거의 시간에 따른 변화 그 자체로 산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의 존재로서 사는 사람의 사적, 사회적 존중은 연령대별로 달라진다. 이것은 연령대별로 달라지는 나이 들에 대한 명명들을 보면 명료해진다. 자란다(성장한다, 크다), 성숙해진다, 농익는다, 연륜이 쌓인다, 늙는다 등. 이 명명 중에서 특히 ‘농익는다’ 나 ‘연륜이 쌓인다’ 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이 들이나 늙음은 젠더화된 표상으로 이해되고 유통된다. 나이 들은 개인의 정체성이나 경험적·이념적 삶에 주목하기보다는 매우 상투적인 통념들 속에서 일반화되기 일쑤다. ‘로리타’, ‘청춘은 아름다워 / 질풍노도’, ‘자궁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꼰대’, ‘냄새나는 노친네’, ‘노슬아치’, ‘아줌마’, ‘아재’ 등등 나이와 관련한 문화적 통념의 예들은 찾아보면 수도룩하다. 이 모든 예들은 타자화의 전형들을 보여준다.



(며칠 전 ‘노년의 성’ 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노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가 물었을 때, 여러 사람이 입을 모아 ‘냄새난다’ 는 말을 했다. 확실히 사람 이해는 오감이 전하는 지각과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냄새에 대한 민감성이야말로 문명과 문화의 혼돈이 가져온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몸 정체성과 문명/문화 의식이 뒤섞여 차별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냄새다. 냄새 -> 부패 / 오염 -> 역겨움 -> 혐오로 이어지는 환유의 연쇄고리가 쉽게 만들어진다.)

나이 들이나 늙음의 경험은 몸에서 발생하고 몸에 새겨진다. 전자가 생물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리라. 나이 들에 관한 사회문화적 구성물에 대한 인식은 전자와 후자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즉 정체성의 이해 자체가 몸의 물질적 측면을 과도하게 소외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몸의 변화,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이 들에 관한 사회문화적 통념에 저항할 수 있는 대항문화의 생산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문화 생산물에서 문화 생산물로 이어지는 대항문화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인류학과

여성학은 일찍이 생애기술의 중요성과 대항적 힘을 강조해왔다. 아직 문화의 현장에 등장하지 않은, 즉 계속 진입을 저지당하고 있는 노년들의 모습/이미지는 음성/활자 목소리의 다성 울림에 힘입어 서서히 윤곽을 잡아갈 것이다.

그 한 예가 노회경 작가가 쓰고 여러 노년 배우들이 구현한 TV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였다. 세대 간 갈등은 이제 세대 간 전쟁으로 변질 기세다. 지난 ‘잃어버린 10년’ 동안 훼손되거나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지만 나이와 관련해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세대 간 대화나 연대가 아닐까. 인민들 사이에서는 아름답고 정치적으로 역동적인 세대 간 대화와 연대도 있었다. 밀양 할매들과 함께 놀고 먹고 투쟁한 사람들처럼. 그러나 저고용 비정규직화 저출산 고위험 등의 ‘문제들’을 경제구조의 전폭적인 전환이나 상생하는 사회적 관계로 풀려는 시도보다, 누군가를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그 문제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함으로써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 초/고령화 진단은 세대 간 심연을 너무 깊게 파놓았다. (“진짜 세대 간 대화가 가능하시다고 믿나요?” 라고 질문하는 2-30대들 앞에서 “그렇다”고 말하기는 참 얼마나 어려운지.)

3. 선배시민으로서 노년의 사회적 역할과 리더십

사회 모든 생활영역, 그리고 특히 일터에서 노년을 배제하는 연령차별과 비호감, 거부감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선배 시민(Senior citizen)’으로서 노년이 다른 연령대의 동시대인들과 호흡을 맞추며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진주는 선배시민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서 첫째,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둘째 적극적으로 나누기, 셋째 시간뱅크에서 기술과 지식, 자원을 나누기를 언급한다.

첫 번째로 언급한 자기 성찰은 다양한 선순환을 가져온다. 1일1선을 하는가 하면 글쓰기를 하고 후배들에게 지혜와 경륜을 전하기도 한다. “글쓰기는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다, 사람은 자기 얼굴을 쳐다볼 수 없다. 글쓰기라는 거울을 통해 지난날을 돌아보게 된다. 비록 기억될 만한 업적을 이룬 적도 없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지만 자서전을 쓰면서 스스로 꽤 충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취는 미약했지만 내 삶의 과정이 선했다는 것을 느꼈다. 젊은 시절의 시행착오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스스로 위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매일신문 2015 6.9)

세 번째로 언급한 나눔으로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나눔, 호혜, 그리고 시민참여로 순환되는 타임달러가 있다. 한 예로 구미 시니어 클럽에서는 ‘사랑고리’라는 지역화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타임달러를 주고받음으로써 호혜적 교환을 활성화시킨다.¹⁶⁾ 노노케어의 한 예다. 유사한 다른 한

으로 노년유니온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노년 세대의 역동적 움직임을 짐작케 하는 노년유니온은 늘 젊은이들의 봉사활동 대상으로 등장하는 노년 이미지와는 달리/맞서 능동적 참여로 운영되는 ‘서로 돌봄은행’ 을 만들었다. 이 은행에서 거래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며, 계좌이체까지도 가능하다.¹⁷⁾ 노년유니온은 내년에 노년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타임달러

미국 법률가였던 에드거 칸이 약 30년 전에 도입한 ‘타임 달러(time dollar)’ 는 1시간의 봉사를 1달러로 환산한 개념이다, 영국에선 ‘타임 뱅크(time bank)’ 라는 용어를 쓴다. 타임 달러는 호혜성에 기초해 쌍방향 서비스를 지향한다. 한 시간의 노동은 그것의 내용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이것이야말로 내게는 타임달러 또는 타임뱅크의 핵심으로 보인다. 노년이 되면 느린 삶을 살게 되고, 경쟁적 자본 축적에서도 해방되기 때문에 드디어 모든 노동의 평등과 민주적 대접이 가능해짐을 본다. 이 경험을 가치 있게 해석해서 빨리빨리 생산하고 일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소위 ‘젊은이들’ 의 노동에도 적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 희망도 품어본다. ‘헬싱키 시간은행’ 처럼 실제로 상품이 아닌 노동 그 자체를 교환하며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사례가 있다. 핀란드 내에는 모두 42개의 시간은행이 있다.

4. ‘추한 노년’ vs 아름다운 노년

많은 경우 사람들은 주변에 나이 든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특별히 전위적이거나 특별히 곱거나 멋있거나 특별히 순박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특별히 꼴불견스럽지 않는 한 나이 든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듯 사람들이 시선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노년에게 시선이 가는 경우들을 살펴보자. 특별히 전위적이거나 특별히 곱거나 멋있는 경우는 모든 노년들

16) [박정호의 사람 풍경] 구미서 ‘사랑고리’ 운동 성공회 김요나단 신부

<http://news.joins.com/article/19151141>

“현재 구미 사랑고리은행에는 1150명이 회원으로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소소해 보인다. 예를 들어 환자 돌보기, 책 읽어주기, 시장 봐주기, 차 태워주기, 정원 손질하기, 애완동물 돌보기, 편지 써주기,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치기, 합창 지도 등 사랑고리에 등록된 일만 100가지가 넘는다. 지금까지의 봉사가 주로 일회성 자선이었다면 타임 달러는 봉사가 봉사를 낳는 연속적 교환 행위에 가깝다.”

17) http://www.timebanks.or.kr/?article=menu03_02&category=&p=read&read=34&page=2&where=&keyword=

http://www.timebank생기랑마음달풀연연구소 소장s.or.kr/?article=menu03_02&p=read&read=50

의 존재론적·실존적 서술어가 되어버린 ‘여전히’의 상태고, 특별히 순박하거나 특별히 꼰불견스러운 경우는 기왕에 타자화된 노년의 위치가 더욱 강조된 상태다. 즉 한편에는 여전히 도전적이고 반골이시네요, 여전히 멋지세요, 여전히 고우세요, 라는 존중 아닌 칭찬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tv 프로그램처럼 도시인과는 완전히 다른 시골 노년들의 생활모습을 도시인들의 카타르시스를 위해 전시하며 박수치고 웃는 장면들이 있다. 둘 다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는 노년의 모습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노년이 과연 ‘여전히’의 뒷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더 이상 ~하지 않은’과 ‘여전히 ~한’ 사이의 줄다리기와 무관한 노년의 삶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는 건 아닐까. 이 강요된 비교를 벗어나 지금 여기에서 그 자체로 ‘~인’ 노년 존재일 수는 없을까. 실제로 노년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고 노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은 그들이 살아온 삶에 합당한 ‘존엄’이다. 노년 아닌 연령대 사람들이 노년에게서 발견해 감탄할 것은 젊음 유지가 아니라 존재감과 품위다. 그런데 요즘 노년에게서 가장 손쉽게 박탈되는 것이 존재감과 품위, 존엄이다. 지금과 같은 신자본주의 문화체제에서 결핍이나 결핍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마는, ‘더 이상 ~하지 않은’과 ‘여전히 ~한’ 사이에 긴 존재로 간주되는 노년이야말로 ‘충일함으로 빛나는 존재’가 될 확률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독립성과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근대화의 가치 체계는 신체적 쇠락과 그에 따른 의존성의 증가로 표시되는 노년을 손쉽게 주변으로 내몬다. 사실 노년에 대한 낙인은 선형적 시간 이해에 토대를 두고 있는 진보사관에 이미 뿌리내리고 있다. 시간은 균질적으로 이어지는 무수한 점들의 연쇄이며, 이 연쇄의 빠른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함께 내달리는 것이 (인생과 사회와 국가의) 발전이라고 가르친 자본주의 진보사관의 허구를 향해 철저히 절망어린 비웃음을 날릴 수 있을 때, 전위의 실험은 시작된다. 그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비웃음이 통렬하면 통렬할수록 그 실험은 의미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나이가 많을수록 그/그녀는 그야말로 문자적 의미에서 최전방에 있는 아방가르드다. 누구보다 앞서 있는 것이다. 『늙어감에 대하여』에서 장 아메리가 통렬한 언어로 밝히고 있듯이 그러나 노년은 장소적 의미에서의 ‘세계-내-존재’라기보다는 시간적 의미에서의 ‘시간-내-존재’로 산다.¹⁸⁾ ‘시간-내-존재’로 사는 노년의 최전방은 그러므로 실험적으로 헤쳐 나갈 미지의 장소가 아니라 그/녀의 내부에 고여 있는 미지의 시간들이다. 왜 미지인가? 계속해서 앞만 보고 직선으로 내달리느라 눈 여겨 보지 못한, 새기며 맛보지 못한 시간의 경험들이 깃들어 있는 결들이고 주름들이

18) 장 아메리 (2014), 『늙어감에 대하여 : 저항과 체념 사이에서』, 김희상 옮김, 파주: 돌베개.

기 때문이다. 노년의 전위성이란 여전히 생산과 소비의 톱니바퀴를 열심히 돌린다는 의미에서의 현역이 아니라, 오히려 미지의 시간 속으로 침잠해 들어가 이 시간의 주름들이 품고 있는 서사적 알들을 부화시키는 데 있지 않을까. 이것은 꽤나 흥미로운 선구자적 실험이 될 수 있다. 시간의 되새김질 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부화할지는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지의 자유로운 리듬에 몸을 싣는다면 부화하는 이야기들은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열고 다른 관점을 도입할 것이다. 새로운 해석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야기들은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철학적이고 예술이며 정치학이다. 철학은 언제나 놀라움의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던가. 예술이 선사하는 즐거움과 감동 속에는 언제나 놀라움이 있지 않던가. 놀란 만큼 움직여지고, 움직여진 만큼 변화시키고자 할 때 정치적 의제가 바뀌지 않던가. 이런 의미에서 시간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대단히 쓸모 있고 중요하다. 그리고 이 쓸모와 중요 속에서 나는 노년의 존엄을 본다. ‘첫’ 이 아닌 시간 속 ‘되새김’ 으로서의 질문들. 그럼에도,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질문들. 이 질문들을 품고 있는 노년(의 얼굴)들은 시선을 잡아끈다.

‘시선을 잡아끈다.’ 이것이야말로 본래적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이다. 미학에서는 감탄어린 응시가 오랜 시간 집단적으로 머문 대상 주위에 형성되는 영적 기운에 주목해왔다. 오로라(aurora)와 어원이 같은 아우라(Aura)가 바로 그러한 영적 기운이다. 아름다운 것은 주의를 끄는 것이다. 끌려서 관심을 갖고 오래 응시하면 그 대상은 더욱 주의를 끌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시선이 더 오래 걸집한다. 아름다움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작동방식을 환기하면 우리는 현재 지나치게 편협하게, 지나치게 뷰티 산업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는 ‘아름다움’ 의 좁은 길을 벗어날 수 있다. 노년이 시선을 끌 때, 그 끌어당기는 힘은 주름이나 잡티 없는 얼굴, 쳐지지 않은 눈이나 입, 혹은 날씬한 다리나 탱탱한 엉덩이에서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바로 그 자글자글한 주름들이, 갈색으로 변한 피부가, 쳐진 눈이나 입이, 근육이 빠져 납작한 엉덩이나 정맥류로 울퉁불퉁해진 다리가 모두 어떤 시간의 주름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시선을 잡아끈다. 되새김질 속에서 그 주름진 시간들이 부화시킬 이야기들, 질문들 때문에 그들은 존재감을 발산한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끌어당김과 응시, 응시와 끌어당김 사이에 구성되는 나선형의 움직임, 즉 시선의 정치학이다. 들러서 귀 기울이고 보여서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니 들리고 응시하니 보인다는 것은 정치학으로서의 미학이 출발지점으로 삼는 핵심 명제다. 그렇기에 우리는 노년의 몸을 억압하지 않는 태도를 먼저 익혀야 한다.

나는 나의 책 『노년은 아름다워: 새로운 미의 탄생』에서 8사람의 주름-이야기를 소개했다. 이들 모두 어딘지 모르게 나의 시선을 잡아끌고, 오래 응시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이 펼칠 ‘자기만의 노년기’ 이야기를 듣고 싶게 만들었다. 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름다움에 감동했는데, 이 아름다

움에의 감동이 이야기의 내용 때문인지, 이야기를 전하는 얼굴 때문인지, 목소리 때문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오히려 이들이 ‘전체’로서 ‘자기다움’을 내뽐었고, 그래서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말하는 것이 맞다. ‘어떤 노년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는 내 질문에 이들은 저마다 ‘자기다움’을 강조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을 ‘경험하며’ (나는 일부러,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것을 경험하며, 라고 쓰고 있다.) 나는 자기다움이 저절로 획득되는 자연적 속성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만나려 계속 애쓰는 가운데 생성되는 특질임을 확인했다.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형성해나가는 어떤 지속이 보였다. 삶이 녹녹치 않은데 자기답게 살겠다 결심해도 어떻게 자기답게 사는 게 쉽겠는가. 자기답게, 라는 말 자체가 이미 구조(주의)적 맥락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주체성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괄호치더라도 말이다. 이들을 소개하는 각각의 제목을 보자. 1) 취급이 아닌 존중을: “모든 나이는 살아볼 만하더라” (최현숙), 2) 파란만장이 모든 인생을 평등하게 만드는 거: “나는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공이었어요” (최영선), 3) 무대를 비우는 순리: “아래로 내려와 관객이 되는 것” (김담), 4) 노년의 품을 깨닫다: “노년들을 광장으로 초대하고 싶다” (이영옥), 5) 최선을 다해 시간을 달리다: “늘 현역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장이’로 남고자 한다” (윤석남), 6) 울력공동체로 버텼다: “내 나이? 투쟁하기 딱 좋은 나이지!” (밀양 할매들), 7) 여성 중심 생활운동의 실천가(군지 마유미), 8) 여성의 인권을 위해 쓰고 말한다(타지마 요코). 이들이 들려준 이야기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성공적인 노화’의 예들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나는 이들에게서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노화를 본 것이 아니다. 이들이 자기를 발산하는 모습 전체가 이야기와 어울려 만들어내는 끌림이 있었다. 물론 나는 ‘선배 시민’으로 이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에 중첩되어 있는 정치적 지향이 이들이 발산하는 아름다운 존재감의 부피를 두껍게 했다.

우리는 기능 상실이나 쇠락의 관점에서 ‘노년’을 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추한 노년은 인정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판단이다. 노슬아치라는 말에서 풍기듯, 나이 들었다는 게 무슨 그리 큰 자랑거리라고 유세를 떠느냐는 비판에는 긴 시간을 살았음에도 짧은 시간을 산 사람과 다르기는커녕 풀사나운 태도나 입장만 내세우니 ‘결이 되어 달라’ 청하고 싶지 않다는 배척이 깔려 있다. 결이 되어주겠다 할까봐 겁나는 것이다. 이런 노년을 두고 ‘자기답게’ 살면서 품위와 존엄을 지킨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런 노년에게도 자신의 이야기가 있다. 자기만의 시간에서 이야기를 숙성시킬 수 있다면, 귀 기울여 들어줄 청자가 있다면, 이들도 추한 노년만은 아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이나 노년의 인권을 말할 때, ‘나’의 자리가 어디인가에 따라 해석의 문맥이 달라진다. 현재 노년인, 혹은 장차 노년이 될 나의 자리에서 노년을 말하는가, 아니면 노년 ‘그들’을 응시의 대상

으로 둔 나의 자리에서 말하는가. 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각자가 자신의 소수자성에서 출발해야 하듯이, 나는 노년의 인권을 이야기할 때 가능한 노년을 ‘그들’의 자리에 고정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년인가 아닌가를 생물학적 연령에 입각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질병, 장애, 기능저하, 몸의 느낌, 나이로 인해 겪는 이런 저런 일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나의 자리는 노년의 자리와 조금이라도 겹칠 수 있다. 그 겹침의 자리에서 노년을 만나야 한다. 그곳이 노년의 자기다움이 제대로 보일 수 있는 자리다. 이와 함께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노년이 연령별로 살아온 삶의 역사적 맥락이다. 사람은 나고 자란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함도 품지만 그와 동시에 어디까지나 시대의 산물이다. 시대의 산물인 부분은 시대의 복합적인 이해 없이는 인정하기 어렵다. 나 같은 연령대의 사람이 노년에 관한 이야기를 전파하기에 적합하다. 노년이 되고 있지만 아직 노년은 아니라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노년에 관한 생각도 자연스러운 한편, 노년을 낡대라고 치부하는 세대의 입장도 가늠된다. 좋은 의미의 ‘낡 세대’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노년 상상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5. 가족과 복지의 애매모호한 관계

노년으로 사는 삶은 다양하고 다채롭다. 모양도 색깔도 내용도 여럿이라는 뜻이다. 저하와 쇠락, 상실을 노년기 삶의 핵심으로 보는 통념은 노년을 집단화·일반화시키면서 노년 개인들의 독자적 삶의 결들을 지워버린다. 그만큼 노년은 소수자 그룹이 되었다는 증거다. 서구의 노년들에 비해 아시아의 노년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존경을 받고, 가족/집 ‘안’에서 늙고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이중의 구조를 띤 위험한 허구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이 허구는 노년의 ‘삶의 질’ 일정 부분을 가족의 책임으로 할당하는 국가 복지정책의 알리바이가 되고 있다. 불효소송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하는 한편, 부담이나 짐이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다는 게 늙은, 늙어가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인 현 상황에서 가족/가정/집에 대한 저 오래된 통념이야말로 가장 도전받는 의제가 아닐 수 없다. 2016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1인가구는 34.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인가구가 21.3%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중 50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50대 이상이 52.8%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가정/집’에서 늙고 병들다 죽는 복된 삶의 이상은, 평등한 분배의 제도화라는 복지체제의 이상을 갉아먹는다. 나이 들어서, 누구에게든, 구차하게 애정이나 관심, 동정, 돌봄을 ‘갈구’하는 대신 평등한 분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물론 낫다.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자민당 정권이 ‘가정기반충실정책’을 추진하며 ‘가족은 복지에 포함된 자산’이라는 말을 내세웠고, 이것은 이후 ‘일본형 복지’의 원형이 되었다. 이 정책은 ‘머느리가 복지에 포함된 자산’이라는 뜻이 아니냐는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자민당은 2015년 현재 헌법개정 초안

에서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한다’ 는 문장을 헌법에 포함시키려 한다. 이에 대해 ‘고독한 죽음이전에 고독한 삶이 있다’ 고 말하는 우에노 치즈코는 ‘그렇다면 서로 돕지 않는 가족은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건가’ 라고 묻는다.¹⁹⁾ 나는 여기에 덧붙여 가족 구성원에 대한 논의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싶다. 고립 속에서 여러 기능이 저하하는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지켜봐온 사람 곁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혈연-이성애-혼인 중심 가족이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세대 간 동거를 정책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문양만 세대 간 소통이며 함께일 뿐, 모두 모여 얼굴 한번 보기 힘들고, 그 한번 모이는 것도 부담이어서 이사 나가는 구성원도 적지 않다. 가족은 무엇이며, 어떤 기능 어떤 의미 어떤 정체성으로 구성되는가를 비규범적으로 질문하고 논의하는 풍토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고, 여러 답들에 자율성과 가치를 부여한 뒤 그에 맞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외로움과 사회적 소외, 경제적 어려움 등의 대안적 해결로 가족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결국 노년 문제를 직시하지 않겠다는 태도일 뿐이다. 50대 이상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50%를 넘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혼자 사는 노년을 무조건 외롭고 고독하고 비참한 존재로 보는 것도 문제적이고, 마찬가지로 혼자 사는 노년의 외로움과 고독, 비참함을 공공의 문제로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적이다. 노후의 마지막 십 몇 년을 혼자 사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다. ‘집에서 살다 죽는다’ 는 것을 ‘가족 중 누군가의 동반 하에 살다 죽는 것’ 뿐 아니라 ‘혼자라도 집에서 살다 집에서 죽는 것’ 으로 이해하고 그 가능성을 다각도로 찾는 것이 필요하다.

6. 생물학적 젊음이 아닌 인류학적 존엄을

꿈꾸는 노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담담히 받아 안을 노년은 어떻게 가능할까. 모델 찾기와 모델 되기가 병행해서 활발히 일어나야 가능할 것이다.

19) 우에노 치즈코(2016), 『누구나 혼자인 시대의 죽음』, 19쪽.



7. 나가는 말: “사람들 덕분에 자랄 수 있었어”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책언니로 활동하는 엠건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감각 기르기, 성장의 이야기’ 다.

“나는 어쩌다보니 누군가의 성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이 되었다. ... 원래 가족도 아니고, 친동생도 아니고, 내가 낳은 애들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평생 신경 쓰이는 애들이 한 무더기로 생긴 것이다. 내 안에 개인주의가 너무 뿌리 깊어서 그랬는지, 시간이 이쯤 흐르고 보니 재들이 이전 정말 남 같지가 않다는 게 참 기분이 묘했다. 진짜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른들이 맨날 거들먹거리며 하던 말이라 좀 고깝긴 하지만 정말로 세상은 만만치가 않던데, 비교적 자유로운 지금 초등학교에 비해서 앞으로 겪게 될 중고등학교 과정은 더 개떡 같은 데 이걸 어쩌나. 문득문득 서글픈 걱정이 든다. 어떻게 해야 재들이 살아가는 게 조금이라도 덜 고달플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런 마음이 일이라서가 아니라, 진짜로 애정에 기반 해서 자연스럽게 든다고 해야 하나. 살면서 이런 관계성을 만나봤다는 게 애들한테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도 참 무거우면서도 고마웠다.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여덟 살 구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 인권오름 제 510호, 11월 23일자)

엠크건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성장에 개입하게 되면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잘 보여준다. 서로 살아온 환경이나 신념체계가 다르고, 추구나 취미가 다르고, 그리고 나이가 달라도 서로 상대방의 성장에 개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노년의 인권 문제도 조금은 편안하게 풀릴 것 같다. 성장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죽음을 앞두고도 성장은 계속된다. 나는 누군가가 내 성장에 개입하면 좋겠고, 나 또한 누군가의 성장에 개입하길 원한다. 이 개입의 상호/순환/연결고리가 나이로 인해 끊기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6080 여성과 사회참여

- 리더십, 그리고 '나' -

유경희 소장 / 생기랑마음달풀연구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1. 내 여기

1) 여성의 눈으로 세상보기

역사속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

이분법적 성역할 규정: 여성성, 남성성

성역할 사회화: 여자로 만들어지기. 길들여지기.

(여자는.... 여자라면..., 어떻게 여자가... , 여자가 잘나봐야...)

생애주기에 따른 과제

결혼, 출산/양육(모성이데올로기), 돌봄(보살핌).

가족형태, 의미, 관계, 구성의 변화

생산/ 재생산 영역의 구분, 그리고 변화...

* 차이와 차별

성차별적 환경, 사회적으로 만들어짐에 대한 인식. 공감.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 여성의 경험 중시, 존중.

사회화과정 속에서의 '나'의 모습

-> 나를 중심으로 한 여성의 삶, 일상의 문제 들여다보기

기회와 평등

권력과 권위

권력: 다른 사람들의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권위: 목적 달성을 위해 리더에게 부여된 권리

2) ‘지금 여기’ 에서의 ‘나’

나의 생애사에서 기억되는 순간(장면)들

* 존재감, 자존감, 자신감

2. ‘나’ 와 리더십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나와 리더십은 어떤 연결성이 있을까?

리더십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사람은?

나의 리더십 요소는?

1) 무엇이 리더십인가?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문헌, 학자들의 정의는 이러하다.

Webster사전: 어떤 과정에 있어 안내하고 방향을 제시함

RM Stogdill: 집단원들로 하여금 특정목표를 지향하게 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실제 행동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Hersey & Blanchard: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 살펴보자, 리더십에 대한 논의들...에 대하여.

(1) 자기계발? 잠재력의 발견, 동기부여

타고나는 것? 지위가 리더십을 만든다?

* 기성세대 우월증후군 Adult Superiority Syndrom(ASS)

개인 및 조직의 비전 실현을 위한 과정과 기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영향력 발휘, 능력 개발

- Leadership(참고)

L: Listen

여론을 수렴하는 사람

E: Energetic	정열적인 사람
A: Attention, Attractive	관심가지는 매력적인 사람
D: Dialigue Decision	대화와 타협에 능한 사람
E: Etic	윤리적인 사람
R: Reliance, Responsibility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S: Sacrifice	희생적인 사람
H: Humility	겸손한 성품의 사람
I : Intelligence	지식인
P: Persuasiveness	설득력을 지닌 사람

=> 여러분의 생각은?

(2) 리더십의 구성요소: 비전 · 목표 · 전략.

비전- 전망: 우리는 어디로(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가치: 우리는 누구인가?

대안: 무엇을 원하는가?

목표 - 조직(집단)의 성장, 개인의 성장, 함께 win-win 하는 것.

전략 - 자기 확신(자아존중감)

의사소통능력(관계형성)

입파워먼트(창조성) 인정(recognition)/ 권력(power)/ 영향력(impact/ influence)

전문성/ 성실성/ 배려성/ 감성/ 민주적 의사결정/ 추진력

참고자료: 리더십의 유형(예: DISK...):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주도형

호랑이, 탱크/ 나를 따르라, 불가능은 없다, 속전속결/ 능률적, 결과에 초점, 사실 강조, 중요한 것에

초점, what의 질문, 변화 도전 선호

- 자신감이 높다, 목표 · 결과 지향적이다, 도전에 의해 동기부여, 통제권을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교형

원숭이, 텔레토비/ 해피투게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친근, 격려, 너무 세세한 것은 싫어, 말이 많

음, who에 관한 질문, 변화 도전 선호

- 낙관적이다, 사람지향적이다, 사회적 인정에 의해 동기부여,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을 처리하기 힘들다.

안정형

거북이, 피라미트/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래 참자/ 친근, 지지적, 증명된 사실 강조, how의 질문, 변화 위험 감수 주저

- 정해진 방식으로 수행한다, 탐지향적이다, 현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동기부여, 변화를 두려워한다

신중형

시계, 컴퓨터/돌다리도 두들겨, 내 사전에 실수는 없어/ 정확, 장단점 제시, 체계적인 설명, why의 질문, 변화 위험 감수 주저

- 세부적 사항에 주의 기울이고 분석적이다, 과업지향적이다, 정확성과 양질을 요구하는 것에 동기부여, 비판을 두려워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기대가 높고 비판적일 수 있다.

=> 내가 지향하는 리더십은? why?

** 리더십의 변화(다양성)

권위, 확실성의 리더십 -> 다양성, 유연성, 수평적인 리더십.

‘나를 따르라’ 리더십 -> 정보화 사회, 평등 사회에 적합한 리더십.

- 수평적 구조화.
- 여성적 가치의 중요성 이해 및 수용(보살핌, 배려, 유연한 관계 형성 등)
- 긍정성, 감수성에 대한 가치 부여.

끼어들기 -> 세관 짜기, 새로 바꾸기

경쟁 -> 협동

개인적 힘 갖기 -> 서로 힘내기

① 인간 지향 - 자주성·창조성을 개발하는 리더십

- ② 공동체 지향 - 함께 가는 리더십
- ③ 변화 지향 - 비전을 추구하는 리더십
- ④ 평등 지향 - 민주적·수평적 리더십

2) 여성주의 리더십

성별과 무관

평등 평화 상호배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인간과 사회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여성주의리더십: “더불어함께리더십”

* 단체(조직, 공동체...)를 통한 리더십 향상의 의미, 중요성 - *****

자신의 삶속에서 주체의식을 갖는 과정. 타인을 공감으로 읽어내는 힘.

가족, 조직, 사회 변화에 영향력(논리, 정서, 협력)을 미치고, 전문화된 역량으로 활동 주체로 나서는 과정

여성, 가족, 섹슈얼리티, 노동, 정치, 지역자치, 인권, 건강권, 미디어, 환경, 생협.....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들의 역할 중요. 의미/ 변화를 위한 상호작용 필요.

* 리더십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여성주의 인식들(성별의 다름이 차별적 인식이나 행동양식이 아닌 차이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으로 이해될 것을 강조)에서 출발.

여성들의 역량강화가 주요 목표

관계적이고 소통적인 여성적 가치가 리더십의 핵심요소.

최종비전과 목표는 성차별 등 여러 차별들이 지양되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대안적 사회의 실현.

*** 여성 리더십 개발 위해 필요한 것들

진정성, 자기 이해와 자신감, 광범위한 시각.

사회에 대한 이해/ 변화에의 의지

지속적인 학습의지와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능력 등.

타인의 인정과 지원, 활용자원 등의 요소들의 균형 이루기.

=> '나' 와 리더십 연결해보자. '나' 의 리더십 자질(잠재성)은?

3) '나' 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1) 자기 진단:

나는 누구인가? 나를 정확히 알아보자

사회화과정 속에서의 '나' - '나' 의 정체성:

성역할 분석 · 힘의 분석을 통해 본 자신의 위치 이해.

남녀 차별적인 환경이 힘을 행사하는 데 미치는 영향.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으로서의 경험/ '일' 과 '가 정'

(2) '나' 와 리더십

내 안에 있는 리더십의 정체를 찾아내자: 누구에게나 리더로서 잠재력이 있다.

1) 리더가 되기 위한 전략과 준비, 노력 시도하기:

리더십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훈련을 통해 키워 나가는 것(경험 축적)

2) 자아정체감 찾기를 통한 자기 비전 세우기, 자기개발 하기:

내 문제와 만나기, 나 이해하기, 자기 수행?

* 자아 커뮤니케이션: 자기 자신과 스스로 의사표현, 소통하는 과정

3) 자신의 잠재적 능력 끌어내기: 바람직한 행동의 습관화/ 장점 키워가기

4) 자기 영역에 대한 개발전략, 전문지식 채우기, 다양한 경험하기: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의 핵심역량 찾기, 나만의 리더십 찾기

5) 내 주변에서부터 나의 위치를 자리매김해 나가기

상황 판단, 환경 분석, 변화를 위한 시도하기, 실행계획 세우기, 실천하기

6)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기:

- 멘토링: 선후배, 동료들과의 경험 공유, 공감대, 소통의 형성
- 7) 사회에 여성 리더십 키울 환경 마련 요구하기
- 8)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자.

** 임파워먼트 - 셀프리더십: ‘스스로 하기’, 자율성의 강조

자기이해/ 잠재력/ 자존감 향상/ 자기긍정/ 의지/ 시간/ 자원 활용 및 연계 / 자기표현/
타인의 피드백에 귀 열기/ 의사소통...

-> 자발적인 인식과 실천이 따르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일(동기부여)

나는, 지금부터(here & now)

나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고 챙긴다.

구체적인 목표, 비전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운다(design of life).

상호의존, 함께하는 것의 의미를 수용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small change : 작은 성과의 힘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주도한다. 그 과정이 의미 있는 것이다.

->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나’ 는 내 삶의 리더이다.

리더로서의 내용을 채우기 위한 잠재력 또한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찾기 위한 탐색을 서두르자!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계획
- 서울시마을계획사업 중심으로 -

고영희 마을사업담당자 / 여의동주민센터



마을이 커야 좋지만
무엇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마을, 깨끗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우리 마을 만들기
마을이 아름답고 잘 사는 곳이다.
마을을 위한 마을공동체



1-1 마을공동체란?

마을공동체는
주민들이 살면서 필요하고 어려운 것을 이웃이 함께 하고 만들고,
이웃과 함께 스스로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무임을 만들어,
이웃과 함께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웃과의 유대적 생활공동체입니다.



1-2 마을공동체의 개념



1-3 마을공동체 의미



1-4 마을공동체 사업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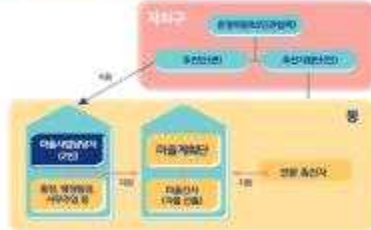
2-1 마을계획 사업 목적



2-2 마을계획 사업 개요

사업대상	마을계획사업 대상마을	마을계획사업 대상마을	마을계획사업 대상마을
사업기간	2023. 11. 1 ~ 2024. 11. 30	2023. 11. 1 ~ 2024. 11. 30	2023. 11. 1 ~ 2024. 11. 30
신청방법	각 지구별 공모에 따라 신청	각 지구별 공모에 따라 신청	각 지구별 공모에 따라 신청
지원예산	마을계획사업 예산액 100만원	마을계획사업 예산액 100만원	마을계획사업 예산액 100만원

2-3 지구별 마을계획 추진체계



2-4 마을계획 사업 진행과정



2-5 마을계획 사업 세부 진행과정

마을계획사업 신청	마을계획사업 신청서 제출 (2023. 11. 1 ~ 2024. 11. 30)
마을계획사업 선정	마을계획사업 신청서 심사 (2023. 11. 1 ~ 2024. 11. 30)
마을계획사업 추진	마을계획사업 추진 (2023. 11. 1 ~ 2024. 11. 30)
마을계획사업 평가	마을계획사업 평가 (2023. 11. 1 ~ 2024. 11. 30)
마을계획사업 결과	마을계획사업 결과 (2023. 11. 1 ~ 2024. 11. 30)
마을계획사업 평가	마을계획사업 평가 (2023. 11. 1 ~ 2024. 11. 30)
마을계획사업 결과	마을계획사업 결과 (2023. 11. 1 ~ 2024. 11. 30)

2-4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정책공유수다회

모든 마을에서 주민들은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행정조직의 도움을 받는 것밖에 없을 수 없습니다.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행정조직의 도움을 받는 것밖에 없을 수 없습니다.

정책공유수다회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행정조직의 도움을 받는 것밖에 없을 수 없습니다.

마을계획 실행을 위한 행정조직의 도움을 받는 것밖에 없을 수 없습니다.

2-2 마을계획 미래 사례: 금천구 독산4동

마을 혁신
- 마을 혁신
- 마을 혁신

마을 발전
- 마을 혁신
- 마을 혁신

마을 혁신
- 마을 혁신
- 마을 혁신

마을 발전
- 마을 혁신
- 마을 혁신

2-8 마을계획 성과

2018년 1차 마을계획 수립 | 2019년 2차 마을계획 수립 | 2020년 3차 마을계획 수립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9 마을계획 참고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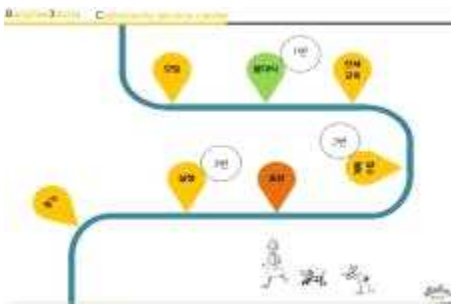
마을계획에 대한 다양한 참고 자료를 소개하는 영상 목록입니다.

마을계획 마을혁신	마을계획 소개
마을계획 마을혁신	마을계획 소개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계획

- 방학3동 사례 중심으로 -

김덕천 마을사업담당자 / 방학3동주민센터



질문 누가 마을계획단이 되어야 할까?


답변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통장님이나 반장님
 다양한 전문가들 사나이나 청소년
 시민사회 운동가 기존 마을활동가



질문 누가 마을계획단이 되어야 할까?

답변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리고 더 다양한 주민들이 모여야 하고...

모집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136명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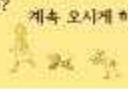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100인의 마을계획단 모집
 100인만의 통장 100명



질문 발대식은 모두의 첫 만남인데..


답변 국민의례는 필수기 내년도 초대하고
 팔이 오실까?
모집 행사장도 꾸미고 동원을 해야 하니?
질문 무슨 이야기를 하지? 계속 오시게 하려면...



질문 발대식은 모두의 첫 만남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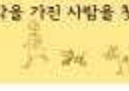
답변 주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절차는 걷어내고,
 마음으로 함께 할 마을계획에 맛을 느끼게...

모집 2시간 산나는 한번! '시간의 참이 달았다.'





모집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

질문 마을계획단인가? 마을계획단은?
 우리마을도 돌아오고
모집 마을 사람들도 만나보고 각자가 생각하는 마을은...
질문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찾아볼까?



모집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

질문 마을에 대한 각자의 시선과 서로의 시선을 확인하고,
모집 분과를 나누어 보는 것...
질문 8개의 관심 분야 결정





목적 본격적인 분과별 마을계획 수립

질문 얼마나 자주 만날까? 분과장은 누가하지?
우선 밥부터 먹으면서 할까?

답 내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과정

결과

목적 본격적인 분과별 마을계획 수립

질문 우리 마을을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방학3동 마을계획단 21의 마을계획!!

답

과정

결과 8개 분과별 주 1회 이상의 정기 모임 주 1회 분과장 정기 간담회



목적 제 1회 방학3동 마을총회 '주민이 주인이다'

질문 마을총회로 만들어 볼까? 총회의 목적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주민 투표? 우선 순의 마을계획!

답 우리의 계획이 마을에 영향을...

과정

결과

목적 제 1회 방학3동 마을총회 '주민이 주인이다'

질문 총회를 통해 마을계획을 알리게 되고 실행을 함께 할 주민을 모집하고...

답 우선 순의 마을계획 투표 진행 1,144명 투표 참여

과정

결과



Step 1.

우리 마을을
좋은 마을로
만들것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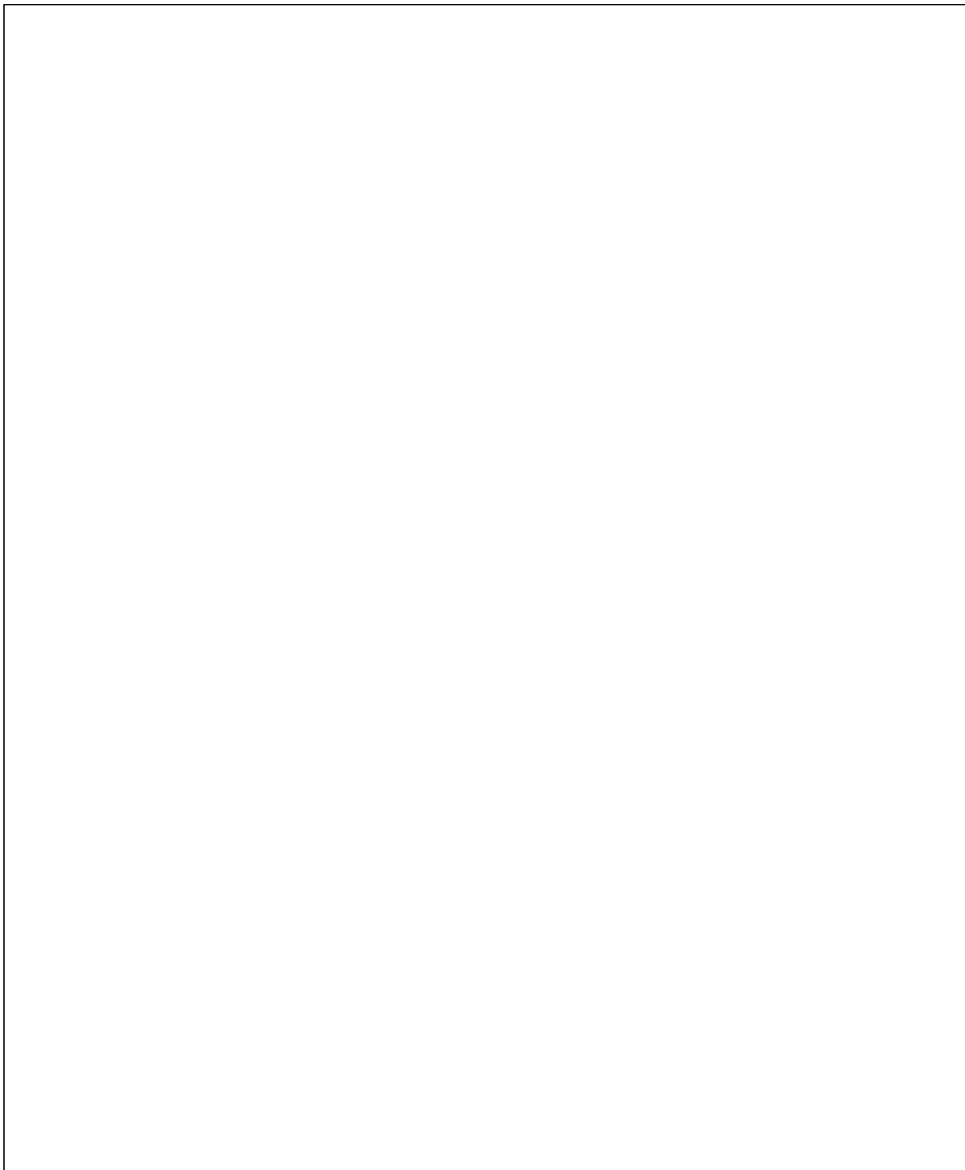
시뮬레이션 1

- 마을 다시 바라보기 -

윤혜경 강사 / 김복남 강사

Q. 6080 여성, 나의 욕구에 기반해서 마을 다시 바라보기

- 여성친화적이고 고령친화적인 의제 발굴을 위한 마을 탐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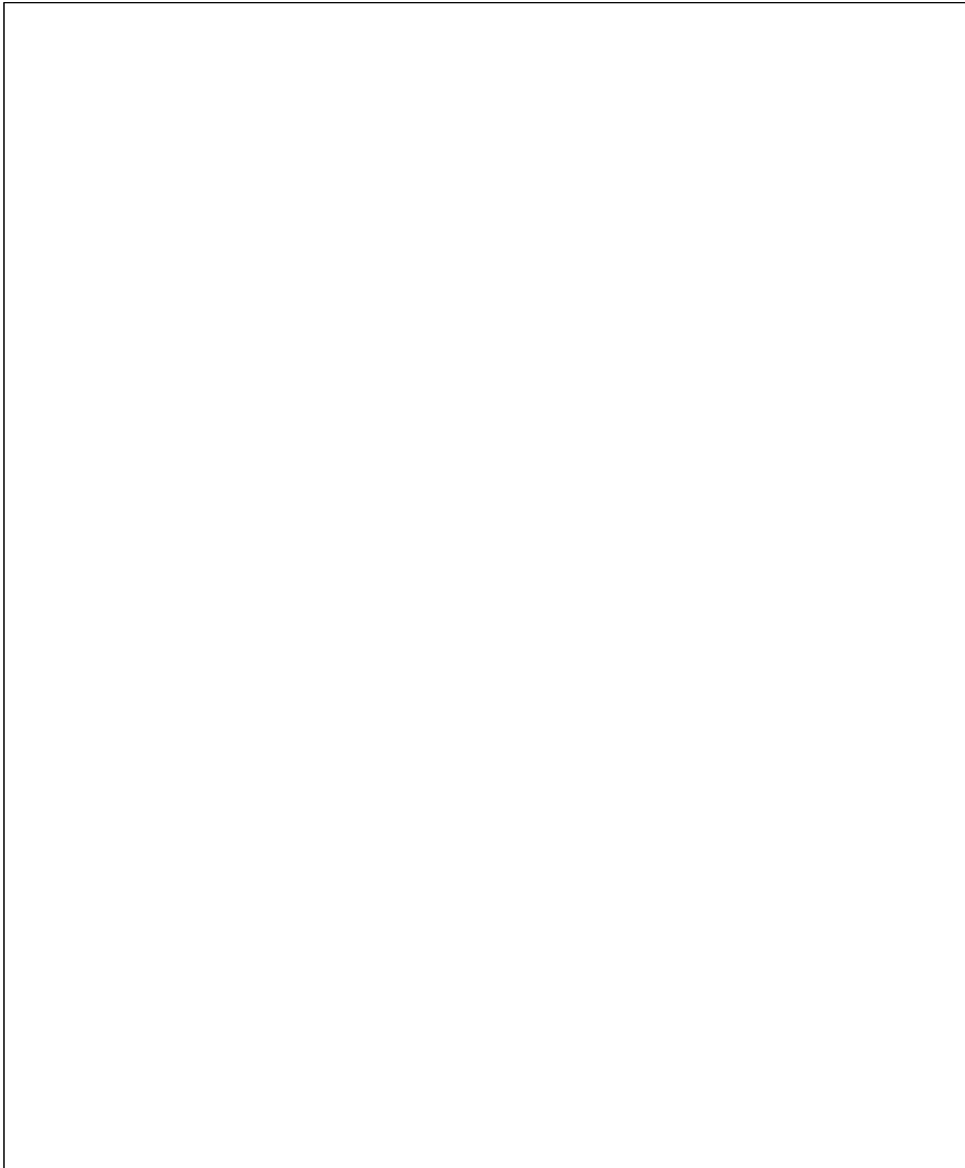
시뮬레이션 2

- 마을의제 구체화하기 -

윤혜경 강사 / 김복남 강사

Q. 우리가 찾아본 여성친화적이고 고령친화적인 의제 모아보고 구체화 하기

- 우리마을 자원, 우리마을 의제 찾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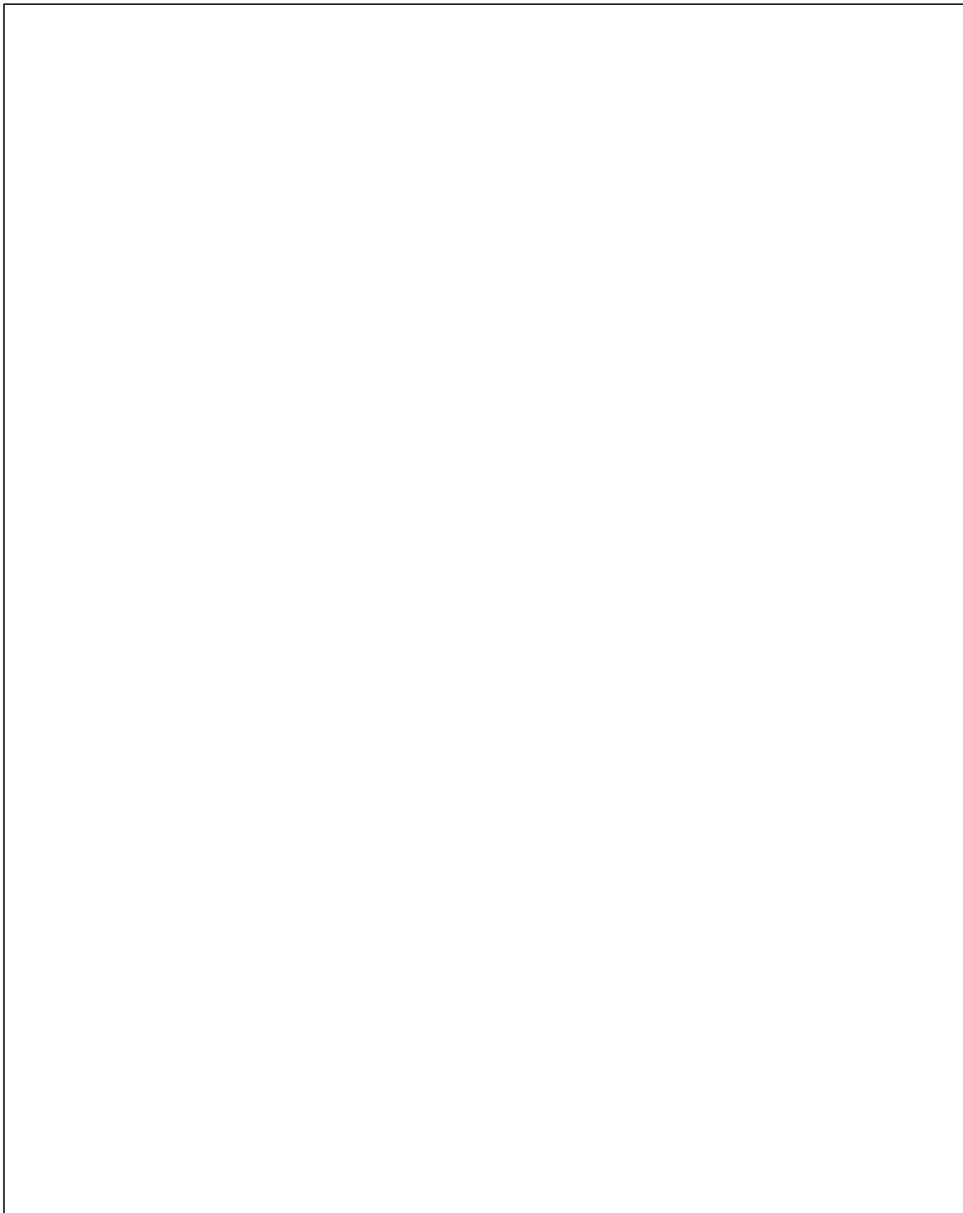


시뮬레이션 3

- 마을의제 구체화 하기 -

윤혜경 강사 / 김복남 강사

Q. 마을 의제 구체화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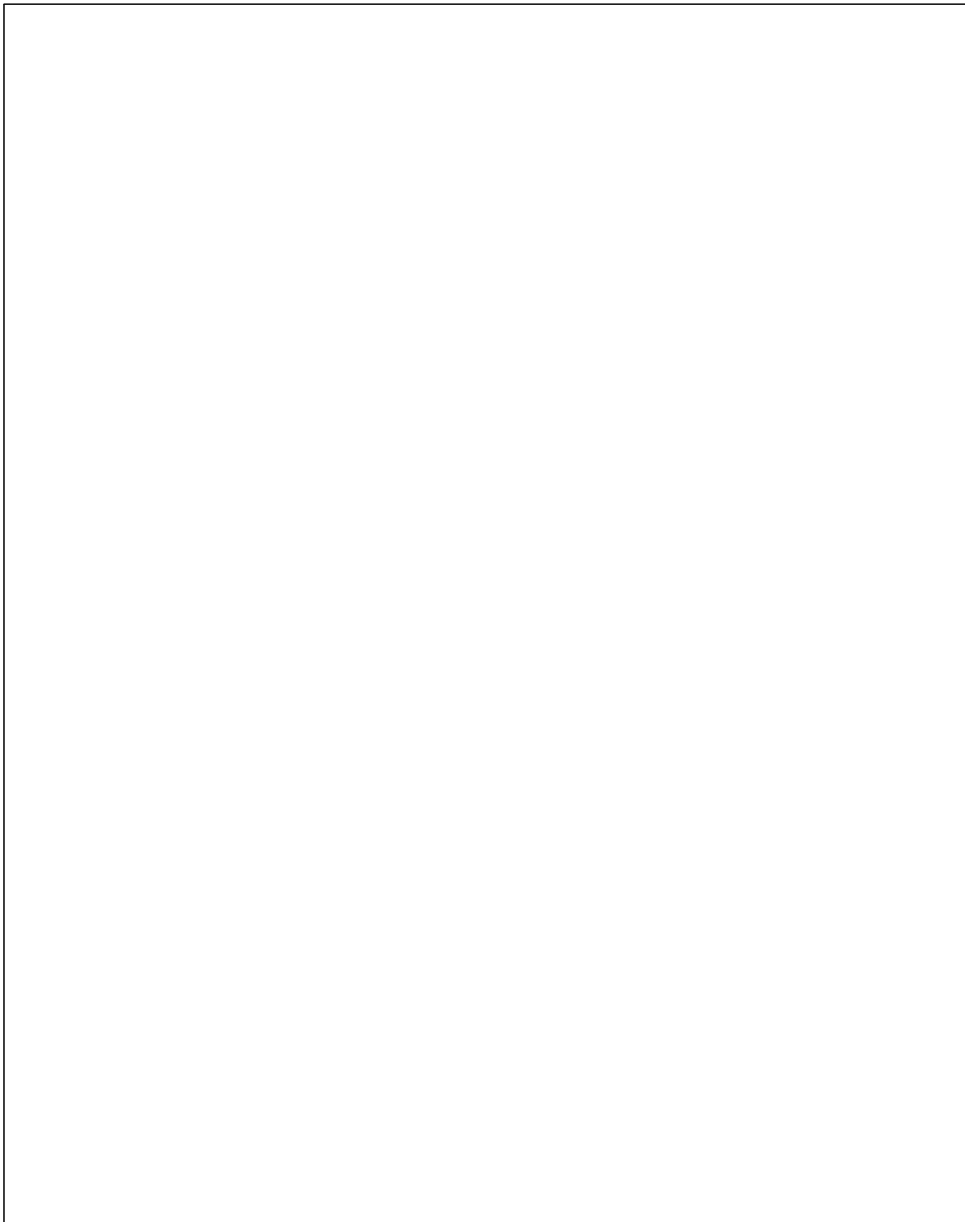


시뮬레이션 4

- 마을의제 실행계획 수립하기 -

윤혜경 강사 / 김복남 강사

Q. 마을 의제 실행계획 수립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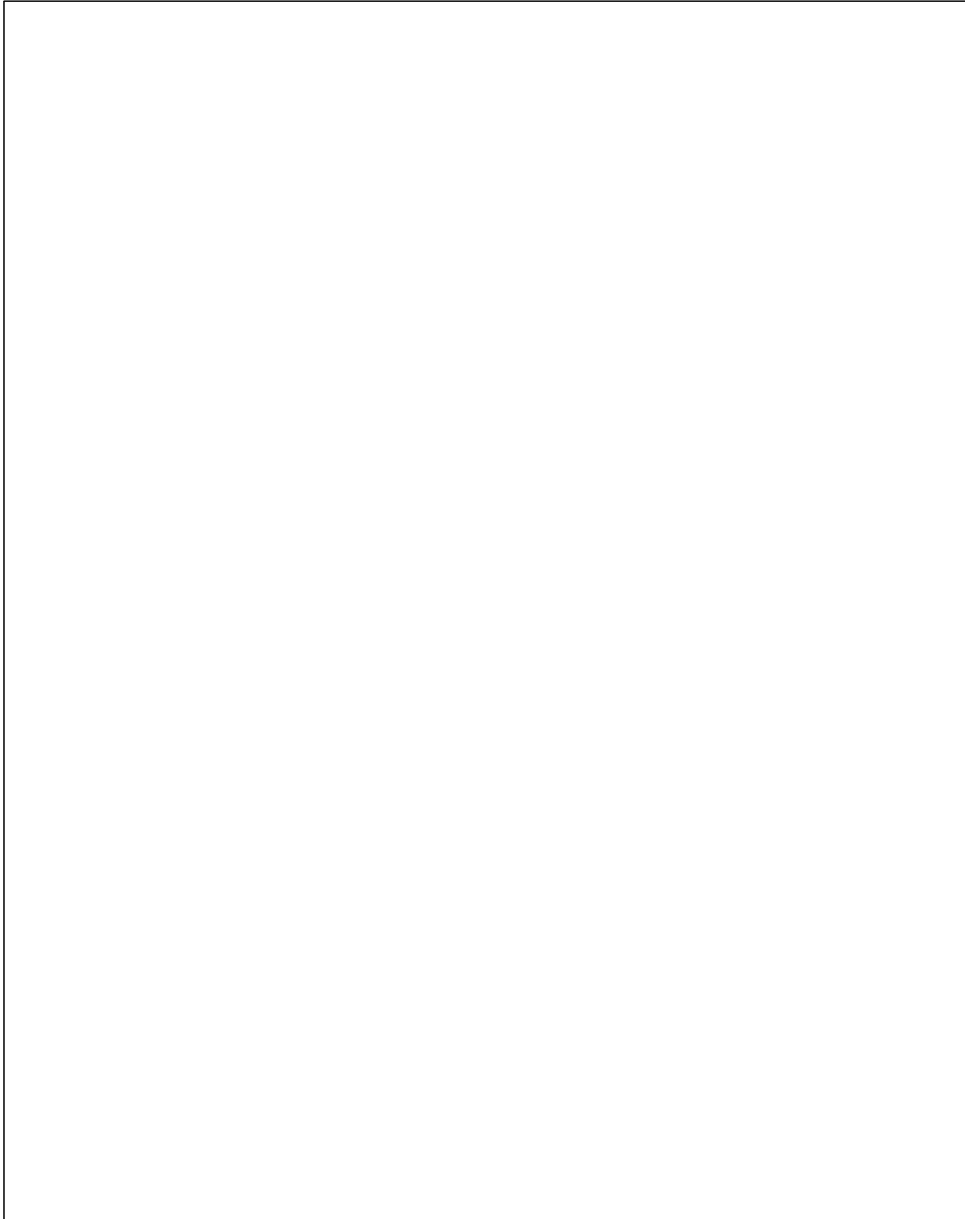


시뮬레이션 5

- 최종 공유회 -

윤혜경 강사 / 김복남 강사

Q. 실버액션단 경험 확산하고 지속하기



2017 정책연구 - 18

활기찬 노후를 위한 마을의 고령친화성 향상 방안 :
고령여성 마을활동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발행인 강경희
연구자 허미화, 김영정
발행일 2017년 12월
인쇄처 행복한나무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代)
ISBN 979-11-87956-63-1(93330)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림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

